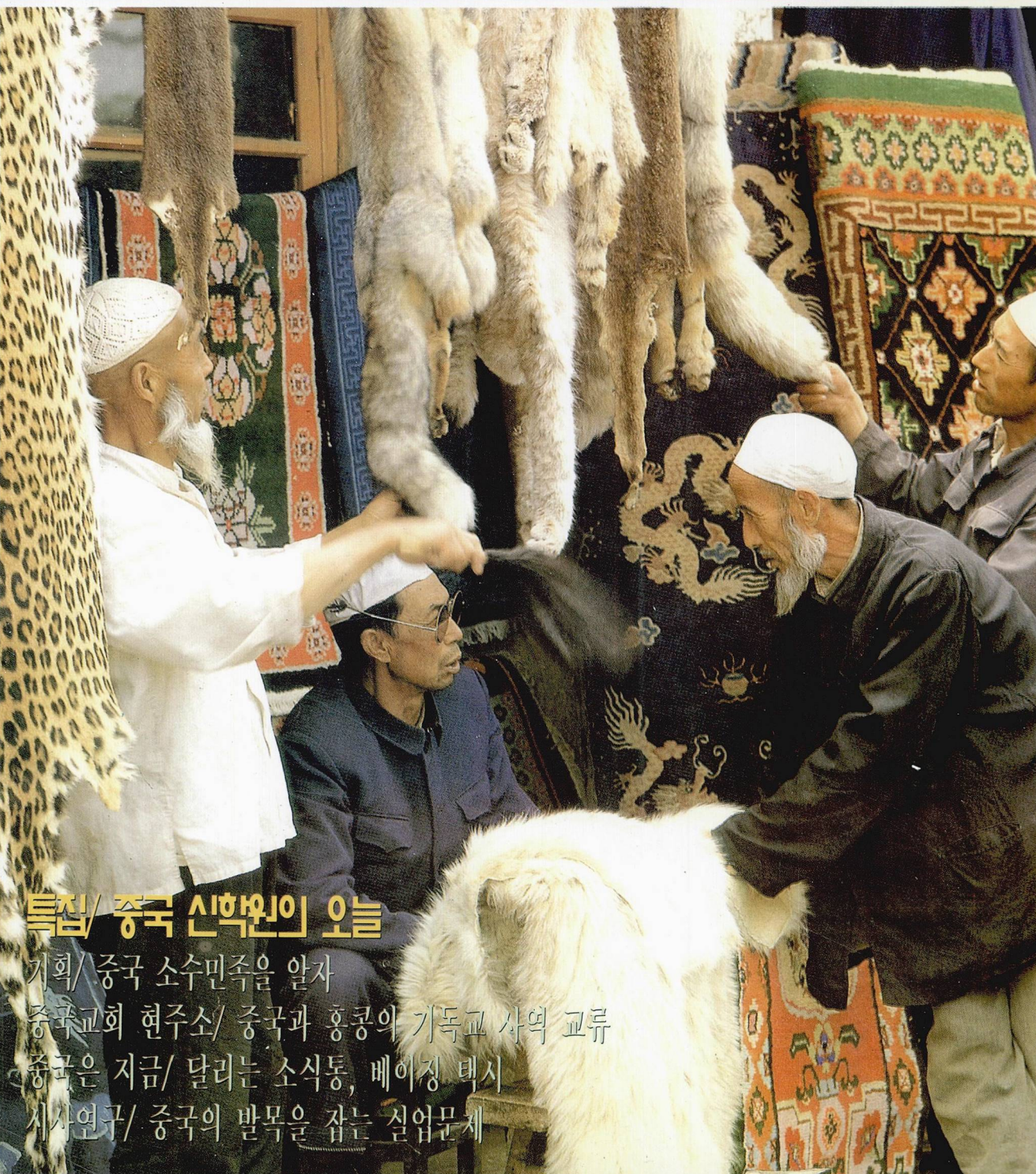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중국을 주께로

98/1·2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 발행처: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주소: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1호)/
전화(02)533-5497, 592-0132 발행인:이동화/ 발행일:1997. 12. 20/ 등록일: 1994. 2. 14일자 (등록번호/ 바 - 2078)
통권4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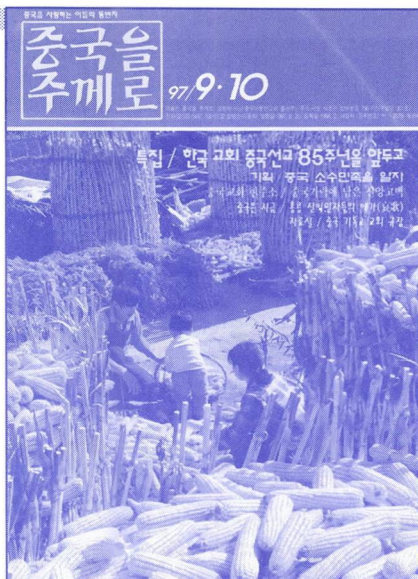
특집/ 중국 신학인의 오늘

기획/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중국교회 현주소/ 중국과 홍콩의 기독교 사역 교류

중국을 지금/ 달리는 소식통, 베이징 택시

시사연구/ 중국의 발목을 잡는 실업문제



중국에 대해 아십니까? 중국선교의 동역자를 찾으십니까?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읽히지기 원합니다.

희어진 날,
중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서 우리를 도우라’
중국교회의 위침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눈과 귀요,
중국인을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를 깨우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는 선교의 불꽃이요,
선교사로 파송된 현지 사역자를 돕는 후원자들에게는

기도의 보고요,
국내 중문과 학생들과
중국에서 유학하는 크리스천 모두에게는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손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6권) 구독료 24,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TEL: 02) 592-0132, 533-5497, 594-8038, 535-4255, FAX: 599-2786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중국을 주께로』 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 국민은행 008-01-045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로용지 7602362(회지구독요금이라 적어주십시오.)

탐스런 헌금

이동화

약 한 달 전 평소 교제가 있었던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가 섬기고 있는 한 중국 교회에서 해당 지역의 농촌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학교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돈이 없어 문짝과 창문을 달지 못하고 있다면서 50만 원(한화)의 헌금을 급히 요청해 온 것이다.

이 편지는 나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비록 헌금의 용도가 농촌 목회자 교육을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 선교회가 나서서 직접 물질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재정 적자가 7백만 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50만 원의 후원금을 추가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선교회 동역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제 추위도 닥쳐오고, 동계 성경양육반(冬季聖經培訓班)은 열어야 되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에게까지 후원요청을 하였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월요 기도합주회에 이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먼저 우리는 자신부터 헌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모아진 헌금이 15만 2천 원이었고, 다시 몇몇 간사들이 추가 헌금을 하여 22만 5천원이 되었으나 여전히 27만 56천 원이 모자랐다. 다행히 한 간사의 가족 중 한 분이 이 사실을 알고 나머지 금액을 헌금함으로써, 편지를 받은 지 보름 만에 요청받은 50만 원을 겨우 송금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선교사님은 인민폐와 한화의 환율을 대충 1:100으로 계산하여 50만 원을 요청했는데, 최근에 달러 대 한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인민폐로 4천 원도 안 되더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듣자 내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애초에 50만 원 헌금 요청을 받았을 때, 인민폐 5천 원을 염두해 두고 하신 말씀일 것이라고 짐작하면서도 헌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굳이 한화 50만 원에 맞추어 송금하였기 때문이다. 선교사님은 단순히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나에게서는 그것이 부끄러운 하나님의 질책같이 들렸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다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거기에는 기숙사에 창문을 다는 사진과, 그곳 중국인 성도들의 감사편지가 들어 있었다. 어찌나 반가운지 마치 우리의 부끄러운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표시와도 같았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헌금을 열납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집 / 중국 신학원의 오늘



- 8 중국 신학원의 현주소와 필요 석은혜
- 12 금릉협화신학원(金陵協和神學院) 김은희
- 15 연경신학원(燕京神學院) 석은혜
- 19 화동신학원(華東神學院) 안정숙
- 23 중남신학원(中南神學院) 이민선
- 27 강서성경학교(江西聖經學校) 차이나

선교나침반

- 4 선교일인 생명의 투자 유전명



- 30 디아스포라 한국인 복음의 황금어장에 이르는 길목, 상하이 이갈렘
- 35 방문취제 애덕기금회(愛德基金會), 이렇게 일합니다 권수영
- 40 중국교회 현주소 중국과 홍콩의 기독교 사역 교류
- 44 중국 도시선교 선교의 사각지대를 주시하자 한수아
- 50 궁금합니다 중국 신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석은혜

헌신의 삶

- 52 중국교회 체험기(12) 놀라운 부흥의 소식들 메이징즈(梅增知)
- 55 현지에서 온 소식 동역자의 사랑이 힘이 됩니다 주은파
- 58 중국 성도 간증 비싼 값으로 배운 고난의 참 가치 가오루지(高魯冀)

인물·역사

- 61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사 중국선교의 디딤돌이 된 방효원 목사 김교철
- 64 중국 교회 순례(8) 산시(陝西)교회의 분투
- 66 중국선교의 발자취 세상이 감당 못 할 사람 방지일
- 69 중국선교사 행전(3) 복음을 위해 남김없이 바친다 안정숙

중국은 지금

- 74 중국은 지금 달리는 소식통, 베이징 택시 지취밍
- 76 시사연구 중국의 발목을 잡는 실업문제 연구부
- 80 중국동향 초점 산새(三峽)댐 물막이 완료 연구부

기획 /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 84 원난성의 소수민족(I)-바이족, 외족 김중하
- 96 복음으로 찾아내야 할 사람들, 좡족 I.Z.M
- 98 이슬람의 철벽을 넘어 후이족에게 복음을!



중국을 알자

82 중국 · 중국인 **중국인의 '외적 정당화'**

102 중국 체험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기차표 사기** 석은혜

110 중국 단기선교 여행코스(5) **중국 문화유적지 시안(西安)** 유재승

114 중국영화 감상 **진송(秦頌)** 임용진

116 중국 문화 **춘제와 중국인** 이민선

자료실

136 제15대의 폐막과 강택민 지도체제의 확립

발행인 칼럼 **탐스런 현금 이동화 1**

목상의 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6**

선교 다이제스트 **중국 개신교회사 51**

시사만평 **내 집앞만 쓸자(自掃門前雪)** 판리푸(范立夫) 101

중국인의 유모어 **笨嘴主人(말재주 없는 주인의 이야기)** 105

만화 선교 중국어 **永遠的生命(영원한 생명)** 만화/김성준 106

만화 선교 중국어 해설 **永遠的生命(영원한 생명)** 석은혜 107

중국어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快樂崇拜歌)** 108

중국어 복음성가 **주님, 내가 여기 있소니!(主啊, 我在這裏!)** 109

시사용어 **사강조공(下崗職工)** 119

세계선교 동향 **러시아 선교, 막힌 담을 뚫어라** 이일남 120

중국 대사기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124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중국어문선교회 편집부 128

신간 도서 「**티베트에서의 7년**」 외 2권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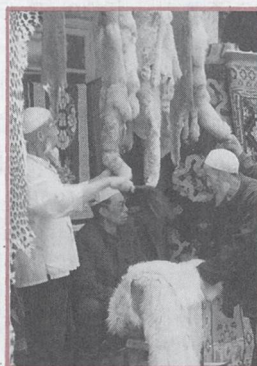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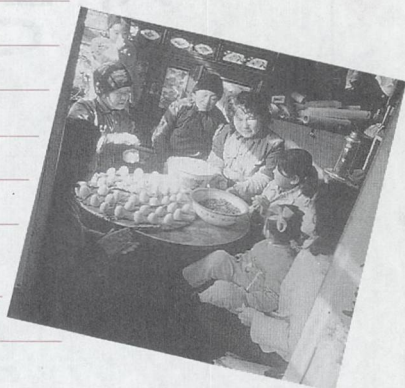
선교단신 134

선교복덕방 **일꾼을 찾습니다** 135

별책부록 '중국을 주께로' 기도칼럼너
(98.1,2월)

표지설명

중국 전역에 약 900만 명의 후이족이 분포되어 거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고, 예식을 믿는 사람도 극소수이다.
후이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자
(사진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털로 된 물건들을 후원하고 있는 후이족들)



생명의 투자

유전명

하다.

오늘날의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빨리빨리’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 고속 전철, 비행기, 컵라면, 속성사진 현상, 인스턴트 커피, 자판기 등이 둘러싸고 있다. 심지어 조립식 주택 및 여의도 광장에서 큰 고무풍선을 기계로 불어서 전람회장을 만든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즉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다. 이런 때 목표 없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표류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많은 목표와 방향 가운데 지금 우리가 중국과 선교 헌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방향으로 같이 정진하는 동역자들로서 만난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다.

오늘 이 동역자되신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생명의 투자’를 진짜 멋있게 한 ‘한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 몇 가지를 새로 배우고 재확인하며 자기에게 적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첫째,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마 13: 45).

원래 장사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가장 좋은 것을 구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나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마 13: 45~46)

우리 인간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의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잘 사용해야만 한다. 인생 최후의 막에 이르면, 더이상의 인생을 연출할 수 있는 기회란 없다. 그러므로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의 투자’를 과연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



已在新疆安家的庫
提移民家庭：開始
新的生活

는 진주장사는 바로 자기의 목표가 가장 좋은 진주를 찾는 것이란 사실을 아는 자이다. 즉 자기에게 가치있는 것을 아는 자다. 이와같이 분명한 목표가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따른다.

사람은 목표가 불확실할 때 불안하고 낙담하게 된다. 목표와 초점이 분명하다면, 어릴 때 우리가 현미경을 들고 운동장에서 태양열을 통해 종이를 태웠던 경험처럼, 종이를 태우기 위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초점만 맞추어져 있으면 반드시 타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에게는 반드시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마 13: 45).

진주장사는 가장 가치있는 하나의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 사람에게 두 번째로 값어치가 나가는 차등(次等)의 진주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가장 값진 것은 다른 것과 대체하거나 높은 표준을 낮게 책정하여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가장 우수한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기준이 필요했다. 이와같이 우리의 사역도 금, 은 보석처럼 써지 않고 공력(功力)이 나타나는 사역이어야지 풀이나 나무처럼 잣더미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셋째, 정확한 가치관이 필요하다(마 13: 45).

가장 값진 것을 발견했다면 더이상의 머뭇거리거나 요동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정정(正正)한 가치에 대한 분별력과 함께 이미 그런 가치관을 가졌다면 지속적인 추진력도 필요하다. 일례로 병아리들의 세계를 살펴보면 귀중한 영적 교훈을 발견케 된다. 병아리들은 모이를 쪼아 먹을 때 바로 자기 앞의 것만 집중하여 서로 싸우고 경쟁을 한다. 주위에 눈만 돌리면 그 주변 전체에 모이가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런 '병아리적 가치관'으로 선교지와 전략의 유행과 이동에 따라 필리핀, 소련, 소수민족 선교 등에 우르르 몰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



기신 가장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반드시 희생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마 13: 46).

진주장사는 진주 하나를 사기위해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았다. 그만큼 자기가 발견하고 찾아낸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그와 같아야 할 것이다. 주의 사역에 헌신하는 일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치있는 일이기 그 가치있는 것을 위해 다른 것들을 팔고, 버리고,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바울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고백은 바로 이 진주장사의 고백이자 행동이다.

위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생명의 투자’인지에 대해 성경의 「한 진주 장사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금 우리는 12억의 중국 영혼들을 대하고 있다. 이들의 복음화와 이들을 통한 또다른 이들의 복음화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다. 이 12억의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제 다시 우리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점검해보고 다시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길 원한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나 여건의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처/ 「중국과 복음」 제89호 중에서
유전명/ 목사, 중국복음선교회 대표

하님 사랑, 이웃 사랑

중국 선교사 제임스 리들의 아들로 태어난 에릭 리들은 에딘버러대학에서 순수과학을 공부하던 시절부터 몇몇 친구들과 함께 전도팀을 구성해 영국전역을 누비며 전도활동을 했다.

그는 당시 국가대표 럭비선수였으며, 100미터 영국 신기록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빠른 100미터 주자 중 한 사람이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에릭에게서 최초로 100미터 금메달을 기대하던 영국인들의 가슴은 부풀어 오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 일정표에 100미터가 주일날 거행되는 것으로 발표되자 에릭은 단호하게 100미터 출전 포기를 알렸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에릭 리들은 올림픽 다음해인 1925년, 모든 명예와 기회를 버려두고 조용히 중국선교사로서 영국을 떠났다.

1942년 3월, 중국에 있던 에릭은 일본군에 의해 수용소에 억류되었다. 수용소 내에서 에릭은 항상 노약자들을 위해서 물지게와 석탄을 도맡아 지고 다녔다. 왕년의 올림픽 스타였던 그는, 이 상황 아래에서도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다.

에릭은 수용소에 들어온 후 제일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학과목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높은 담과 철조망에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구기경기를 친절하게 지도해 주었고, 심판을 봐주기도 했다. 그리고 에릭은 아이들에게 주일에는 운동경기를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수용소 내의 파란한 생활에 지친 아이들은 에릭의 자상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어느 주일날 자기들끼리 하키 경기를 했다. 그런데 판정을 놓고 왁자왁하다가 결국에는 주먹싸움까지 번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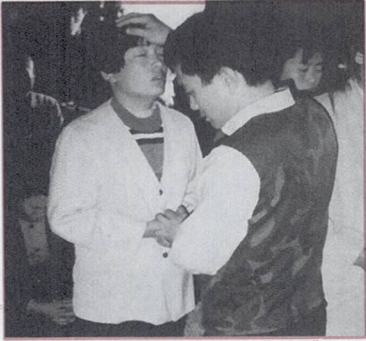
그다음 주일날 에릭은 경기장에 나와 심판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가 올림픽의 금메달을 마다하면서 지켜온 세상의 어느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신조를 수용소 내 몇몇 아이들의 화목을 위해 스스로 깨뜨린 것이다.

에릭 리들은 1945년 2월 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숨을 거두었다. 수용소 내에 있던 사람들은 에릭에게 그같이 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눈치조차 채지 못하였다.

에릭 리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특별한 감회를 더해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이 글은 '왕의 아이들'에서 출판한 오스왈드 챔버스의 목상집 「요즘선교 이야기」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특집

중국 신학원의 오늘

중국 신학원은 그 나라 교회의 미래를 좌우한다. 부실한 신학교육은, 부실한 교회, 지도자를, 또 그것은 교회의 부실을 낳는 연쇄 작용을 일으킨다.

지금 중국은 교회의 급속한 양적 팽창의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 시대의 최대의 추수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중국 교회의 장래는, 중국 신학원의 참된 부흥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중국 신학원의 현황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특집 중국 신학원의 오늘

중국 신학원의 현주소와 필요

석은혜

1981년 2월에 난징(南京)의 금릉협화신학원이 복교된 것을 필두로 현재 중국 전역에는 13개의 신학원과 4개의 성경학교가 있다. 이들 신학원의 졸업생은 현재까지 3천여 명이고 교역자 수는 2천명 미만으로 통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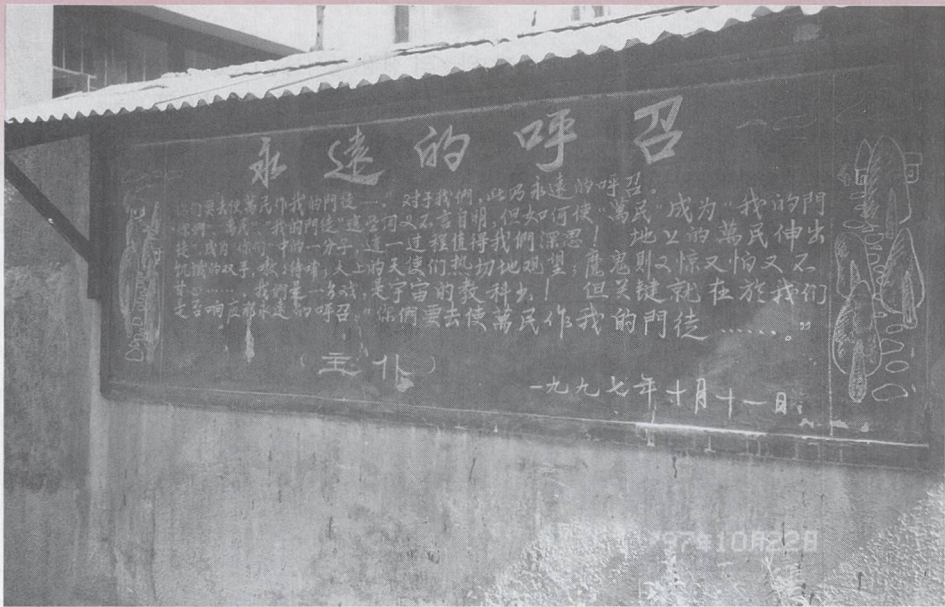
신학원은 4년제, 2년제가 있고, 성경학교는 대부분 1년제이다. 금릉협화신학원만이 학위가 주어지며, 연구과(대학원) 과정이 있다. 지방신학원을 졸업하고 계속 공부하길 원하는 사람은 금릉협화신학원에 가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신학원은 규모 면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1급은 전국적인 성격, 제2급은 큰 지역적 성격, 3급은 각 성(省)에 속하는 신학원이다. 이외에도 1년제 단기 성경학교가 있다. 전국적 성격으

로 운영되는 신학원은 딩광선(丁光訓)이 원장으로 있는 난징의 금릉협화신학원이다.

지역적 성격을 지닌 신학원은 다섯 개이다. 화북과 서북지역의 연경신학원(베이징-北京), 서남지역의 사천신학원(청두-成都), 중남지역의 중남신학원(중난-中南), 동북지역의 동북신학원(선양-瀋陽), 화동지역의 화동신학원(상하이-上海) 등이다.

성(省)급으로 운영되는 신학원은 절강신학원(항저우-杭州), 복건신학원(푸조우-福州), 산둥신학원(지난-濟南), 광동협화신학원(광저우-廣州), 운남기독교신학원(쿤밍-昆明), 안휘신학원(허페이-合肥), 하남신학원(정저우-鄭州) 등 7개소이다.

1년제 성경학교는 강서성경학교(난창-南昌), 호남성경학교(창사-長沙), 섬서성경학



삼하이 화동신학원 담벽에 걸려있는 칠판 “영원한 부르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교(산위엔-三原), 내몽고배훈반(호호트-呼和浩特) 등이다(이 외에도 경령성경학교(스자좡-石家庄), 영구성경학교(산시성-山西省) 등 많은 성경학교가 있으나 삼자교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삼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중국 신학생들의 신학원교육을 염려하는 분도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교육받는 신학 내용은 상당히 복음적이고, 근래 신학원을 졸업한 후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나 목사들도 올바른 복음적 목회관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신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젊은 목사들 중 외국의 복음적인 신학원에 유학해서 공부하고 돌아와 사역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중국 삼자신학원의 운영을 보면, 전국적인 성격을 띤 금릉협화신학원은 국가 편제에 예속되어 있어 중앙에서 재정이 발급되지만, 기타의 경우는 모두 각지의 기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나 운영면에서 열악하기 그지없다.

최근들어 중국의 모든 신학원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하여, 1인당 1년에 인민폐 2,000원(한화 약 2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학

비는 학생을 추천한 교회에서 지불하고 있다.

중국 신학원은 계속해서 증설되고 있고, 현재 있는 신학원도 옛 건물을 보수하여 증축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크게 신축하고 있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번에 본지 편집부는 화동신학원, 금릉협화신학원, 안휘신학원, 중남신학원, 연경신학원, 강서성경학교 등을 둘러 보았다. 난징의 금릉협화신학원에서는 도서관을 건축하고 있었고, 허페이의 안휘신학원은 새롭게 학교를 건축하고 있었다(이로 인해 학교 관련자를 만나지 못해 여기에서 안휘신학원은 다루지 않았다). 우한의 중남신학원에는 신학원 옆에 부설 병원이 신축되어 있었고, 기숙사 등을 새로 짓고 있었다. 난창의 강서성경학교는 1년전 새로지어 교외로 이사했고, 연경신학원도 금년 7월 신축하여 이전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신학원들마다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데, 현재 중국 신학원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수요원의 태부족이다. 대부분 신학원의 교수들이 해당지역에서 목회를 겸임하고 있어서 연구와 교수하는 데 전념할 시간이 없다. 모든 신학원의 전임교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신학원 교수 중 젊은 교수진은 이제 막 신학원이나 연구과를 졸업한 자로서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학생들도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실제로 필요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못하다. 예를들면 목회 상담, 예배학, 교회 관리 및 교회 행정, 기독교 윤리 등이다.

넷째, 신학도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금릉협화신학원은 4만 권, 연경신학원에 1만 권, 화동신학원에 6천 권, 중남신학원에 6천 권 정도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다.

다섯째, 학교 행정이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컴퓨터나 복사기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등, 현대적 기기들이 부족하다.

여섯째, 운영 경비부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신학원들의 학생 기숙사에 난방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각 지역교회 보다는 신학원 시설이 비교적 좋은 편이라 졸업후 돌아가 지역교회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중국 신학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본다. 또한 신학원을 지원하는 사역 방면으로는 그다지 많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자료 부족과 지면관계로 중국 신학원 13곳과 성경학교 4곳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금번 편집부에서 방문한 5개의 신학원을 본지에 정리하여 실었다. 이 자료가 초석이 되어 한국 교회가 중국 신학원을 섬기는 사역에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중국 교회에 지도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신학원들을 통해 지도자가 많이 양성되고, 그들이 바른 신학사상으로 교육받으면 중국 교회는 자연히 바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 신학원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중국 신학원을 위해 기도로 동참할 수 있다. 이 신학생들이 좋은 일꾼으로 길러지도록 우리 모두 중보하여 기도한다면 중국 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양질의 신앙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중국 신학원에는 홍콩 복음증주협회(CCL) 등 해외의 문서선교 단체에서 기증한 책들도 많이 있었다. 물론 문서를 보급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영문이나 중문으로 된 복음적인 도서들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복사기, 컴퓨터, 차량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기기들을 기증하고자 할 때 먼저 중국해당 신학원에 알려 수속을 밟으면 세금은 면제된다고 어떤 신학원 측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확인이 필요하다.

넷째, 물질로 후원할 수 있다. 만약 물질로 후원하고자 할 때 어떤 특정인에게 주지 말고 양회를 통해 주며, 쓰여지길 원하는 곳을 분명하게 제시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는 한 중국인의 말에 의하면 물질 보다는 필요한 물건으로 직접 사서 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신학원에 필요한 물건이나 기숙사에 필요한 이불, 난로, 선풍기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섯째, 신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신학생들의 1년 학비가 인민폐 2,000원 인데, 원래 이 학비는 학생을 추천해 준 교회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농촌교회는 이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신학원 측에 상의하여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여섯째, 자매결연 등을 통해 교수진 중 한국에 와서 능히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초청해 1년 혹은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돌아가도록 해 준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계신 사역자 중 삼자 측과 연결된 분들과 연결하거나 아니면 중국 신학원 측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자료들을 통해 중국 신학원을 지원하는 사역이 점점 확장되길 바라며 참고로 중국 신학원 17곳의 연락처와 상황을 소개한다.

중국 신학원(校)연락처 및 상황

신학원 명	연 락 처	비 고
금릉협화신학원 (金陵協和神學院)	강소성 남경시(江蘇省 南京市) 大銅銀巷 17號 전화: 025-6641439	전국적 모집 1981년 다시 개강 4년제 본과/ 연구과 및 3년제 통신과정
연경신학원 (燕京神學院)	북경시(北京市) 海澱區 清河鎮 濱河路 전화: 010-65251090	북경, 천진, 하북, 복서, 내몽고, 섬서, 감 숙, 영하, 청해, 신강 등의 성시에서 모집/ 1986년 개/ 5년제 본과/ 1997년 7월 이전
화둥신학원 (華東神學院)	상해시(上海市) 五原路 71號 전화: 021-6433304	산둥, 강서, 절강, 복건 및 상해 등지에서 모집/ 1985년 개/ 4년제 본과
동북신학원 (華東神學院)	요녕성 심양시(遼寧省 沈陽市) 沈河區 北一經街 48號 전화: 024-2829367, 4333251	흑룡강, 길림, 요녕 3성에서 모집/ 1982년 개/ 4년제 본과
산둥신학원 (山東神學院)	산둥성 제남시(山東省 濟南市) 經二路 67號 전화: 0531-6926227	1987년 개/ 4년제 본과 2년제 과정
안휘신학원 (安徽神學院)	안휘성 합비시(安徽省 合肥市) 宿州路 74號 전화: 0551-2676725	1986년 개/ 2년제 과정, 현재 교외에 신축 중에 있음.
절강신학원 (浙江神學院)	절강성 항주시(浙江省 杭州市) 解放路 104號 전화: 0571-7011303	1984년 개/ 2년제 과정
복건신학원 (福建神學院)	복건성 복주시(福建省 福州市) 倉山區 東群路 16號 전화: 0591-3445102	1983년 개/ 2년제 과정
중남신학원 (中南神學院)	호북성 무한시(湖北省 武漢市) 武昌區 民主路 277號 전화: 027-8876281	하남, 호북, 호남, 광둥, 광서, 해남 6성에 서 모집/ 1985년 개/ 4년제 본과 및 2년제 과정
광둥협화신학원 (廣東協和神學院)	광둥성 광주시(廣東省 廣州市) 沙面大街 69號 전화: 020-81867950, 81907571	1986년 개/ 본래 2년제 과정이었으나 1994년부터 3년제로 바꿈
사천신학원 (四川神學院)	사천성 성도시(四川省 成都市) 四聖祠北街 19號 전화: 028-6747930	운남, 귀주, 사천 3성에서 모집/ 1984년 개/ 4년제 본과 2년제 과정
운남성기독교신학원 (雲南省基督教神學院)	운남성 곤명시(雲南省 昆明市) 昆沙路 59號 전화: 0871-8182558, 8182779	1988년 신설/ 3년제 과정 (현재 문제가 있어 문이 닫혀 있음)
하남신학원 (河南神學院)	하남성 정주시(河南省 鄭州市) 漢川街 23號 전화: 0371-6981337	2년제 과정
강서성경학교 (江西聖經學校)	강서성 남창시(江西省 南昌市) 民德路 124號 전화: 0791-6224657	1991년 개/ 1996년 신축 이전/ 1년제 성경 학교/ 현재 2년제 신학원으로 신청 중
호남성경학교 (江西聖經學校)	호남성 장사시(湖南省 長沙市) 郊區馬王堆 新橋村 전화: 0731-4711923	1년제 성경학교
섬서성경학교 (陝西聖經學校)	섬서성 삼원현(陝西省 三原縣) 東關油房道 94號 전화: 0910-2282577	1년제 성경학교
내몽고 배훈반 (內蒙古培訓班)	내몽고자치구 호화호특(呼和浩特市) 新城南街 전화: 0471-6936429	1년제 성경학교

석은혜/ 본지 편집장

특집 중국 신학원의 오늘

금릉협화신학원 (金陵協和神學院)

김은희

장쑤(江蘇)성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난징(南京). 최장기에 걸쳐 대항했던 태평천국(太平天國)의 수도로서, 신해혁명 후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수도로, 아편전쟁 후 남경조약이 체결된 곳으로,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남경대학살이 일어났던 곳이다. 특히 어린 학생, 유아까지 처참하게 살해되었던 남경대학살은 중국이 이민족의 침략중에서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난징의 기독교 사역

난징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나 문화대혁명 당시 성도와 교회 대부분이 폐쇄되었고, 일부는 지하로 숨어들었다. 많은 성도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조용히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 거의 50년 동안 가정교회는 계속 성장하였다. 현재 삼자에국운동위원회에서 밝히는 난징의 공식적인 성도수는 10만 6천 명 가량이다.

난징의 기독교협회 사무소는 1980년 문을 연 이래 교회와 함께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자 힘쓰고 있다. 중국기독교협회와 삼자위원회에는 두 개의 단체가 있고 그 아래에 10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교회관리위원회, 농촌문자위원회, 농촌사역위원회, 성경출판위원회, 문서사역위원회, 여성사역위원회, 《천품》사역위원회, 성경사역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민족사역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에 사무실이 두 개씩 있는데, 난징도 그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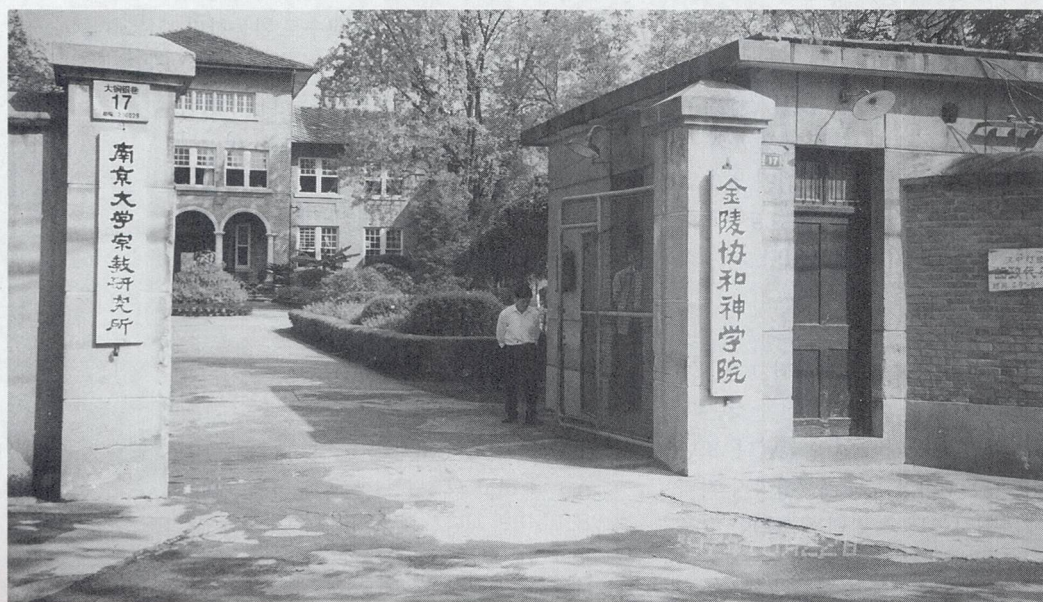
10개의 위원회 중 난징은 성경출판위원회, 농촌사역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문서위원회의 4개의 사역을 맡고 있다. 특별히 중국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사역은 중요한 사역이다. 농촌 교회는 사역자도 부족하고 또 그에 따른 지도자 양육 그리고 신앙서적 부족, 이단의 난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종합적인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난징 기독교 사무소는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금은 학생 4~5명을 한 그룹으로 짜서 농촌 사역자 훈련반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교류사역도 난징이 여러 해 동안 해온 사역이다. 많은 해외 교회의 인사를 초청하였고, 지금도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출판사역에 있어서는 현재 《성경백과사전》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성경주석》, 《성경소사전》은 이미 출판되었다. 성경도 이미 10만 권 이상을 출판하였고, 계속 출판할 예정이다. 또한 각지역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신학교재도 출판한다. 난징 출판위원회는 국가가 허용하는 내용의 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으며, 이 책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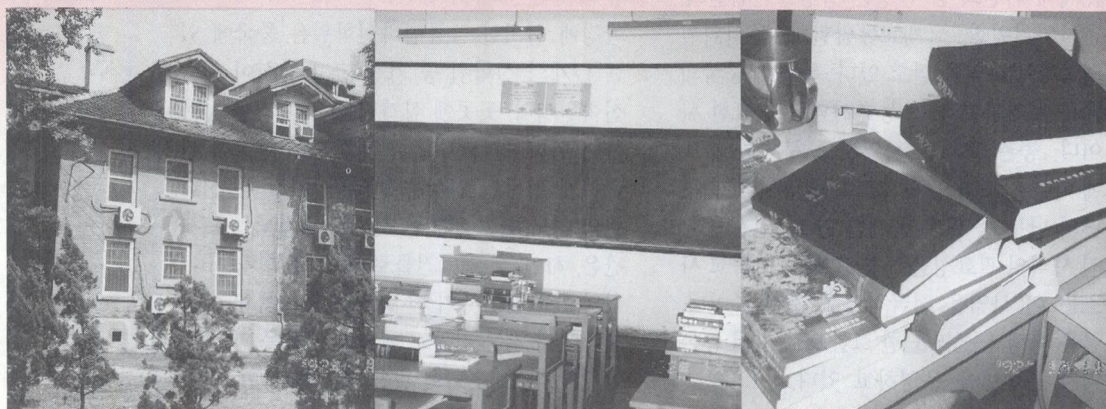
중국유일의 학위수여 신학원

난징에 위치한 금릉협화신학원은 중국에 있는 17개의 신학원 중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신학원이다. 곳곳에 심겨진 나무와 건물 사이 사이 마다 이어진 길, 전체적으로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된 인상을 받았다. 가장 큰 신학원의 면모를 새롭게 할 것으로 생각되는 도서관은, 하얀 색 3층 건물로 지금 건축 중이다. 식당으로 들어서기 전 난징 애덕기독교 예술센터에서 만든 기독교 예술 공예품을 파는 곳이 있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장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등, 여러 성경 장면이 조각된 책꽂이, 벽걸이 등을 판매하고 있다.

금릉협화신학원은 1981년 2월 28일 복교되었고, 1985년 6월 5일 95명의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신학원들의 학생들도 다른 신학원들과 마찬가지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신학원은 다른 신학원과 달리 전국 각지에서 입학생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신학생들의 수준이 다른 신학원에 비해 월등하다. 중국에서 금릉협화신학원만이 학위가 주어지며 대학원과정도



금릉협화신학원



있다.

학제는 본과 4학년 과정, 대학원 연구과 3년 과정이다. 직접 와서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한 3년제 통신학부도 있다. 통신학부에 등록된 학생은 전국적으로 4천명 가량 된다. 또한 난징의 기독교 사무소가 농촌사역에 중점을 두는 것에 발맞추어, 농촌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양육반을 개설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교회 지도자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 정도의 낮은 문화수준이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을 위해 매년 1,000명을 모집하여 양육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특별히 말씀의 뿌리가 튼튼히 박히지 못한 농촌교회에 말씀의 기초를 쌓는 목회자 양육반은 중국 농촌교회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릉협화신학원의 학교생활

평일에는 보통 7시 30분부터 시작되고, 월, 수, 금요일은 한 시간 동안 아침기도회를 갖는다. 대개 6시가 되면 하루의 수업이 끝난다. 또한 화, 수, 목요일은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저녁 기도회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수요일은 같은 반 학우끼리 기도회를 갖는다. 그 뒤 7시부터 9시까지의 자습시간이다.

과목은 성경 신약의 전반적인 역사와 문화사, 구약의 역사와 문화사를 비롯 교회사, 철

학사, 근대사 등의 필수과목과 영어, 교육학, 교회음악, 미술 등 교양과목으로 나뉜다. 다른 신학원은 개교회의 후원을 받아 학교를 다니지만, 전국적인 성격을 띤 신학원이라 국가 편제에 예측되어 중앙에서 재정을 공급받는다. 혹자는 이 학교의 신학 사상이 자유주의 신학사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중국의 많은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여러 신학원에서 교수로 활동한다. 특히 이 신학원에서는 학생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기도 하는데, 그들이 돌아온 다음 여러 신학원에서 가르치게 된다. 따라서 이 신학원은 중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데 대한 자부심과 긍지도 대단하다.

기도제목

1. 농촌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농촌 목회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양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2. 학교 도서관 건축이 잘 마무리되도록.
3. 10여 년 이상 된 교회가 붕괴의 위협을 안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재건축되고 또 다른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4. 출판위원회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은희/ 본지 편집기자

특집 중국 신학원의 오늘

연경신학원 (燕京神學院)

석은혜

중국의 수도 베이징

베이징은 중국의 정치, 문화, 행정, 학술의 중심지로 천여만 명의 인구, 400만 정도의 유동 인구가 있는 중국의 수도이다.

중국과학원과 중국사회과학원 등 각종 연구기관과 중국의 자존심인 북경대, 청화대, 인민대 등 많은 교육기관이 있다.

베이징에는 천안문(天安門) 광장, 만리장성(萬里長城), 자금성(紫禁城), 이화원(頤和園), 천단(天壇), 명십삼릉(明十三陵) 등 유명한 관광명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베이징을 방문할 때 ‘베이징의 명동’인 왕푸징가(王府井街)에 가서 쇼핑을 하고, ‘마이당라오(麥當勞)’에 들러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면서 많은 중국인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베이징의 이름있는 요리는 ‘베이징 카오야(烤鴨-구운 오리고기)’이다. 카오야를 먹어보고, 만리장성을 유람해보고, 자전거를 타 봐야만 베이징을 갔다왔다고 말할수 있단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만리장성 유람 보다는 베이징의 교회 상황 알아보고 연경신학원을 방문해 보는 일에 있었다.

농촌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원

연경신학원(燕京神學院)은 본래 베이징(北京)시 동단(東單) 베이따제(北大街) 43호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97년 7월 하이디엔취(海澱區) 칭허진(清河鎮) 빈허루(濱河路)으로 이전하였다.

연경신학원은 최근 많은 분들의 자리 이동

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최근 원장으로 임명된 강와스(缸瓦市)교회를 담임하시는 위신리(于新粒) 목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경신학원은 중국의 화북(華北), 서북(西北)지역에 있는 신장(新疆), 칭하이(青海), 간수(甘肅), 내이멍구(內蒙古), 산시(陝西), 산시(山西), 닝샤(寧夏), 허베이(河北), 톈진(天津), 베이징(北京) 등 10개 성시(省市)에서 사역할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원래 연경신학원은 연경대학 내의 종교학원(宗教學院)이었는데, 1950년대에 이 종교학원과 다른 신학원들이 연합하여 연경연합신학원이 세워졌다. 1960년대에 남경신학원과 연합하여 난징에 금릉협화신학원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60년대 초부터는 베이징 지역에 신학원이 없었다. 1983년 베이징에 작은 규모의 신학원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1986년에 위의 10개 지역의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연경신학원을 개원한 것이다. 이 신학원의 목적은 주로 농촌 교회에서 사역할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실제훈련을 겸한 신학교육

이 신학원은 현재 5년제 과정이다. 하지만 그 중에는 2년 동안 공부하고 본 교회에 가서 1년을 실습한 후 그대로 교회에 남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농촌 교회에서 사역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교로 돌아와 다시 2년을 공부해야 한다. 현재 학교 측에서는 5년을 공부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5년 공부를 마치면 학사학위 증서를 주고 있다. 연경신학원을 졸업생 중에는 난징의 금릉협화신학원에 가서 대학원 과정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다.

이 신학원은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시험볼 자격을 주는데, 화북과 서북지역의 지역교회에서 추천한 학생들로서 시험에 합격해야만 입학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은 최소한 소속 교회에서 1년 동안 봉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1996년에는 학생을 모집하지 않아 현재 2학년은 없다. 올해(1997년)에는 80명이 시험을 봤는데 20명이 합격했다. 커리큘럼의 70%



연경신학원

는 종교과목이고, 30%는 문화과목(우리 나라의 교양과목과 같은 것)이다.

연경신학원의 종교과목은 성경통계연구, 신구약개론, 조직신학, 기독교 사상사, 이스라엘 역사, 복음 기독교사, 실천신학, 논리학, 경제학, 설교학, 영어, 히브리어, 회랍어 등이 있으며, 문화 과목은 고전문학, 역사, 법률에 관한 과목이 있다.

실습 기간에는 본 교회에 돌아가, 1년 동안 공부하는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봉사만 한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자기가 원하는 베이징 지역의 교회에 가서 주일예배를 드리거나 성가대 혹은 예배 인도 등의 봉사를 한다.

변화하고 있는 교육 수준

이 신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발전이 급성장하면서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교회는 신학원과 교회에서 리더들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경신학원은 교사와 학생의 영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린다. 또한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지역 혹은 학급을 중심으로 하여 기도모임과 교제를 갖는다.

연경신학원에는 20여 명의 교수가 있는데, 10여 명은 전임 교수이고, 10여 명은 베이징에 있는 교회의 목사이거나, 다른 대학의 교수들이다. 신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는 나이가 70세 가량 되는 분도 있으며 젊은 목사, 전도사도 있다. 지금 신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문 교사들의 실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최근 통신과정으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 사역을 하시던 푹(孔) 교수님을 모셔오셨단다. 그는 본래 난징의 금릉협화신학원에서 통신과정을 책임지셨던 분으로 위(于) 목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단다. 푹 교수를 모신 이유는 통신과정 개설을 통해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없는, 농촌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많은 농촌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있다고 한다. 게다가 푹 교수를 매개로 하여 금릉협화신학원과 좋은 교류를 맺기위해서라고 한다.

신학원 졸업후 진로는?

현재 이 신학원의 학생은 130여 명 정도이며, 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학비는 1년에 인민폐 2,000원(한화 약 20만 원 정도)이다. 이 2,000원의 학비와 실습비는 학생을 추천해서 보낸 교회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매월 150원 정도의 식비와 200원 정도의 교재비 및 용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졸업을 하면 반드시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처음부터 교회의 추천을 받아야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고, 졸업하면 반드시 본 교회로 돌아가야만 한다. 따라서 추천해 준 교회가 학생의 학비와 실습비, 앞으로의 “진로”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졸업생 대부분은 각 지역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등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중국에서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신학원을 졸업한 뒤, 교회에서 최소 3년(실습 기간을 제외하면 2년)을 일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현재 중국에는 젊은 목사가 적다. 현재까지 중국의 신학원에서 배양한 신학생들은 3,000명 가량 되며, 연구생은 300명이 된다. 1천만에 이르는 중국 교인수에 비해 목사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도서 상황과 도서관 운영

현재 새로 이전한 청허(淸河) 근처에 있는 이 신학원의 많은 건물 중 한 곳이 도서관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도서관의 서적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 십만 권이 넘었는데 문화대혁명(文化革命) 때 분실되었다고 한다. 또한 일부분은 북경도서관(北京圖書館)에서 가져왔고, 일부분은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지금은 5,000권의 영어서적과 5,000권의 중국어 서적이 있다. 새로운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과 양질의 책을 많이 구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신학원의 도서관에는 다른 신학원과 달리 홍콩 복음증주협회에서 발행한 책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신도들이 중국어나 영어로 된 양질의 서적을 많이 보급해 주고, 연경신학원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길 바라고 있다.

베이징의 기독교 현황

베이징시는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대 도시이지만, 8개의 공인교회와 300개의 집회장소가 있을 뿐이다. 다른 종교(불교, 이슬람교, 도교, 천주교)와 비교해 보면, 신도수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발전 속도는 가장 빠르다.

지금 베이징에서 제일 큰 교회는 충원문(崇文門)교회인데, 매주 2,000여 명 정도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베이징시의 신도는 약 2만 명쯤 된다.

기독교가 베이징에 전래된 지는 굉장히 오래 됐다. 1807년경 개신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 1900년에는 '의화단의 난'이 일어나 많은 주의 종들이 피를 흘렸다.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중국 전역의 교회에 부흥의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1949년에는 5,000명 정도의 신도가 있었다. 이 숫자는 당시 신학원 학생들도 포함된 것으로 그 때 믿었던 사람들 중, 연경대학(燕京大學- 현재 북경대학)의 교수도 있었다. 베이징 지역에 60여개소의 교회가 세워졌고 계속 성장하였다.

그러나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사회질서가 문란해졌고 어떠한 종교 활동도 허용되지 않아 교회는 문을 닫아야만 했다. 1979년에 교회가 문을 다시 열어있을 때, 그때 신도가 23~30명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되어 2만 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현재는 매년 1,500명씩



신학원 도서관에 신앙서적이 많이 보급되길 기도하고 있다.

세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기독교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이유는, 기독교야말로 진리이기 때문이며, 기독교는 서양종교라고 생각했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베이징에는 목사가 30여 명 정도가 있다. 10여 명은 40세 이하의 젊은 목사이고, 20여 명은 연세가 70세 가량된 연로하신 목사님들이다. 87세의 목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다.

중국 교회는 비교적 가난하다. 그래서 중국 교회에서는 삼자(自養, 自傳, 自治)를 더욱 강조한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노력과 신앙에 의지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실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이들은 해외의 많은 교회들이 중국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길 원하고 있다.

기도제목

1. 연경신학원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장되어 수도에 있는 신학원으로 그 위상을 갖추 수 있도록.
2. 영적으로 무장된 지도자들이 이 신학원을 통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3. 실력있고 헌신된 교수들이 많이 양성되어 신학원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4. 신학원생들이 읽어야 할 신앙적인 도서들이 많이 준비되도록.

석은혜/ 본지 편집장

특집 중국 신학원의 오늘

화동신학원 (華東神學院)

안정숙

창장(長江)에서 갈라져 나와 상하이(上海)를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황푸(黃浦)강. 오래 전부터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 수많은 외국 배와 사람들이 이 강을 따라 들어와 상하이의 땅을 밟았다. 이들과 함께 서양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들어왔다. 황푸강을 면하여 길게 늘어진 지역을 와이탄(外灘)이라 부르는데, 그 맞은 편에 상하이의 오랜 개방역사를 대변해주는 유럽식의 건물들이 건물에 건물을 연하여 길게 늘어서 있다. 와이탄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곳이 중국인지, 유럽의 어느 한 도시인지 하는 착각에 빠져본 경험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일찍부터 외부세계에 개방된 상하이는 많은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도 오래전부터 발을 들여 놓고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곳이다.

상하이 교회의 현실

중국내지선교회를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던 상하이는 현재 14만 명의 교인과 119개의 교회가 있다. 이는 상하이시의 교외 지역까지 모두 합한 것이다. 최근 추세를 보면 교회에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로 인해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대체로 오후예배 중 1부예배는 노인들이, 저녁예배에는 청년들이 많이 참석한다. 뿐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을 보면 청년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980년부터 매년마다 300여 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중 절반 가량이 35세에서 4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교회를 찾아드는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가는 데, 사역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목사는 40여 명뿐이며 시간제(part time) 사역자까지 합하면 100여 명 정도 된다. 사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인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지만 영적인 성장도 삶의 변화도 없어 주위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행위를 하는 신자들도 많다. 결국 예수는 믿었지만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못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와 교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1949년을 전후로 한 신학원 상황

문화대혁명 이전 상하이에는 침례교신학원, 성공중앙신학원 그리고 중화신학원 등 모두 3개의 정식 신학원이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이 점령하면서 많은 외국인 교수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신학원은 폐교의 위험에 직면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되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드세었던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신학교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제국주의와 같은 시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다가오는 고난에 의해 신앙을 포기했다. 1966년 문혁이 발생하면서 모든 신학교는 강제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성경은 모두 불태워졌고 교회 건물은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전용되었다. 그러나 덩샤오핑(鄧小平)의 개방개혁 노선에 따라 80년대 초부터 교회와 신학교는 하나둘씩 회복되었다. 상하이시 우위엔루(五原路) 71



화동신학원

호에 위치하고 있는 화동신학원은 1985년 다시 문을 열고 12년 간 신학생들을 배출하였으며, 전국으로 그들을 보내 사역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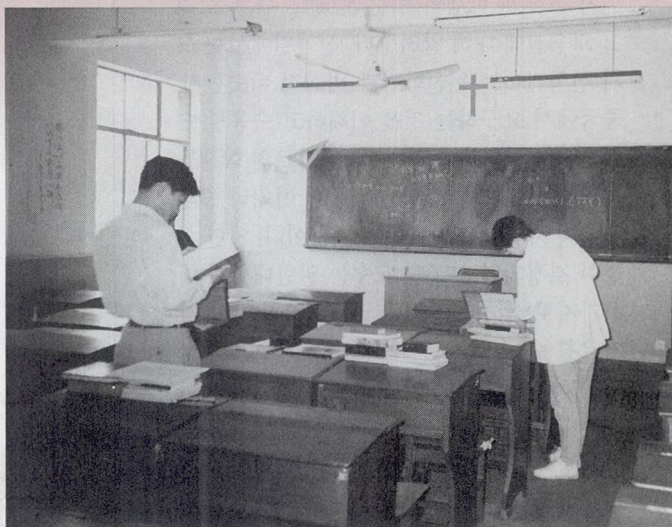
화동신학원의 학생 선발 기준 및 학제

화동신학원은 동북지방의 4개 성인 산둥(山東), 저장(浙江), 장시(江西), 푸젠(福建)성과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입학할 수 있는 신학원이다. 시험은 먼저 각 교회에서 고졸 이상의 후보자를 뽑아 성경, 문화, 신앙, 영어 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른다. 시험결과를 각 성(省) 정부에 보고되며 성 정부에서는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속한 교회의 추천서와 건강진단서, 그리고 간증문을 참고로 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장애인도 지원할 수 없다. 남녀 구분 없이 해마다 100여 명 선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화동신학원은 처음에는 3년 과정으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4년제이다. 각 반의 학생수는 대체로 20명 내외이며 3학년에는 편입생도 있다. 편입생은 2년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2~3년 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더 많은 신학공부의 필요를 느껴서 온 경우이다. 남녀 학생의 비율은 50대 50으로 남녀 학생수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참고로 외국 유학생은 입학할 수 없다.

학생들의 생활 및 졸업후 진로

등록금은 학생을 추천한 교회에서 지불한다. 생활비의 경우 1996년까지는 무료였으나 올해부터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만약 생활비 때문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후원을 하고 싶다면, 학교로 후원할 학생의 이름을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학교에서는 책임지고 그 학생에게 후원금을 지급해 준다. 또한 후원을 하고 싶은데, 어느 학생에게 해야 할지 모를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을 추천해 줄 수 있다. 단



지역교회의 추천과 시험을 거쳐 신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
(사진은 화동신학원 교실).

두 경우 모두 학생에게 누가 후원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향 교회로 돌아가 사역해야 한다.

교수진과 신학원의 미래

화동신학원의 교수는 반드시 신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에 있는 과목 중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이 있어야 하며, 신학원 교육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현재 교수진은 대부분 신학원을 졸업한 후 외국에 나가 신학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는 모두 42명이지만 이중 전임교수는 7명뿐이고 나머지는 시간제 교수들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더 많으며, 여러 과목을 겸쳐 강의하는 교수들이 많다.

교수를 선발할 때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떤 과목의 경우 교수가 전혀 없을 경우에 외국에서 교수를 초빙하기도 한다. 외국인 교수를 초빙할 때는

먼저 그에게 학생의 수준과 교실 수준, 그리고 교수진에 대해 알려준다. 신학원에서는 그의 신학관이 화동신학원과 비교적 비슷한지, 중국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그가 가르친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전도할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사역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일단 초빙이 결정되면 외국인 교수는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외전계(外專界)에 신고한 후에야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교수가 중국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역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학생들의 흥미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대한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는 것은 지양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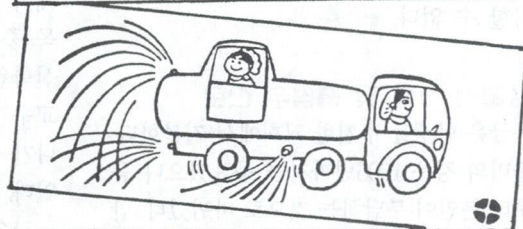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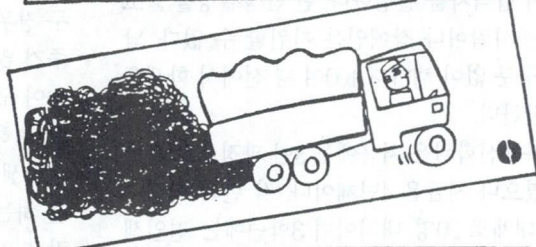
현재 화동신학원은 두 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채는 교실 및 행정실로, 다른 한 채는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건물 모두 매우 협소하고, 시설은 오래되어 불량하다. 그래서 2~3년 내에 현재보다 19배 되는 규모로 푸둥(浦東) 지역에 새 신학원을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비용은 1,700만 원(元, 200만 달러)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상하이 교회와 해외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800여만 원이 모아진 상태이다. 나머지 900만 원이 다 채워지면 곧바로 건축에 들어갈 것이다.

기도제목

1. 학교의 건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되며, 이를 위해 성도들이 헌금과 봉사를 아끼지 않도록.
2. 학교가 지금보다 19배로 커지게 되면 많은 연구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능력있는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 먼저 신학원 내에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외부에서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3. 화동신학원이 새로 건설됨과 동시에 더욱 발전하여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안정숙/ 본지 편집기자

흑과 백



특집 중국 신학원의 오늘

중남신학원 (中南神學院)

이민선

창장(長江)의 교통요충지, 우한(武漢)

긴 역사와 현란한 문화를 가지는 후베이(湖北)성의 성도. 600만을 넘는 인구로, 중국에서도 유수한 상업업 도시다. 옛날부터 구성통구(九省通衢.衢는 사방으로 통하는 길이란 뜻)라고 했는데, 동서로는 상하이와 충칭(重慶)을 장강의 수운으로 연결하며, 남북으로는 장강대교를 통해서 베이징과 광주를 철도로 연결한다. 시내에는 '우한 삼진(三津)'이라 하여 우창(武昌), 한커우(漢口), 한양(漢陽)의 3개 지구로 이뤄진다. 우창은 명대부터 행정부가 설치되어 사적지가 많고, 한커우는 상업과 교통으로 발전하여, 일찍이 외국의 조차지로서 서양풍의 건축이 줄지어 있다. 한양은 우창과 한커우를 잇는 중요한 위치이다. 우한은 교통

의 요충지로 역사적 무대가 되곤 했다. 태평천국군은 1852년에 우창을 공격했고, 1911년 손문의 신해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모택동도 우창에 농민운동 강습소를 개설한 적이 있다.

이러한 후베이성 성시(省市)인 우한에 있는 중남신학원을 방문하여, 중남신학원의 부원장이며 후베이(湖北) 기독교협회의 대표인 왕전런(王振仁) 목사를 만나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았다.

중남신학원의 어제와 오늘

“중남신학원은 4년제로, 1985년에 중남지역 6개 성의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졌습니다.” 왕 목사는, 중남신학원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도서관도 없이, 단지 한 반이 구성 되었을 뿐, 조건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다. 당시 학생 40명에, 교수진은 난징 금릉협화신학원 출신 교수들과 우한시 교회에 있는 몇몇 목사들로, 겨우 한 반을 운영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40명의 학생밖에 모집하지 못했고, 과거 10년 동안 해마다 학생들을 모집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학생 모집 과정의 변화

1993년이 되자 비로소, 2년에 한 번씩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과거 11년 간 중남 6개 성의 각 교회에서 학생들이 입학했는데, 다른 성에서 입학과 관련하여 편지로 신학을 공부하기 원한다는 요청이 많아졌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제부터 해마다 학생들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구이저우(貴州)성 학생들이 보낸 편지에는 ‘신학을 배우고 싶는데 형편이 가난하기 때문에 등록비와 생활비를 대기 힘들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는 데, 대해 전체 교직원들이 토의한 후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도록 동의하였으며 입학을 결정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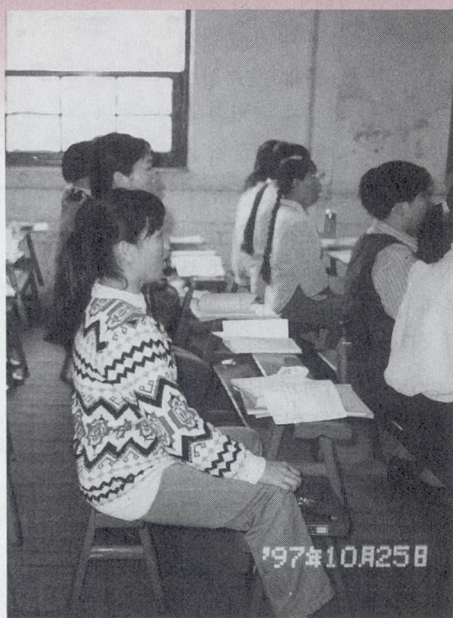
그 결과 지금은 구이저우(貴州), 안후이(安徽), 산시(山西), 장쑤(江蘇), 심지어 동베이(東北)에서 온 학생들도 생겨났다. 구이저우에서 온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중 3명은 소수민족이며, 그 뒤로 산시성 1명, 장쑤성 3명 등 다른 성 출신들도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무척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매년 40명 정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교실이 부족해 모집을 못하다가 작년부터 매년 40명씩 모집하고 있고, 금년에는 50명이 입학했다.

이 학교에 입학하려면, 규정에 따른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먼저 학교에서 학생 모집 요강을 각 성과 현의 기독교협회에 보낸 후, 각 교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그외 몇 가지 조건이 있다면, 각 교회의 추천을 받은 뒤, 성경을 비롯하여 국어, 역사, 영어 등 필기 시험을 거쳐 입학이 결정된다. 현재 중남신학원에는 학생 196명과 11명의 교수가 있다.

신학원 교수의 자격은 중남신학원 또는 다른 신학원을 졸업한 자이다. 상하이시에서 초빙한 강사를 비롯한 외부 강사로는 우한 지역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로 강사 사정으로 2주간의 단기 강좌를 개



중남신학원(무창당 교회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기
중남신학원에서는 음악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발성 연습중인 신학생들).

설하기도 한다.

생활 환경 및 시설

중남신학원 건물은 도로변에 위치한 3층 건물이다. 방문 당시, 마침 학교 건물 바로 옆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헐고, 한창 신축공사 중이었다. 98년 3, 4월 이후에는 6층 건물이 세워질 것이다. 이 건물이 지어질 동안 교수 및 직원 기숙사 일부와 한쪽에 남아 있는 허름한 기숙사를 학생들에게 배정한 상태이다. 다행히 부근에 있는 다른 건물을 임대하여 학생 기숙사와 교실로 사용하여 신학교 수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 건물은 1900년 초 천주교의 한 수도원이었던 것으로 건물 자체가 큰 데다, 주변 부대 시설로 운동장도 있을 뿐 아니라 주변 경관도 운치가 있어 여건이 좋은 편이었다.

또한 신학원 건물 오른쪽에는 작은 서양식 의원을 개설하여, 신학원 교직원과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

홍보 출판 활동

신학원 정문 안쪽 왼편에 작은 서고와 함께 책상과 컴퓨터 한 대가 있는 사무실에서는 「텐루(甘露 The Dew)」라는 종교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 잡지는, 중남신학원을 졸업한 학생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신학 소논문 및 말씀묵상, 기도문, 간증문 그리고 신학원 소식이 짙막하게 실려있다. 이 잡지는 1.50원(元)의 가격에 전국 신학교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도서관 운영

이 곳에 신학원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차 많은 해외 방문자들이 여러 도서들을 기증하였으며, 교직원들이 과거 12년 동안 서점에서 문학과 철학, 역사 방법의 책들을 사 모았다. 그 결과, 6~7천 권으로 조출하나마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직도 그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이것은 전국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인데, 출판 인쇄 및 문서 교류 등의 활동에 제한을 받는 공산체제하에 처한 중국의 기독교 현실을 말해 주는 듯하다.

교과 과정

중남신학원의 교과 이수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신학 교과목과 문화(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양과목) 교과목으로서, 문화 교과목을 개설한 이유는, 입학생들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어떤 학생들은 중학교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 7, 8년이 넘는 학생들도 있어 예전에 배운 것들을 거의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철학, 영어, 심리학 그리고 음악을 배운다.

“신학원 교과 중에 음악은 꼭 필요한 것으로 대부분의 농촌 교회에 성가대가 아직 없는 데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음악교육이 절실한데, 1985년 당

시만 해도 이 곳에는 피아노가 한 대밖에 없었다고 한다. 지금은 외부 지원으로 피아노가 10대로 늘었다. 좁은 칸막이 방으로 나뉜 것이 마치 한국의 피아노 학원이 연상되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 이모 저모로 준비하는 일꾼을 모습을 보니, 중국 교회의 미래가 여간 든든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었다.

수업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신학원 3층에 있는 예배실(주일에는 우창당(武昌堂) 교회로 사용)에서 경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오전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는 영어, 음악, 컴퓨터 수업이 있다. 방과 후 저녁기도 모임은 교사와 학생들이 돌아가며 진행한다. 야간에는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유는, 첫째, 앞으로 교회에 봉사할 때 도움이 되며, 둘째, 신학원이 변화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바쁘게 공부하지 않으면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다는 것. 셋째, 연애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한 것 등이다.

또한 주말에는 학생들이 호북성 주변 농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도 한다. 농촌의 설교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義工, volunteer workers)'로 전문적인 설교법을 훈련받은 학생들이 교회에 기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신학사상

중국의 신학은 보수적인 복음주의로 알려져 있는데 비해, 중남신학교는 '영은파(靈恩派-聖靈派라고도 하며, 성령의 은사를 강조한다.)'이다.

“어떤 학생들은 학술과 학문연구와 신학을 중요시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도 모임이나 관심 그룹들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 상황과 중남신학원의 역할

후베이 지역의 교회 발전은 비교적 자유스럽다. 알다시피 기독교 발전 속도에 있어서도 시보다 농촌이 더 빠르다. 현재 후베이성 전체 기독교 인구는 40만 명 이상이다. 농촌교

회는 대부분 작고 소박한 형태로, 교회 건물만 거의 700군데가 넘는다. 바로 여기 중남신학원에서 배출된 인재들을 통해 호북성의 700개 교회에 한 교회당 한 목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남신학원을 세운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지역 교회가 당면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 ‘천천히(慢慢來)’ 해야 된다고 한다. 호북성 전체 목사 가운데 1/3이 여목사이며, 현재 신학원에도 3명의 여목사가 있다.

왕 목사는, 최근 10년 간 지역교회의 빠른 성장세에 비해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멋진 예배당을 건축할 수는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일러준다.

“가장 좋은 방법은 헌 집을 싸게 사서, 보수를 하거나 그 자리에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학교 측의 노력, 학생들의 필요에 따르는 교직원들의 합리적이고도 융통성있는 모습은,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우려는 그들의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떠오르게 하였다. 지역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장래 일꾼들을 키우려는 신학원의 의지는, 참으로 중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빙산의 일각으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기도 제목

1. 건축 중인 학교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재정이 충분히 공급되고, 잘 지어지도록.
2. 학생들이 잘 모집되고,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이 개발되도록.
3. 계속적으로 중남신학교가 잘 운영되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확충해 나가도록.
4. 중남지역의 농촌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들이 잘 공급되어, 지역 교회가 부흥되도록.

이민선/ 본지 편집기자

특집 중국 신학원의 오늘

강서성경학교 (江西聖經學校)

차이나

장시(江西)성의 떠오르는 신도시 난창(南昌)

조용한 듯 하면서도 역시 어딜가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물결로 인해 활기가 넘쳐나고 있는, 그러나 주목받지 못하는 도시. 한국인 선교사가 한 명도 들어와 있지 않은 탓에 난창시는 아직 우리에게 매우 낯선 도시이다. 그나마 지리적으로 볼 때, 도자기로 유명한 충칭(重慶)과 근접해 있어 가끔씩 도자기를 특산품으로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관광지라곤 신화서점 부근 팔일기일기념관(八一起日記念館)과 시내 한복판에 자리잡은 등왕각(登旺閣) 뿐이었다. 등왕각은 5층 누각인데, 이곳에 사당이 모셔져 있어 이곳 주민들이 대낮에도 우상에게 절하는 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땅값이 비교적 싼 곳에 위치한 장시성 신학의 요람인 강서성경학교를 찾아가는 길목에, 도시 외곽으로 흰히 뚫린 성경학교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는 늦가을 타작마당 삼아 늘어놓은 곡식들로 인해 한가한 시골마을이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다.

장시성의 유일한 신학교

장시성의 신도수는 대략 3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목회자 수는 100여 명밖에 없다. 모두 정부에 정식 등록된 장시성 집회처소는 2,000여 곳 가량이 된다.

중국 동남지역에 있는 농촌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9월에 창립된 강서성 기독교 성경학교(江西省基督教聖經學校)는 장시성 난창시 외곽지역에 띄엄

떠엄 보이는 농가(農家) 사이에 고즈넉한 산 자락을 타고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를 맞아준 분들은 성경학교원장 린펑(林峰) 목사와 사모인 허(賀) 선생, 교무주임 시에주언(謝主恩) 목사, 교사겸 도서관 관장인 뤼(羅) 선생, 교사겸 해외업무 담당 홍슈잉(洪書永) 선생 등이었다.

마침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알고보니 한 개반만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 모집은 장시성 내에서만 모집하는데,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데다 이 강서성경학교가 문을 연지 얼마되지 않아, 입학대상은 기존의 전도자들과 도시에 있는 집회처 지도자들이었다. 한참 수업을 받고 있는 이 학생들은 실제로 목회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처소교회 지도자들이다.

학생 모집 과정

이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장시성 내에 있는 각 교회의 추천이 필수적이고,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친 후 합격시킨다. 성경학교는 1년제로, 매년 20명 정도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당시인 1992년부터 작년 1996년까지는 지도당(志道堂) 삼자교회의 예

배당 한켠에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수업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6기생을 배출했다고 한다. 현재 수업 중인 5기생부터는 30명의 학생을 모집했으며, 올 1997년 6기생은 41명의 학생을 받아들였으므로 지금까지 이 성경 학교를 통해 모두 110명이 배출된 셈이다.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은 41명이다.

학생 연령층은 20세부터 50세까지 매우 격차가 심하다. 이들은 농촌을 비롯하여 각 처소교회에서 지도자로 사역하다, 말씀 연구에 대한 목마름으로 온 이들이다. 청년과 장년이 반반에다 중학교 졸업미만의 학력자가 대부분이다.

신학원 건축과 시급한 문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1996년 9월에 새로 신축하였다. 학교부지와 내부 수리의 비용을 합해 총 인민폐 50만 원(元)이 소요되었다. 이 비용의 상당부분은 전국양회, 전국 신학교육위원회, 난창시의 교회들과 구강시(九江) 교회를 비롯한 시내(市内)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됐다. 그 뿐만 아니라, 해외 교회의 도움도 컸는데, 그 중 위너 버클린(werner berklin)이라는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의 도움



강서성경학교

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국을 주계로 97년 5,6월호 62페이지 참고).

지역 교회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체 12명의 교수진 가운데, 전임은 3명뿐이고 겸임은 9명이다. 교수들은 대부분 근처 교회의 목사나 사역자이기 때문에 1인 다역(多役)을 감당한다. 일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서 모두들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사역자의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촌 교회의 인재부족 현실이 피부에 와 닿는 순간이었다.

실제적인 훈련, 신앙 중심의 생활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므로, 모든 생활이 규칙적이다. 학교의 일정표에 따라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하고 6시부터 7시까지 개인 묵상 시간을 가진 후, 7시부터 8시까지는 아침 기도시간이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있고, 5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자습시간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와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연습 삼아 설교도 한다. 또한 주일 저녁에는 개인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교과 과정을 보면, 신구약 성경 연구와 교양과목이 있다. 성경과목은 창세기, 모세오경, 역사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편, 잠언, 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서신, 요한1, 2, 3서 등이다. 교양 과목은 교회음악, 성가대 합창법, 중국어 작문 등이다. 그래서 수업은 80%가 성경 과목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가 교양과목이다. 특이한 것은 ‘공문(公文) 쓰는 법’을 배운다는 것인데, 이는 졸업 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양회(兩會)에 공문을 띄울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한다.

문서 보급의 열악한 상황

도서관에는 1천 3백여 권의 도서가 있으며, 그중 전국 양회에서 기증 받은 책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국내 여러 지역의 삼자신학교에서 기증받은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학



농촌교회에 지도자가 부족하여 전문 사역자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은 강서성경학교 학생들).

문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서보급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제 그들도 외부에서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었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나마 삼자에서 원하는 내용의 책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삼자교회 방침에 어긋나는 종류의 책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기도 제목

1. 성경학교를 신학원으로 확장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성취되도록.
2. 교수들과 직원들이 성경학교를 다니는 데 편리하도록, 학교 전용 차량이 생기도록.
3. 1인 다역을 맡고 있는 교수들이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함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4. 후진 양성을 위해 더 많은 교수가 확보되도록.

차이나/ 본지편집기자



디아스포라 한국인

복음의 황금어장에 이르는 길목, 상하이

이갈렙

바다로 가는 길, 상하이(上海)!

상하이의 가장 대표적인 강은 황포강이다. 그러나 이 강 of 원래 이름은 신강(申江)이었다. 이 신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상하이는 바로 황해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바다로 가는 길(따오 하이상 취더 루: 到海上

去的路)”라고 하던 말이 지금 이 곳의 지명으로 굳어진 것이다. 상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황포(黃浦)강은 황해에서 곧바로 들어와 상하이로 입경하는 배들과 상하이에서 황해로 나가는 배들로 늘 붐비고 있고, 또한 와이탄(外灘: 황포강변)에 서면 그 배들의 고동소리

를 듣게 된다.

풍수지리적으로 중국의 입에 해당

우리 나라는 지형을 호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중국 지형을 장수 영물인 “잉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하이(上海)는 바로 그 ‘잉어의 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상하이는 양쯔강 곧 장강(長江)의 하류에 위치하며 황하로 유입되는 곳이다. 입이라고 말하는 데는 상하이가 경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상하이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중국의 1800년대 개화가 상하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978년 이후 개방 역시 이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오늘날의 중국 경제 역시 이 곳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로 중국인들의 말대로 입으로서의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인구

상하이의 인구는 공식적으로는 1,300만 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쪽 쓰촨(四川)성의 수도인 청두(成都)로부터 우한(武漢), 허페이(合肥) 안후이성의 수도, 저장(浙江)성 등지에서는 외지인들까지 포함한다면 1,500만에서 1,800만 명까지 보고 있다. 중국인들은 상하이가 베이징(北京)보다 인구가 실제로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상하이의 크기와 힘을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경제적인 중요성

상하이의 경제적인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양쯔강을 중심으로 한 3개의 성(저장성, 장쑤성, 안후이성)에 100만 이상의 도시가 무려 35개나 된다. 그리고 이 도시들은 한결같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이다. 이 곳 사람들은 말하기를 중국 물동량의 60%를 이곳 도시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7월 1일은 중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날이다. 홍콩이 반환되면서 사람들은 입을 모아 홍콩이 중국의 제1의 경제도시라고 하였고, 이에 모든 사람들은 동의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상하이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앞으로 상하이가 홍콩과 같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개발을 시작한 곳은 선전(深圳)이었다. 그 이유는 홍콩을 마주하고 있기에 이 곳의 개발이 곧 중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얻어진 예산을 선전으로, 중앙정부로 투입하여 개혁개방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그의 생애 후기인 1991년에 가서야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미 선전의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나, 인구 등 여건이 미천하여 자신의 생각만큼 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때부터 상하이의 예산을 선전으로도, 중앙정부로도 유출시키지 않고 상하이 자체의 발전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2~3년 동안 상하이시 건물의 20~25%가, 4~5년 이내 30~40%까지 새로 지은 건물로 탈바꿈하였다. 지하철, 고가도로 등 실로 중국의 최고의 도시, 국제적 감각을 지닌 도시로 변모한 것이다. 특히 푸둥 신개발단지는 현재 제2의 홍콩이라고 할 만한 금융단지를 꾸미고 있고, 중국에서 제일 높은 88층짜리(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높다)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이 곳의 이러한 발전은 지도자들의 예상만큼, 아니 그 이상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상징하고 있다.

기후

상하이는 북위 30°에 위치한 도시이다. 여름의 날씨는 열대를 무색케 할 정도로 무덥다. 대부분이 30℃를 넘는다. 게다가 습도는 항상 80~95%를 넘어 에어컨 없이는 지내기가 곤란하다. 봄과 가을은 아주 짧아 ‘좀 더운 듯하다’고 느끼면 어느새 여름이고, ‘좀 쌀쌀하다’고 생각된다면 겨울이다. 겨울날씨는 최하 기온이 일반적으로 0~3℃를 오간다. 그러나 잦은 비에 높은 습도가 추위를 가중하여 뻘

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있는 곳이 상하이다. 게다가 북위 35℃ 미만인 지역은 법적으로 집 안에 난방시설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적으로 볼 때는 좀 불편한 곳이기도 하다.

분위기

사람들의 생각이 개방적이고 이해에 너무 밝아 조금은 두렵기까지 하다. 중국은 GNP의 수준으로 볼 때 아직은 그래도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상하이는 이미 그 경제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들의 사고는 경제적인 사고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느 면으로는 너무 이해타산적이라 무섭기까지 한 곳이다.

상하이는 개방적인 지역인 만큼 공산주의를 지키려는 노력 역시 대단하다. 올 7월, 3명의 사역자가 강제추방을 당하였다. 내가 이곳에 올 때 이 지역에 살던 분들은 몇 번씩이나 조심하라고 강조하였다. 필자가 거류증을 만들기 위해 공안국에 신청을 했더니, 실제로 공안 3명이 나와 심사를 한 후에 거류증을 내주었다. 베이징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물가

상하이는 베이징보다 물가가 20~30%는 더 높은 곳이다. 90년 이전까지는 이 곳 수입의 상당부분이 중앙 정부에 편성되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90년 이후 모든 수입을 상하이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급성장하였고, 이들의 수입과 비례하여 물가는 중국의 어느 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중국의 택시비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되어 있다. 그런데 상하이의 택시비는 중국에서 가장 비싸다. 그 외에 식료품비, 과일, 식당의 음식값 등 전반적으로 베이징보다 비싸다. 한 가지, 주택문제는 다르다. 신축건물의 과다로 일종의 가수요 현상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베이징과 비슷하거나 더 낮다고 생각된다.

교민

한국인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베이징의



상하이 와이탄.

한인의 수는 거주가가 20,000명 유동인구까지 30,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칭다오(靑島)같이 작은 도시에 한인이 7,000~10,000명인데 비해 중국 최고의 경제도시라는 상하이에 한인이 불과 3,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주재원, 상사원, 사업가 등이 2,000~2,500명, 유학생이 500~1,000명으로 추산된다. 영사관에서는 유동인구까지 합해서 3,500명으로 추산한다. 베이징에서는 한 달에 210원(元)이면 그 날짜의 한국 신문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상하이에는 1~2일 정도가 늦고, 신문값도 450원(元)을 주어야 한다. 아직 한인 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의미이다.

선교적 관문으로서의 상하이

선교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선교의 역사를 지닌 도시가 바로 상하이다. 중국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본부가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며, 최초로 중국 내지선교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중국에는 크게 네 군데의 관문이 있다. 한 곳은 따론편(大連), 선양(沈陽)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이고 두 번째는 베이징, 톈진(天津)을 중심으로한 중북부, 세 번째는 광저우(廣州), 선전(深圳)을 중심으로 한 남부이며, 네 번째는 상하이를 중심으로한 동남부이다.

상하이는 양쯔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처음 만나는 큰 도시가 난징(南京)이다. 난징은 삼자본부, 애덕인쇄소, 남경 금릉협화 신학교가 있는 곳이다. 그 위에 허페이(合肥), 우한(武漢-교통의 중심지), 충칭(重慶-올해 직할시가 된 곳, 직할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 300만 명), 그리고 그 위에 청두(成都-쓰촨성의 수도)가 자리잡고 있다. 모두가 선교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도시들이다. 만일 누군가 외국에서 난징이나 청두를 간다면 상하이로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 이러한 면에서 상하이는 그 지역들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인 것이다. 그러나 상하이 주변에는 위의 열거한 도시들 외에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35개 이상이 있다. 선교적인 면에서 그 중요성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동북지역이나 중북부, 남부까지도 어느 정도의 선교권이 형성되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하이는 이러한 중요한 지역임에도 활성화가 조금은 더디다는 것이다.

삼자교회의 신학교 현황

1949년 이전 상하이에선 200여 개의 교회와 50여 개의 선교단체가 자리잡고 있던 선교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오늘날 삼자교회에서 발간한 주소록에는 교회의 주소가 10개 나와 있다. 1949년 8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나 문혁을 거치면서 실제로 문을 닫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지금 교회들의 대부분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회복된 교회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12개의 삼자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중국의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이 열두 개의 교회는 모두 차고 넘친다. 이 곳에서는 ‘한 구(區)에 한 교회’라는 원칙하에 교회가 세워지고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에 이 목회는 깨어져서 한 교회가 분교하여 또 하나의 교회를 같은 구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건축도 거의 자신들의 헌금으로 부지가 구입되고 건축되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상하이에선 중남부의 중요한 신학원이 있

다. 화동신학원이 있다. 이 신학교는 산둥(山東), 저장, 푸젠(福建), 장시(江西)성 등 4개성에서 지원을 한다. 현재 4년제 신학 본과가 운영되며, 46명의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은 약 70명으로 4개반이 운영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화동신학원은 거의 상하이시의 교회들의 헌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들은 이 학교에 대한 자발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야기 중의 하나는 한 교회가 신학생들의 생활비를 위하여 헌금하였는데, 그 금액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교회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것은 지금 상하이의 기독교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으며 자립심 역시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하겠다. 어떤 분은 상하이는 자신들의 힘으로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곳이라고도 말하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한인 시역자

이 곳의 한인 모임은 세 곳이 있다. 두 곳은



‘경령당’ 삼자교회.

개신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천주교회이다. 개신교의 모임 중 한 곳은 4년 여의 역사를 지니고 있어 약 300여 명의 한인들이 상하이의 서남쪽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곳에 뜻을 가지고 옮겨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사역자에 의해 유학생을 중심으로 그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천주교 모임은 얼마 전까지 상하이의 중국 천주교회에서 미사를 드리다가, 장소를 얻어 미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작은 모임으로 몇 곳에서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 헤아릴 수 있는 사역자는 불과 6~7명이다. 짐작컨대 그 외에는 선교단체의 소속된 분들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사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두 달에 한두 명씩 추방하는 등의 자국이 있고 보니 더욱 움추러드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곳의 한인 사역자들의 거주 문제는 베이징이나 다른 곳에 비해 조금은 더 어렵다. 유학생을 비롯하여 전체 한인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 합법 거주지역의 주거비는 비싸고 중국인들의 집을 얻기에는 공안국의 단속이 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인의 집을 세 얻어 살아가는 이들도 간혹 있는데, 집값은 월세로 2,000~2,500원(45㎡~55㎡) 정도이다.

기도제목

1. 중남부를 향한 선교가 더욱 넓어지도록.-

한국 사역자들의 사역지 분포를 본다면 베이징 이북에 비해 남쪽의 사역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사역자의 숫자와 활동 영역 역시 그러하다. 이제는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가 베이징 이남의 선교로 확산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사역자들이 상하이 이남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100만 이상 되는 도시 35개에 채워져야 할 것이다.

2. 다른 지역에 비해 상업적 분위기가 강하는데, 이 가운데 놀리지 않는 사역이 펼쳐지도록.

중국에 한국 유학생 1만2천여 명

한국 학생,
일본 이어 제2위

중국에 유학 중인 외국 학생은 작년말 현재 41,211명에 달한다고 인민일보 해외판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세계 152개국으로부터 중국의 289개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유학생의 숫자는 95년에 비해 11.82%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학생을 출신지별로 보면 아시아 국가 유학생이 32,017명으로 전체의 77.69%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유럽의 4,330명(10.51%), 미주 및 대양주의 3,754명(9.11%), 아프리카의 1,110명(2.69%) 순이다.

국가별 통계를 보면 일본과 한국 유학생이 가장 많아 각각 14,856명과 12,394명씩이다. 랭킹 5위의 미국은 2,573명, 6위의 프랑스는 827명, 7위의 인도네시아는 744명이다.

한편 이들 유학생 가운데 96년과 97년에 걸쳐 중국정부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1,949명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베이징 저널」 제 25호

이갑렬/ 중국 사역자

방문취재

애덕기금회 (愛德基金會), 이렇게 일합니다

애덕기금회는 중국 기독교를 중국의 토양에 잘 뿌리내리게 하고, 중국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만든 독립적인 사회지원 단체로, 기독교의 신앙과 사랑을 비기독교인과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에 본부를, 홍콩에 해외 연락사무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난징 본부에는 총무인 한원자오(韓文藻) 회장, 부총무인 덩옌런(丁言仁)을 비롯하여 30명의 간사들이 일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10월 22일 난징에 위치한 애덕기금회 본부를 방문하였다. 다음은 애덕기금회의 행정담당인 옌자바오(嚴家保) 간사와의 대담이다. [편집자주]

애덕기금회(Amity Foundation-이하 A.F) 가 처음 설립된 배경과 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애덕기금회가 설립된 1985년은 중국이 막 개혁개방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 때 정부에서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를 제창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 교회에 의해 발기되었습니다. 당시 중국기독교협회 회장이었던 덩광선(丁光訓)과 현재 회장인 한원자오가 중심이 되었지요.

A.F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며, 비교회 기구입니다. 때문에 애덕기금회를 통해 모금된 사업비는 교회나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중국의 사회복지를 위해 쓰여집니다. A.F의 목표는 3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사회발전과 해외 개방에 공헌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독교인의 사회봉사과 그 공헌을 중국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과 사람의 교류로 자원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A.F와 중국 교회,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 기독교에 두 팔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 전파와 목양의 일을 담당하는 삼자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애덕기금회입니다. 즉 삼자교회와 A.F는 동등한 관계이지만 맡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A.F의 모든 계획은 정부 즉 삼자애국운동 위원회에 통보하고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하는데,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금을 내놓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국민을 관리하는 것 또한 국가의 몫입니다. 우리가 국민을 도우면 정부도 함께 도와야 하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매년 빈곤지역과 빈곤층이 얼마큼 있다는 것을 자료로 발표하면, 우리는 그 자료들을 살핀 후 어느 곳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연구하고 방법을 모색하여 계획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교회에서 추천한 항목들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A.F의 활동범위는 무척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활동을 말씀해주시지요

전체 27개 성시(省市)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데, 크게 볼 때 교육, 의료위생, 사회복지, 농촌개발, 구제, 성경인쇄 등 6개 방면의 활동이 있습니다.

교육방면의 주활동은 해외로부터 어학교사들을 초빙해 중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해마다 70~80명의 기독교인 교사들을 초빙하고 있으며, 1985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단기 합하여 약 1,000여 명의 교사를 초빙했습니다. 장기로 머물 교사들은 대개 2년의 계약을 맺고 오는데, 95%는 영어교사이고 소수가 독일어, 일본어 등 제2외국어를 가르칩니다. 1985년 이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외국인 교사들을 난징, 항저우(杭州), 푸저우(福州), 지난(濟南) 등 대도시의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수준이 대학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이들을 홀대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91년을 기점으로 어학교사들을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의 사범대학에 배치했는데,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별로 없는 데다, 재정이 부족하여 외부에서 교사를 초빙할 능력이 없었던 중소도시의 대학들은 이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교사들은 스스로 자비량하는 동시에 A.F를 통해 약간의 보수를 받으므로, 학교에서는 거주지만 제공하면 됩니다. 교사들 본인도 자신들을 환영하는 중소도시를 원했으며, 중국 학생들과 사귄 기회도 많았기에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교사와 대화를 하면서 어학을 배운 사범대 학생들이 졸업해서 교단에 섰을 때, 외국인에게 직접 배웠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전

체의 어학교육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A.F의 교사들은 학생들과 자유롭게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들의 주임무는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을 통해 학생들은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A.F는 초빙한 교사들을 한데 모아놓고 1개월 동안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 때 중국에서는 전도할 수 없으며, 만약 학생들에게 전도하다가 발각되면 곧바로 출국당한다는 규정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사 프로그램 외에도 A.F는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육묘계획'(育苗計劃·'새싹을 기른다'는 뜻)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후원자들 간에 1 대 1의 결연관계를 맺어주어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대부분 윈난(雲南)이나 꾸이저우(貴州)성 같은 농촌산지의 빈곤층 어린이들입니다. 육묘계획을 통해 우리는 연간 2,000여 명의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인민폐 120원(한화 13,000원) 정도면 1년 간 한 명의 학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A.F의 교사가 되려면

자격/ 대학 이상의 학력, 해당 언어를 모국어 내지 준하는 정도로 구사할 수 있는 자. 교회, 교파, 선교회 등 후원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신청방법/ 소속교회, 교파, 선교회에 지원하거나 또는 애덕기금회 해외연락 사무소로 신청

생활조건/ 1)월급- 인민폐 800원+225US\$. 2) 항공료, 의료보험, 훈련비, 휴가비, 이사비 약간

교과내용/ 1)영어교사- 수년 간 영어를 배운 학생들에게 대화와 작문을 가르침

2)일어, 독일어교사- 기초 과정 사무소로 신청



애덕기금회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행정담당 엔자오바오 간사.

그 다음으로는 **의료, 위생, 보건** 활동입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중국 서부의 6개 성(윈난, 꾸이저우, 쓰촨(四川), 광시(廣西), 칭하이(青海), 간쑤(甘肅))의 절대 빈곤현 322개 현 중에서 15,407개 촌락이 보건진료소나 공인된 의료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작은 보건소를 가진 마을에서조차 의료인들은 거의 훈련되지 않아서 기본적인 진찰 기술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92년도부터 농촌의사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각 성에서 매년 300여 명의 의사들을 훈련시키는데, 200명은 촌의(村醫: 촌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양성하고, 100명은 각 향(鄉)과 현(縣)에서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학지식을 향상시킬 교사로 양성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현재까지 약 7~8천여 명의 의사를 배출했습니다.

총 1년의 훈련과정 중 8개월은 서양의학을, 4개월은 중의학을 배우게 되며, 약초와 침술에 대한 간단한 지식들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들이 농촌에서 가벼운 질병과 상처 등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의료활동과 질병예방에 주력하길 원합니다. 더 먼 지역에

있는 의사들을 위해서는 비디오 교육과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의료지식에 관련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 현직 의사의 교육자료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회를 위해 봉사하길 원하는 중국 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습니까?

사회복지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장애인, 노인, 고아 등입니다. 현재 장쑤(江蘇)성에 있는 13개의 아동복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할머니 프로젝트(Grandmother Project)’는 지방에 있는 교회의 나이 많은 전직 의사나 간호사들을 팀으로 구성, 매일 아침 아동복지원에 가서 밥을 먹여주거나 목욕을 시켜주는 등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AF는 노인복지에 관련하여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호스피스란 중국에서 매우 낮은 의미이며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일에 관련된 책임자들을 홍콩, 일본 등지로 보내 그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조사하도록 했으며, 현재 난징에서 미국의 자금을 이용해 이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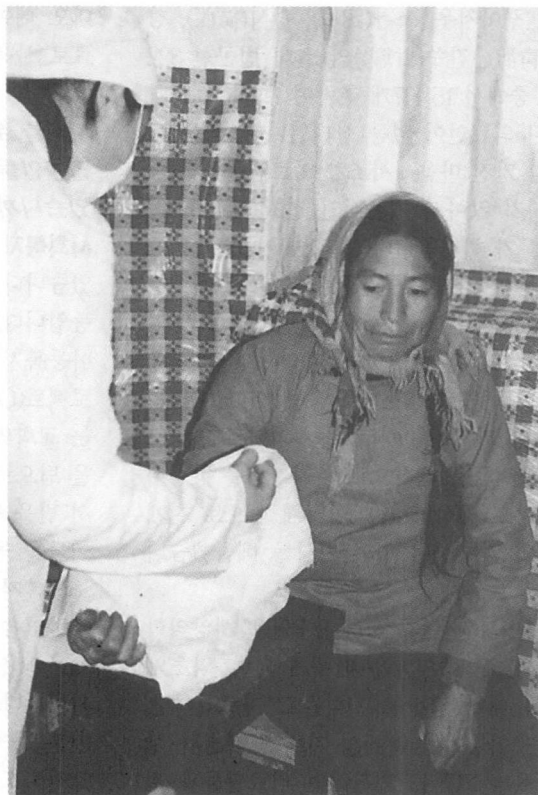
또한 장애인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촌 가정에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AF는 경제적으로 극도로 궁핍한 80가정을 찾아 “희망의 지대(希望支架)”라 불리는 재활기구를 보내 주고, 농촌에 사는 맹인과 농아들을 위해 가정방문 교육을 하거나, 종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교재와 서적, 의료기구 등을 보조하고 직업훈련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윈난, 꾸이저우, 산둥, 허난, 광시 등지는 토지가 거의 없고 산이나 돌뿐입니다. AF는 밭을 갈고 산을 깎는 등 농민들의 경지개간 작업을 돕는 **농촌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개간 기구와 폭약 등을 구입하여 지원함으로써 농민 스스로 토지를 개간토록 하고, 저수지나 펌프 등 관개시설 마련에 도움을 줍니다. 만약 농민들에게 돈을 쥐양식을 구하게 했다면 벌써 바닥이 나 또 많은 자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도로신설, 가축사육, 식물재배, 농업과학기술훈련소 설립, 부녀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직접 수혜를 받은 현지에 가서 실제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물을 파주고 그들은 마시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주되, 그 돈으로 우물을 파는 기계와 펌프를 구입하여 현지인들 스스로 우물을 파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우물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AF는 매년 200여 개의 구체적인 **구제사업** 계획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11호 태풍으로 인한 윈난의 지진사태 때 단시간 내에 인민폐 40만 원을 원조했습니다. 95년도에도 장시(江西)성 및 후난성의 수재민에게 300만 원의 성금을 보내 비상식품을 공급하고, 초등학교와 교회, 응급진료소를 재건했으며, 수리(水利)공정을 담당했습니다.

성경출판 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아무래도 해외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성경인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애덕인쇄유한공사**는 애덕기금회와 연합성경공회가 합자한 기업으로, AF와는 동등한 위치이며, 재정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87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1600만 부의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실제 생산능력은 연간 400만~500만 권이지만, 국무원 종교국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므로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기독교인이 약 1,200만 명 정도인데, 이미 발행된 1,600만 부의 성경과 인쇄소가 생기기 전, 국가 인쇄소에서 찍어낸 400만 부, 밀반입된 성경까지 합치면 성경 공급은 이미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연구 대상으로 성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신도들도 있습니다.



애덕기금회는 농촌에서 가벼운 질병과 상처 등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의료활동과 질병예방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성경의 출판 배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우선 성 기독교협회가 수요와 지불 능력에 맞게 전국 기독교협회(성경발행처는 난징 사무실에 있고 여기에서 성경출판 배포에 관한 모든 작업을 하고 있음)에 주문을 하면, 전국기독교협회는 각 성의 주문량을 수합하여 역시 수용와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정합니다. 그런 다음 국무원 종교국에 출판 허가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인쇄공장에 최종 주문을 하게 되지요. 인쇄된 성경은 다시 전국 기독교협회(성경발행처)를 거쳐 전국 45개소의 성경발행처로 배포가 되고, 그 다음 각 교회로 다시 배포됩니다.

홍콩 해외연락사무소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해외연락사무소에는 현재 미국인 3명, 영국인 1명, 독일인 1명, 한국인 1명, 필리핀인 1명, 홍콩인 1명 등 세계 6개국에서 온 8명의 간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국 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로서, 각자의 교회들이 이들의 소요 비용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며 기독교인으로서 본인이 원하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돕기를 원하면 가능합니다.

해외연락사무소에서는 세계 각 교회나 단체들에게 중국의 사회복지 상황과 AF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데, Amity News Letter(애덕기금회의 활동 소개)와 Amity News Service(중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 소개) 두 종류의 영문판 홍보지를 통해 해외로부터 기금을 모금합니다. 사회복지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중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는 「중국교회」라는 한국어판 잡지를 통해 중국 교회 상황을 한국 교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원하는 애덕기금회 사업도 있습니까?

AF는 한국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해외연락사무소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AF의 활동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한국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교회나 신학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지원은 모두 AF를 경유하여 중국기독교협회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한국 교회는 사회사업보다는 교회나 신학교 지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중국의 사회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원한 애덕기금회 관련 사업

- ◆ KNCC- 조선어 찬송가 및 원난성 4개 소수민족 찬송가 출판지원(96-97), 동북신학교 건축(96년) 등
 - ◆ 기독교대한감리회 중국선교회- 함주신학교, 제남신학교, 동북신학교 도서기금 지원
 - ◆ 기독교대한감리회 대륙선교회- 동북신학교 졸업생에게 주석 1질씩 지원
 - ◆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심양 서탑교회 컴퓨터학원 설립 지원
 - ◆ 대한성서공회- 성경출판 위한 종이 공급(매년), 조선어 성경출판을 위한 인쇄필름 및 종이 지원(96년)
 - ◆ 한아선교봉사회- 원난성 쓰마오현 농촌의사후련 프로그램 지원(95년)
 - ◆ <중국교회(한글판 소식지)> 후원회- 광시성에 육묘계획 500명 지원
- 난징 본부: 中國 南京 漢口路 71號(남경대학 정문 옆)
Tel: 86-25-3314-118, 3317-093, 3317-034
Fax: 86-25-6631-701
E-mail: AFN71 @Public1.ptt. js.cn
홍콩 해외연락사무소: 香港 九龍 佐敦道 4號
Tel: 852-2723-8011, Fax: 852-2366-2769
E-mail: amityhk@hk.super.net

번역/ 신호정 · 자원봉사자
정리/ 권수영 · 본지 편집기자

중국과 홍콩의 기독교 사역 교류

중국대륙과 홍콩 기독교 사역 교류의 대기후

1997년 7월 1일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날이었다. 이 날 홍콩에서는 “은 세상은 귀환을 기쁘게 맞이한다.”는 문구를 내걸었다. 홍콩은 중국의 한 부분이 되면서 미래 중국 사회의 각 계층에 더 긴밀한 접촉을 할 것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죽은 후 장쩌민(江澤民) 등은 계속적인 개방정책을 고수하며 경제를 더 자유롭게 하고 정치를 더욱 다원화하자고 명시했다. 해외 국가와 중국의 경제관계는 더욱 밀접해가고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은 중-홍 기독교 사역의 교류에 적극적인 작용을 했다.

중-홍 기독교 사역의 교류의 다양한 측면 정부 고위층의 교류

홍콩기독교계와 중국 정부는 최근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 통전부와 종교사무국과도 이미 여러 차례 접촉을 했다. 이것은 쌍방의 미래 사역의 위치와 부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종교단체 간의 교류

중국기독교협회(C.C.C)와 홍콩기독교 단체의 접촉을 통하여 쌍방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 매우 많은 합작과 교류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면 홍콩의 출판사는 출판합작 계획을, 신학 교육계에서는 신학원을 발전시켜 신학생을

교환하는 계획을, 성악계에서는 성악하는 동역자의 양육계획 등을 가지고 있다.

학술 단체의 교류

중국의 부분적인 대학의 종교학과 철학과,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은 홍콩 신학원의 교수와 학술연구나 강좌의 빈번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 서비스의 교류

중국 정부의 사회 서비스 단위의 예를 들면,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마음과 몸이 회복되도록 돕는 일, 마약을 끊게 하는 일, 죄수 석방 노력 등에 있어 의료, 교육계 등이 홍콩기독교의 유관 사회 단체와 교류하고 서로 방문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의 교류

중국의 농업, 축산업, 수리 등의 단위에서도 역시 홍콩기독교 단체로나 개별적으로 신도를 초청해 기술교류와 양육을 하고 있다. 홍콩 크리스천 중 전문기술자는 종종 관련된 정부 부문의 합당한 통로를 찾고 나아가 그 전문업종과 관련된 교류활동을 펼친다.

교회의 교류

최근 중국과 홍콩 교회의 교류활동은 더욱 활발하다. 같은 종파나 역사적으로 관계가 있었

던 당회는, 중·홍 교회와 교류와 협작을 더욱 더 촉진하고 있다. 더욱이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에 홍콩 교회는 경비와 자원을 제공해, 중국 교회가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중·홍 교회 간의 교류나 합작은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중국 교회를 탐방하고 신앙서적과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훈련하는 일, 심지어 중국 교회당의 단체, 성가대, 주일학교를 양성하는 일에 참여한다.

비공개적 교류

이상 언급했던 것은 공개적인 교류활동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비공개적인 측면도 있다. 중·홍교회 역시 밀접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중·홍 기독교 사역 교류의 조화와 개혁

중국의 공개적인 통로에서 보자면 중국의 사역 교류 방식은 조화롭다고 할 수 있다. 홍콩은 인재와 경비를 제공하여 현지에 그와 관련된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출판사를 합작할때 홍콩은 적절한 서적의 종류를 제공하고, 중국에서는 출판하고 자금을 제공하여 국내 성경의 필요에 맞게 출판한다. 신학교육상에 있어서도 홍콩의 강사가 중국에 가서 관련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홍기독교 사역 교류를 더욱 개척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전의 중국 교회 사역 범위와의 교류활동, 예를 들면 청소년 사역, 교육, 경제발전, 사회서비스의 개혁이 늘고 있다. 홍콩의 기독교 조직과도 교제가 있다. 홍콩의 기독교 사회 서비스, 복지 등의 조직이 역시 중국의 관련 기관과 일치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사역의 성공 원인

국정(國情)

홍콩은 중국의 국정과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공산당 일당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측면으로는 관대



홍콩의 한 학생이 귀환을 경축하는 내용의 연극을 하고 있다.

한 종교환경을 기대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5, 60년대식의 종교적 제한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21세기로 향해가는 마당에 중국을 50년대의 중국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당시에는 정치운동이 계속되었으며, 종교적 박해도 심해 사람의 의견은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개방정책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 흐름은 더욱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민심(民心)

민심은 중국인들의 생활문화를 말한다. 중국인의 의사 표현 방법은 비교적 간접적이고 함축적이다. 그들과 교류할 때는 말 속에 숨겨진 뜻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주의하여야 한다. 여러 해 동안 경제적 억압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분출하다 보니, 중국에서 적지않은 비리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민심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우정(友情)

많은 중·홍 기독교 교류사역은 여전히 쌍방의 대표를 통하여 장시간의 교류를 통해 쌓인 우정의 기초 위에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만약 쌍방의 신뢰가 없다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쌍방의 신뢰를 얻어야만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는 오랜 시간을 거친 후에야 확립될 수 있다.

인정(人情)

이것은 중국인의 융통성을 가리킨다. 상대방의 감정과 중국 교회의 필요를 고려하여, 자기의 계획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중국인의 전통적 예절풍속을 존중해 주는 일이다. 때로는 동역자가 가끔 홍콩의 동역자에게 적으나마 그 지방의 특산물물을 기쁘게 보내는 등, 상대방의 가정에 관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사역상의 교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상징과 성의 표시는 감정을 촉진하는 좋은 전략이다.

진정(眞情)

홍콩 동역자는 중·홍기독교사역을 교류할 때 이성적 합치점을 찾을 때도 있으나 종종 주관적인 판단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므로 양자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러한 사역을 할 때에는 진실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자면 상대방을 도외시한채, 자기만의 도덕적 지조를 지키기 위한 명예나 신념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다.

주정(主情)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중국의 추수밭을 바라보고, 대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자기의 숭고한 임무를 인정하고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물러서지 않고, 실패했을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주의 뜻에 발맞추어 적당한 시간과 시기를 잡아 사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종합하면 중·홍 기독교 사역교류의 성공요소는 이상의 여섯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국의 추수밭은 넓고 추수할 곡식도 많지만 일꾼이 적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중·홍 기독교 사역의 필요성

개방정책 시대에 중·홍 기독교 사역의 교류는 필수적이다. 97년 반환 이후 600만 홍콩인의 창업정신, 홍콩의 국제 금융 및 상업지위, 교육, 문예, 학술 등 다방면의 국제적 관계와 천여억 원의 외환보유고는 중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교회가 어찌 사회와 무관할 수 있겠는가?



홍콩의 한 교회의 모습.

홍콩은 「일국양제」 하에 중국의 강력한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그 밖에 최근 중국은 홍콩이민문제 등 홍콩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에 반환된 후 내지 동포와의 하나가 된 관계는 대세의 흐름이다. 중·홍 양쪽의 동포 관계는 골육의 정이 있으므로, 중국 동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의 책임은 막을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사명으로 인해, 홍콩 교회는 중국 교회의 복음사역의 요구에 직면하였다. 중국은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이다. 게다가 홍콩은 중국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97년에 중국에 귀속됨으로써, 전세계의 가장 우선적인 선교현장으로 대두되었다. 중·홍 기독교사역의 교류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홍콩과의 교류를 원

하고 있다. 우리가 어찌 이러한 시대의 기회를 무시할 것인가?

홍콩 교회와 중국 교회가 사역을 교류할 때의 태도

홍콩 교회는 정화되어야 한다.

홍콩 교회가 더욱 정화되어 영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런 후, 성령의 능력으로 중국 교회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교류는 여러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역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50년대의 역사로 중국의 종교환경을 볼 수 없다. 미래 교회 발전의 공간을 제한하면 안 된다. 미래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이므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잊지 말고 역사 속에서도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결과 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국 교회의 성장은 단지 표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50~60년대에는 종교적 제한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성도들이 가정교회에 참석하였다. 8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기독교 신자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공개적인 교회에 참석하였다. 그러므로 80년대에 신도가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홍콩은 중국 기독교계에 내재해 있는 원인과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관민(官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당국이 매우 많은 공개활동을 언론에 발표했다 하더라도, 민간의 의견을 포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민감한 감각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정부와 민중의 확실한 의견을 파악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앙의 종교정책과 지방의 종교정책의 실행에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방의 종교정책과 실행 상황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사

역을 전개시켜 나갈 수 있다. 또한 더욱 많은 교류의 공간을 개척할 수 있다.

상층과 기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상층 지도부와 하층 지도부 역시 서로 다른 배경과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교류 과정에서 지도자층과 기층인원의 필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베꾸는 것과 받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홍콩 동역자는 언제나 '베꾸는 자'로 중국 동역자는 언제나 '받는 자'의 신분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다. 홍콩 교회는 중국 교회에 자원을 제공하고, 중국 교회는 많은 영적 경험을 홍콩 교회에 제공하여, 양자가 동시에 베꾸는 자와 주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중·홍 기독교 사역 교류의 아름다운 효과
중국 교회의 성장에는 독특성이 있다. 해외 교회만큼은 못 돼도, 좋은 모델이나 전략을 세워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훌륭한 목사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 중국 교회는 고난 가운데 성장하였기에, 이러한 경험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 교회가 성장한 것은 생명력 있는 지도자가 치뤄낸 회생에 대한 적지 않은 대가인 것이다. 이러한 인력 동원이 전중국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홍콩은 국제적으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홍 교회 교류는 중·홍 두 나라만의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홍콩기독교는 중국 교회가 해외의 중국인과 비중국인 교회를 포함하여 더욱 대외교류의 공간을 넓히는 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교회는 해외교회와 경험을 나눌 뿐 아니라, 비중국인 교회의 경험과 자원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출처/ 《守望中華》 97. 7/8월호

이 글은 국제 복음증주협회에서 오랫동안 중국 복음사역을 한 쉬에공치(薛孔奇) 회장이 중국과 홍콩의 기독교 사역의 경험을 실은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번역/ 김은희 · 본지 편집기자

선교의 사각지대를 주시하자

-중국 도시의 1억 유동인구

한수아

농민공 청년 정씨의 이야기

올해 22세의 청년 정씨는 허난(河南)성 난양(南陽)지구 출신이다. 그는 지금 베이징(北京)에 있는 한 건축공사장에서 목공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초중(初中: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외지에 나와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의 집은 식구가 다섯이지만 농사일을 두세 달 하고 나면 더이상 일거리가 없어서 놀아야 했다. 그는 외지에 나가서 일하는 마을사람들이 전해준 소식과 소개를 통해 밖에 나가 일할 결심을 하였다. 대학에 진학할 희망이 없는 이상 공부를 지속한다는 것은 그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게다가 초중을 다니다 말고 외지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이미 흔히 있는 일이 되었다.

그가 베이징에서 일한 지는 삼 년째지만, 그 중간에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에 있는 한 완공공장에서 1년 간 일을 하기도 하였다. 베이징에 와서는 처음에 친구의 소개로 제지 공장에서 일했지만, 잠시 일을 해 보고는 힘이 들어서 같이 온 동료들과 함께 그 공장에서 나왔다. 일을 찾아 떠돌아 다니던 중 지금



출신의 건축민공대를 만나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지만 이제 간단한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

그가 참여하고 있는 공사는 이제 한 달 후면 준공이 된다. 그 때까지 그가 속한 건축민공대가 다른 곳에서 공사일을 얻어내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아마 곧 겨울이 닥쳐서 건축일을 계속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아 2년 후에는 결혼할 생각이지만, 장래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유동인구의 등장

사회주의 중국에서 정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다.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 일이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촌 청년의 도시취업은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농업부 자료에 의하면 쓰촨(四川), 안후이(安徽), 허난, 후베이, 장시(江西), 후난(湖南) 등 농촌 인구의 이동이 제일 많은 6개성의 1982년 외출(外出) 노동자는 100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93년에 이르러서는 이 6개성의 외출 노동력이 2,3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 역사상 농촌 인구의 도시이주는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다. 과거 전통적인 중국사회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를 전전하는 사람들을 ‘유민(游民)’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보통 전란과 기근을 피해서 온 사람이었다. 이 중 일부는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규모나 사회적인 의미로 보아 요즘의 현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 개혁개방에 따라 등장한 도시로의 새로운 이주민, 우리는 그들을 유동인구라고 부른다.

유동인구, 그 명칭의 의미는?

‘유동’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들은 어디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고향 농촌과 취업지 도시간을 왔다갔다 하거나, 여러 도시를 전전하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못 된다. 상당수의 유동인구가 한 도시 내에서 수년 혹은 심지어 십 년 이상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유동인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지닌 ‘유동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독특한 이주제도에 근거하고 있다.

호구(戶口)제도라고 불리는 중국의 엄격한 호적제도는, 인구를 도시호구 소지자와 농촌 호구소지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출

생한 인구는 마음대로 공식적인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나라처럼 마음대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도시호구를 취득하지 않고 도시로 들어온 인구들은 정식 도시인구로 취급받지 못하며, 임시적인 거주 허가를 받고 거주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찬(Chan) 교수는 이들이 도시에서 지내는 사회적 지위는 마치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농촌인구가 도시에서 임시 거주 허가를 받아 거주하는 제도를 ‘국내여권 제도(domestic passport system)’라고 불렀다. 도시 정부나 정식 주민에게 이들은 같은 도시주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방인과 비슷하다. 그들에게 정식 도시주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교육, 의료서비스나 참정권 등의 공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이들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하다. 유동인구 외에도 외지인, 외래인구, 외래노동력, 잠주(暫住)인구, 거주(寄住)인구, 단기천이(遷移)인구, 맹류(盲流)인구, 민공, 심지어 후조(候鳥-철새)인구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유동인구라는 말은 보다 인구학적인 표현이며, 일반인들은 주로 외지인이나 민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을 지칭한다.

유동인구의 규모

’88~’89년 11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건설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도시인구 중 유동인구의 비율이 23.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하이(上海)에서 실시한 93년 표본조사에 따르면, 당시 약 900만 명의 시구(市區) 인구를 지닌 상하이에 331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으며, 94년 베이징의 표본조사는 720만 가량의 시구 정식인구에 대해서 329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유동인구의 규모는 1억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정협(全國政協) 상임위원인 메이상밍(梅尙明)은 97년 현재 유동인구가 이미 1억2천만으로, 전체인구의 10%를 넘



춘절이 지나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중국 젊은이들.

어섰다고 발표하였다. 중국과학원의 국정분석 소조는 2000년에는 약 3억 명의 농촌인구가 농업 외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농촌을 떠나 도시에 나가 일자리를 찾을 경우 도시 내 유동인구의 숫자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유동과 질서: 인구유동의 미(迷)

이들은 유동인구(floating population)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장사의 기회를 얻기 위해 전국각지를 '떠돌아다닌다' 있다. 어떤 공식적인 기관이 그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일자리를 알선해주지 않으며, 그들은 사적인 정보나 취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노동력 시장에 진입한다. 이러한 점은 도시 내에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안정적이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그들의 유동성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그들은 단기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정보에 쉽게 현혹되어 그 곳으로의 이동을 결심하게 된다.

이처럼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전달된 취업정보가 순식간에 사람들을 동원해, 89년 춘절(春節: 음력 설)때만 해도, 2주 사이에 광둥성에 250만의 인구가 몰려들었다. 그리고 93

년 1월 31일에서 2월 1일, 2일 사이에 무려 1백만의 인구가 상하이에 유입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혼란으로 비추어질 만큼 사회각계각층에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유동인구문제를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게 만들었다. 이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유동인구 문제의 절박성을 인식시켜준 계기가 되어, 그 후 정부와 학계에서 유동인구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유동인구는 일자리가 없어서 역에서 자리를 펴고 잠을 자는 사람들로 대표되는 '무작정 상경 족(族)'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기에 앞서 대부분 일자리를 소개받아 구체적인 목적지를 향해 나선다. 역에서 자리를 잡고 자는 사람은 대부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고향이나 다른 직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노숙으로 여관비를 줄이려고 하는 전략적 경제행위자였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존재는 이들이 철도운송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춘절에 가장 부각되는데, 춘절은 이들이 1년 간의 외지노동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대체로 춘절은 이들이 오랫동안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시간으로서의 문화적인 의미 외에도,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마을 사람, 친

척끼리 모여 취업정보를 교환하며 향후 일년간의 취업 혹은 유동대책(?)을 세우는 시간으로서의 경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동인구, 과연 사회문제인가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범죄문제 때문에 유동인구의 유입은 시급히 억제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어느 거리에서 가족계획 선전용으로 세워 놓은 한 대형간판은, 그림은 그대로 둔 채 구조만 변경하여 인구유동 관리용 간판으로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그것은 일부 정부부문이 유동인구 현상을 인구증가와 비슷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시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유동인구 현상이 어떤 사회문제라기보다는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또한 전통적인 농업위주의 사회에서 근대적인 산업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변화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이른바 ‘중국적 특색을 지닌 도시화 현상’으로 간주해야 하며, 따라서 유동인구의 증가 자체를 문제시하기 보다는 그 현상이 수반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유동인구가 농업인구의 비농업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생긴 것으로서 결국에는 도시인으로 전환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유동인구는 현 중국 사회의 과도기적인 제도적 경제적 상황을 그들의 모순적인 지위 속에서 담당해내는 일종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을 지칭하는 민공, 혹은 농민공이란 말은 참 모순적이다. 그말은 그들의 직업은 공인(工人) 즉, 비농업 노동자이면서도 신분은 여전히 농민이라는 말이다. 그들은 농민의 신분을 가지고 도시에서 살며 도시적인 직업에 종사한다. 그들은 도시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있으면서도 농민신분을 유지함으로써 도시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들이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 이러한 모순적인 지위를 유지할지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한 세대 내에 정식 도시주민으로서의 신분을 얻을지, 아니면 대를 이어 도시와 농촌 사이를 끊임없이 유동하는 세습적인 농민공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 정부는 호구제도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담이 적은 소도시부터 농민공의 신분전환을 허용해주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사후승인의 성격이 크며 보다 본격적인, 특히 대도시에서의 개혁은 상당히 지체되는 일이 될 것이다.

유동인구는 도시빈민인가?

그들의 직업은 일반적으로 도시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들고 지저분한 것인데다가, 도시내 그들의 생활도 비교적 단순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시빈민의 범주로 분류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들은 도시내 하부계층을 이루고 있다. 도시내 하부 노동시장과 소규모 사영경제가 그들을 위해 취업공간을 제공한다. 이들은 도시 사영경제부문이나 국영 및 집체경제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인구를 도시빈민과 동일시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시각에 의존하는 것이다. 유동인구는 이렇게 비교적 제한된 취업공간 내에서일지라도,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자본, 기술, 그리고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에서 지니고 있는 신분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들 내부에는 다양한 내부계층 혹은 직업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기술과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은 도시내에서 자영업자와 소규모 생산가공업자로 일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로 단순 노동자나 서비스업 종사자 혹은 노점상으로 일하고 있다.

그들의 직업은 상당히 다양하며 개체호(個體戶) 혹은 사영 기업주로 성공한 사례도 상당히 많다. 그들의 평균적인 소득을 보더라도 상당수의 농민공의 소득이 도시 일반직공의 소득보다 많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농촌에 집

과 토지가 있다. 한편 도시 내에서 그들의 초라한 생활방식도 사실은 지출은 최소화하고 소득을 늘리려는 방법이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작은 방에서 고생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며, 농촌에 도시민보다 오히려 넓은 집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현재 호구제도는 그들로 하여금 유동하게 함으로써 도시 내에 빈민으로 눌러 앉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유동인구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대도시 내에서 불법으로 땅을 점거하여 집을 짓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제3세계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빈민촌 형성은 아직 중국의 도시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인민대학의 리창(李强) 교수는 빈민촌의 형성은 하나의 예측에 불과한 것이고 현재로는 오히려 신식 주택가가 들어선 신부유촌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의 도시화와 선교적 맹점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변화 중의 하나는 도시 중심의 사회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49년 사회주의 국가 수립 이후 78년 개혁개방이 실시될 때까지 약 30년 간 17%의 도시화율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지난 20년 간 중국의 도시화율은 29%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도시에 있는 유동인구를 감안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을 현재 1억 명으로 추산해서 도시인구로 간주할 때, 중국의 도시화율은 96년 현재 29%에서 38%로 증가하게 된다. 그들이 도시내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중을 보면 도시인구의 약 28%, 도시노동인구의 약 절반 가량이라는 엄청난 규모가 된다. 이들은 대부분 중대도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도시화와 유동인구의 증가는 선교계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유동인구에 대한 사역은 지금까지 중국선교의 하나의 결정적인 맹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중국의 대도시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들 유동인구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사실이 이를 대변한다. 필자는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적 노력을 하는 사역자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유동인구에 대한 선교를 도시빈민 선교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개혁기 중국 도시화의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한 매우 제한된 시각으로서, 유동인구의 선교적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유동인구, 도시선교의 기회

지금 중국의 유동인구에 대한 선교는 그 엄청난 인구 규모가 지니는 중요성 외에도 유동인구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중요한 선교적 기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시급하다.

첫째는 접근 가능성의 기회이다. 한 마디로 그들에게는 접근이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정식 도시노동자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 아직도 사회주의



중국의 유동인구에 대한 선교는 시급성을 요하는 우리의 과제이다.

적 통제를 받는 국영부문이나 집체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유동인구는 주로 이른바 체제 외 부문이라고 하는 사유경제 영역에 종사한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경비가 지키고 있는 공장이나 건물의 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단위(單位) 내 아파트의 철제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평방의 열려져 있는 문을 통과해서 쉽게 그들의 가정을 접할 수 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사상을 관리하는 공산당 지부나 공청단(共青團), 공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공식적인 조직체에 속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친척이나 동향(同鄉) 등 사적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을 접촉하는 데 있어서 감시나 통제가 매우 느슨하다.

둘째로 수용성의 기회이다. 그들은 비록 도시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지만 농촌적인 순박함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정식 도시주민들에 비해서 외부인에 대한 경계나 의심의 태도가 적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해준다. 필자는 수많은 민공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대화를 시도해서 거의 거절당해 본 적이 없으며, 대화 중에 그들이 상당히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 한편 그들은 도시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때로는 매우 단조로운 생활에 지쳐 있거나 외로움 속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은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복음이 그들에게 보다 절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선교학자들은 농촌에서 갓 이주해온 사람들이 보다 복음에 수용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그들을 통한 선교의 기회이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망을 이용하여 농촌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농촌선교의 방식은 대부분 기존의 농촌 가정교회를 돕는 것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으로서 교회가 없는 농촌지역

에 개척선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농촌선교를 위해 도시 내 유동인구가 지니고 있는 이중적 신분과 그들의 유동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들은 도시 내에서 살면서도 도시인이 아니고 농촌에 집이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농촌인이 아닌 일종의 '변계인(邊界人)'이다.

그 결과 그들은 도시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농촌에서의 사회관계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유동인구 한 사람은 고향 농촌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과 여전히 매우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그 관계의 망을 이용해서 농촌 깊숙이 있는 고향 사람들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우리는 1억 명의 도시 내 유동인구를 통해 8억 명의 농촌인구를 접촉할 수 있다. 어떤 유동인구가 도시 내에서 일정한 집단을 이루고 있다면 먼저 이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출신지의 광대한 인구를 대상으로 선교를 진행하는 일종의 스프링보드 전략을 가동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유동성이 선교적 유동성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듣고 싶은 정 청년의 이야기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원 뜻은 기회를 사라)”(골 4:5).

중국 도시 내 유동인구의 증가와 연관된 새로운 사회변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교적 기회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지혜롭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외인들(중국의 유동인구)을 향해 나가야 하겠다. 장래가 불투명했던 농민공 정 청년의 이야기는 이제 그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목표가 분명한 미래를 향해 전개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

한수아/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 연구원·본지 편집위원

A 이미 중국어가 준비된 상태에서 중국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니

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 시험과목은 성경, 중국어, 영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선교회에서 발행한 『중국을 주께로』 1996년도 7.8월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 학생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는데 중국 신학교로도 유학을 갈 수 있습니까? 만약 갈 수 없다면 중국어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중국어로 신학을 공부하기 원한다면 대만이나 싱가포르로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는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특별히 중국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만에서는 도생신학교(道生神學敎)와 중화복음신학원(中華福音神學院)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고,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신학원(Singapore Bible College)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는 3년제 MDiv.(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한 후에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과목

Q 서는 현재 간접적으로 중국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중국선교에 비전을 갖고 있지만, 나이가 비교적 많아 현지에서 적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중국어를 배우기에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모회를 하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중국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현재 조금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지에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중국 신학생들을 돕는 사역을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신학생 1명을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간접적으로나마 중국선교
에 주력하고 계신다니 참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중국 교회에는 지도자가 많
이 부족한데, 현지에 계신 선교 사
님들과 연결하여 신학생들의 필 요
를 채우고 그들을 키워주는 선교
방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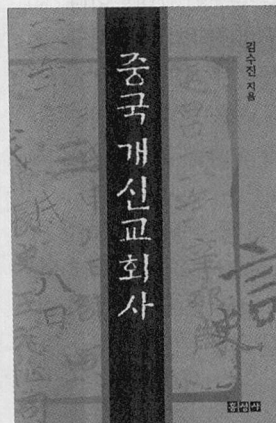
중국인들이 신학교에 진학하려
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교
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시험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진학하고 싶
은 사람은 많은데, 학교에서 선발
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
기중인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참
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
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
니다.

중국 신학교의 1년 학비는 인민
폐 2,000원(한화 약 20만 원)이며,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
만 일반적으로 식비, 교재비, 용돈
등에 사용되는 돈이 1개월에 300
원~400원(한화 약 3만 원~4만 원)
이 필요합니다. 학비는 입학할 때
일시불로 내야 하므로, 먼저 2,000
원을 후원해주고 매월 3~400원을
후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한꺼번
에 6,000여 원(한화 약 60만 원)을
후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지에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었
다니 서로 잘 상의하시면 별 어려
움은 없을 듯 합니다.

석은혜/ 본집 편집장

선교 다이제스트



중국 개신교회사

많은 사람들이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중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시중에 중국 교회 역사에 관한 책이 몇 가지 출판되어 있
기는 하나, 이 책의 저자는 그것으로는 중국 기독교 역사를 알기
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중국 개신교의 역사'를 정리해 출간
하였다.

이 책은 중국선교와 한국 교회의 관계를 다루었다는 점과
중국 기독교 역사 탐방과 간도 지방(지금의 동북지역)을 중심
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들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기술
했다는 점에서 다른 책과 구별된다.

이 책은 4부로 구성 되어 있다.

제1부 중국 개신교의 성장

제2부 중국 교회를 이끌어온 목회자들

제3부 중국선교와 한국 교회

제4부 중국 기독교 역사 탐방과 간도 지방

저자/ 김수진, 발행/ 홍성사, 480쪽, 정가 13,000원

중국 정부의 엔다운동이 가정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과 상관 없이 각 지역의 사역들은 대부분 예전대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형제자매들의 표현대로 “아버지의 집인 교회는 항상 부흥한다”는 말 그대로이다.

중국 내의 교통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우리도 확실히 많이 편해졌다. 초기 교회의 복음 전파도 로마제국의 편리한 교통 시설의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매번 그들을 양육하러 중국에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는 그들의 간증을 통해 격려와 도전을 받는다. 이번도 예외 없이 몇몇 신도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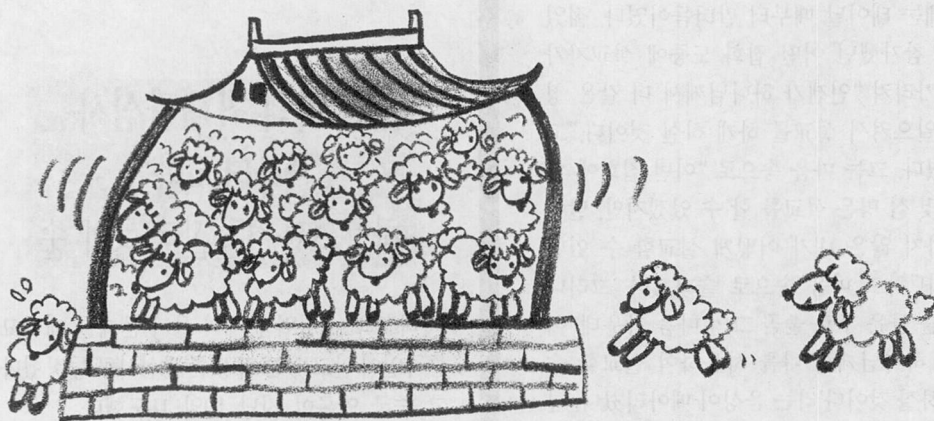
갑절의 축복

이번에 양육사역을 한 처소는 N시 최초의 가정집회처이다. 8년 전 W 형제가 이웃 현에서 와서 황무한 땅을 개간해 예배당을 개척했다. A 자매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그녀의 집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겨우 여섯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 십여 명이 되어, 그 지역 당간부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어느 날은 그가 갑자기 민병들을 데리고 들어와 집회가 열렸던 방을 부수고 수도관과 전기를 끊어 버려 집회를 못하게 했을뿐 아니라, 거주할 수도 없게 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다시 집회에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방을 수리했고, 매우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 집회를 이어갔다. 그 후에 옛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보이지 않았고, 어디에서 왔는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고, 주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를 믿었다. 얼마 안 되어 한 칸의 방으로는 비좁아 방 옆에 천막을 세웠고, 매주일 200여 명이 집회를 하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주위의 집회처도 이미 20여 개로 발전되어 모두 2,000여 명의 신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전기도 물도 공급되지 않는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까운 곳

중국 교회
체험기
(12)

놀라운 부흥의 소식들

메이쥙즈(梅增知)



장승원 그림

에 건물 하나를 샀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신도 수가 두 배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인내한 대가를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이다.

새로운 생명

양육 중인 신도들 중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간증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W 형제가 내게 소개해준 L 형제는 과거에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만 보면 미워해서 시비를 거는 불량배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만큼 겸손하고 온화한 웃음을 띠는 형제로 변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사고를 치고 사람들과 싸우곤 했으며 성장한 후에도 사람을 때려 공안국에 일주일 동안 간헐있기도 했다. 하루종일 밖에서 도박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부지기수였고, 결혼한 지 10일 후에는 아내를 때려 눈을 새파랗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 코까지 부을 만큼 때린 적도 있었다.

1994년 초 그가 다니던 공장에서 상여금을 주었는데, 그는 늘 무단결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돈을 적게 받았다. 게다가 하루저녁

도박판에서 그 돈을 몽땅 다 잃게 되었다. 그는 갑자기 칼을 들고 공장장에게 향하였다. 다행히도 공장장은 좋은 말로 그를 타일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90원을 주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으로 또 담배와 술을 사버렸다. 무일푼이 된 그는 할 수 없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기독교 신자였다. 마침 교회에서 특별집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를 끌고 교회에 갔다. 첫째 날의 집회 후에 가족들이 그에게 예수 믿기를 권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이 강박하여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둘째 날은 참지 못하고 강대상 앞으로 나가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셋째 날 집회 때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가슴 깊이 통회하였다. 넷째 날, 그는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평안함과 기쁨을 얻었다. 집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후 다시 때리지도 않고 도박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공장장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날 강제로 빼앗았던 돈을 돌려주었다. 지금 이 형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항상 “과거의 나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곤 한다.

하나님의 “입”

S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말더듬이었다. 젊었을 때 참가했던 어떤 집회 도중에 설교자가 그를 가리켜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 같은 청년을 일으켜서 설교를 하게 하실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는 마음 속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한 몇 십 명은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말이 정확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단 말인가!”하고 마음 속으로 슬퍼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후로 줄곧 그의 마음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설교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음성이 메아리쳤다. 한번은 무심코 두 개의 설교 테이프를 빌려오게 되었다. 그 설교자의 설교내용과 방법, 어조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한편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교의 은사를 주셨다. 평상시 말을 할 때는 더듬거렸지만, 일단 설교를 하기 위해 서면 그렇게 유창하고 분명한 말이 쏟아져 나올 수가 없었다. 주님을 섬기려는 그의 마음은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지역에까지 가서 주의 사역을 하기를 원했다. 그의 아내는 간염이 매우 심했지만 집에서 집안일을 함으로 그의 든든한 내조자가 되어주었다.

출처/《守望中華》97. 7/8월호, “父家照常興旺”

메이펑즈/ 중국 지도자 양육 훈련 사역자
번역/ 김은희 · 본지 편집기자

중국인의 최대관심사는 ‘자녀교육’

취업·경제·건강진로 등의 순

‘자녀교육’이 실업 문제와 물가 문제를 제치고 중국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로 등장했다고 중국 언론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링단다오공쓰(零點調查公司)가 “당신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으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샤먼(廈門), 충칭(重慶) 등의 5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1,524명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우려의 우선순위를 보면 자녀교육, 취업, 가정경제, 가족건강, 개인장애, 기업발전, 실업, 사회치안, 주택문제 및 물가 상승 등의 순이다.

자녀교육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18%로 다시 그중 3분의 1이 자녀의 학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자녀의 진로, 건강, 비행(非行), 독립심 및 책임감의 결여에도 깊은 우려를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조사를 통해 많은 중국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현상은 중국 도시의 직장이지위나 신분면에서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조사자들은 피력했다.

「베이징저널」 제26호

동역자의 사랑이 힘이 됩니다

주은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삼상 12:24)

중국을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오늘은 모처럼 비가 내립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역자님에게 내려지기를 소망하면서 펜을 듭니다.

저희 가족이 ○○시에 정착한 지도 어느새 3년이 지나가고 이제 4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94년 '선교한국'에 참석하여 21세기 세계선교의 과제가 아시아에 있고, 그 중심이 최대의 미전도 지역인 중국이라고 확신한 뒤,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부르신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후 중국 ○○시를 사역지로 결정하고 그곳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때마다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저희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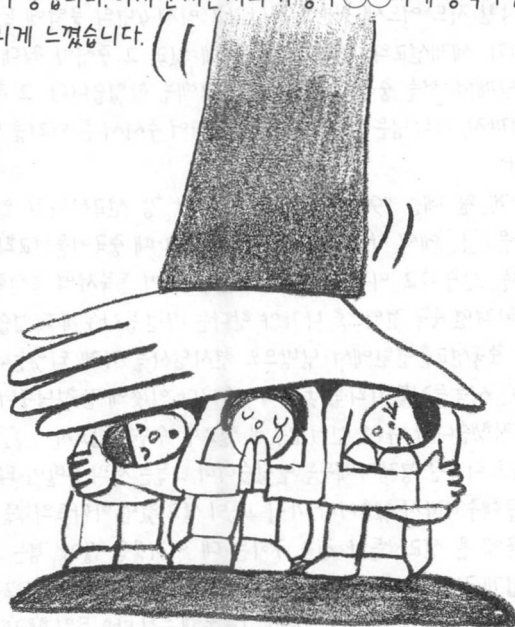
사역지로 ○○시를 결정하게 된 데는 '94 선교한국에서 만난 강 선교사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강 선교사님은 ○○시와 가까운 □□에서 사역 중이셨는데, 마침 그 때 중국어문선교회 사역 홍보를 맡고 계셨습니다. 강 선교사님과 저는,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중국선교 흐름이 동북지역 조선족에게만 흘러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를 하려면 중국 전역으로 나가야 한다는 비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역지로 ○○시를 결정한 후 중국선교훈련원에서 남방으로 현지당사를 가게 되었는데, 여행 도중 저는 일행과 떨어져 아내와 함께 ○○시를 둘러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간 첫날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언어연수에 필요한 수속을 밟고자 ○○대학을 찾아갔을 때, 모 선교단체에서 단기선교사로 파송된 형제자매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의 손발이 되어 모든 등록업무를 도와주었고, 그날 바로 저희 집을 구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마침 그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4층이 비어있었기에 우리를 소개해 준 것이지요 중국에 온 선교사들이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던 우리는 그들 덕분에 예상밖으로 쉽게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날 저녁 그곳의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B국에서 온 선교사 한분을 소개받았는데, 그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학교도 안내받았습니다. ○○시에 들어간 첫날부터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와 아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흥분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이 한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시에 들어간 후에도 변함 없이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도라주었습니다. 덕분에 큰 문화충격 없이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지만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거의 매일 삼촌, 이모하며 찾아가도 전혀 귀찮아 하지 않고 기쁘게 놀아주었다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s)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라 낯선 땅에서 외로움에 시달리며 바깥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선교를 함에 있어서 넘어야 할 큰 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문제로 심적일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때 만난 형제 자매들은 우리 아이들이 중국에 적응하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저의 아이들이 중국 아이들과 잘 놀고 학교에 잘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지체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들이 소개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섬기고 있으며, 이제는 선교사라기보다는 그 교회의 한 식구가 될만큼 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마침 □□시 선교사들의 기도모임이 시작되었는데, 강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그 모임을 소개해 주어, 사역지에 도착하자마자 □□시 사역자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 떨어져 사역했다면 많이 외로웠을 텐데, 그들과 한 달에 한 번 갖는 기도회와 교제는 제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중국의 삼자교회는 어용이고, 가정교회만이 참 교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삼자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들, 그리고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과 동시에 교제하면서 중국 교회를 양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의 가정은 헌신적으로 도라준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선교사로 들어오는 가정들을 아낌 없이 도라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정착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실로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외국인의 선교활동을 금지하면서는 선교사를 감시하다보니 보안상의 문제로 선교사들 간에 서로 노출되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고 홀로 사역하면서 생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가정이 ○○시에 정착하면서 동역자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장승원 그림

이제 저는 동역자님께 지금 중국에서 기독교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현재 중국 교회의 큰 지도자들이 경찰에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국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원자오(韓文操)가 중국기독교협회 회장이 된 이래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겁니다. 1997년 3월 15일 허난(河南)성의 핑핑산(平頂山)에서 장춘샤(張春霞), 차오중화(喬中華), 왕신차이(王新材)를 비롯, 모두 8명의 중요한 지도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투옥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난성의 난양(南陽)에서는 최근 100명 이상의 크리스천이 체포되었고, 상하이(上海)에서도 50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두 번째로 체포되었습니다. 안후이(安徽)성의 한 지방에서도 9명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후베이(湖北)성의 한 집회처에서는 8명의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심한 구타를 당하여 그 다음날 죽고 말았습니다. 저장(浙江)성의 자싱(嘉興)에서는 타오링민이라는 여성 사역자와 그녀의 친척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감금되어 육체적 고문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아는 중국의 크리스천들은 슬픔 가운데 금식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Lilies Amongst Thorns』라는 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크리스천들이 당하고 있는 모진 박해와 고문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으로, 책에 실린 내용은 믿기 어렵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중국 크리스천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통의 실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 아래에 있는 수천의 중국 크리스천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정부가 기독교 지도자와 가정교회에 대한 박해를 멈추며, 최근 몇 해 동안 체포하여 고문을 가하고 있는 크리스천들과 지도자들을 석방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중국 정부가 국가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크리스천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멈추고, 종교의 자유를 주며,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은 앞으로 경제와 기독교 모두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중국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다음에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1997년 겨울에 주은파 드림

비싼 값으로 배운 고난의 참가치

가오루지(高魯冀)

어느 날 교회에서 생일파티를 열었는데, 생일을 맞은 주인공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했다. 한 젊고 예쁜 자매는 나와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은 매우 순조로웠다고 말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기까지의 과정과 직장과 집을 구하고 새 교회를 찾기까지 모든 일들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순탄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녀가 몹시 부러웠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복을 나도 좀 나눠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사가 순탄하지 못했다.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동안 항일전쟁과 국민당, 공산당 간의 싸움 등 큰 사건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대혁명 당시 갖은 고난과 시련들을 겪었으며, 우리 가족은 번번이 해를 당했다. 어머니에겐 “특대 호랑이(特大老虎)”라는 낙인이 찍혔는데, 이것은 마오쩌둥

(毛澤東)이 미제국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종이 호랑이’라고 비유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즉 겉보기에는 무시무시하지만 사실은 종이로 만든 가짜 호랑이라서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뜻이다. 당시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으므로 호랑이도 보통 호랑이가 아닌 특대 호랑이가 된 것이다.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는 끊임없이 핍박을 당해야만 했다. 매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는 설령 오전에 단위(單位)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항상 외쳤다.

반우파 투쟁을 하던 외사촌 형은 우익분자로 낙인이 찍히자,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노동개조대로 보내졌다. 그가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식구까지 모두 화를 입게 되었다. 문화대혁명 기간 중 우리 집과 처갓집 모두 재산을 몰수



장승원 그림

당했으며, 집마저 빼앗겨 열여섯 식구가 6평 되는 좁은 공간에서 살게 되었다. 두 상자나 되던 서화(書畵)도 모두 불태워졌다. 그리고 1960~1962년에 걸친 3년 간의 가뭄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못해 얼굴이 부었다. 명절 때 집에 가면 어머니는 항상 집에 있는 양식을 아껴서 우리 형제들에게 나눠 주셨다.

1978년唐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는 베이징(北京) 외곽지역에 있는 한 농촌에서 노동개조를 받고 있었다. 톈진(天津)에 있던 집은 지진으로 인해 모두 부서졌고 온 식구들이 난민수용소에서 살게 되었다.

1980년 미국에 건너가서도 어려움은 끊이지 않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순조롭지 못했다. 나는

중국인으로서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다. 심지어 샌프란시스코의 정신병원에 1주일 동안 입원을 하기도 했다.

예수를 영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순조로움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그 때는 고민이 있으면 즉시 기도하였고 그러면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과 그로 인한 좌절, 고통이 다시 나를 따라 다녔다. 나쁜 일은 해마다 한두 건 정도 일어났다. 1994년 생명보험 일로 보험회사와 분쟁이 일어나 법원까지 갔었고, 95년에는 다른 사람과 돈을 합쳐서 집을 샀는데, 그제 은행에 넘어가는 일이 있었다. 그에게 속아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던 나는, 결국 급하게 4만 5천 달러를 구해 길바

닥으로 내쫓기는 신세를 겨우 모면하기도 했다. 96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차 사고를 두 번 당했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 내 치료비를 내주기는 커녕 오히려 보험증을 몰수해 가버린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검사비용으로 1천 달러를 요구했고 나는 현금으로 지불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2천 달러를 물어내야만 한다고 했다. 아직 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내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보살펴 주지 않는 듯하니, 아무래도 점쟁이를 찾아가 재수 좋게 좀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나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었듯이 주님께 눈물

로 호소하였다.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더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고난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더욱 가까워지게 했다. 고난 당할 때 우리 가족들은 더욱 똘똘 뭉쳐서 합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하였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옴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 나라(전 7:3).”

무릇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모두 환란을 당한다. 그 사람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결코 그를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에 성경에서 그를 “질고를 아는 자라(사 53:3)”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크게 쓰임과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을 보면 바울이 몸과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있다.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 이치를 터득한 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고

후 12:10).”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2~3).”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행 14:22).”

우리 생애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결실이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감미로운 기쁨도 모두 괴로움을 이겨낸 후에 열린 열매이다. 우리는 고난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줄 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첫날부터 주님은 내게 나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담을 주셨다. 내가 만약 남을 위로하는 천사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마치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사 48:10).” 어떠한 고난이 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선택받은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나 1:1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들이 시련을 당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분이 어떻게 그 많은 시간과 정력과 마음을 우리에게 쏟으시겠는가. 소위 뜨거운 불이 정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내가 세례를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지나온 10년을 돌아보니 수많은 고통과 환란으로 얼룩진 인생임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 숱한 고난으로 인해 성경을 잘 읽지 않던 내가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한 개인전도만 하던 것에서 이제는 각 대학과 중국인 유학생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처음엔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많았으며 시련이 있을 때마다 자주 흔들렸는데 이제는 굳건해졌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고난 속에서 내게 주신 귀한 교훈이라고 믿는다.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나의 말년에 사도 바울처럼 ‘관제와 같이 별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6~7)’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졌던 영광을 묻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그를 섬김으로 받은 상처자국을 찾으실 것이다.

출처/『海外校園』제21기, 一筆昂貴的學費

번역/ 차이나·본지 편집기자

중국 선교의 디딤돌이 된 방효원 목사

김교철

방효원 목사는 박태로 목사와 함께 1917년 5월 중국 산둥으로 건너가 결국 중국 선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박태로 목사가 병이 중하게 되어 귀국해 버리자 말이 통하지 아니하여 답답한 중에 있다가 선천사람 김병규 조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방효원 목사는 1886년 7월 2일 부친 방만준과 모친 김신준 사이에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부친 방만준은 예수교를 찾아가서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인물이며, 방씨 문중의 꾀박으로 고향에서 추방당하였다.

“방 예수쟁이”의 아들 방효원은 부친의 신앙적 영향을 받아 입신하게 되었고, 선천으로 이사한 후 신성학교에서 수학하였다. 방효원은 1909년 6월 신성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졸업하였다. 기독교 학교에서 수학한 방효원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11년에 아들 방지일을 얻었다. 평양신학교에서 수학하는 기간 중에 그는 평북 철산군 영동(嶺洞) 외에 세



방효원 목사



1932년 대도시 집회를 열었던 동역자들. 뒷줄 중앙이 방효원 목사

교회에서 조사로
시무하였고, 1913년 음력
2월 2일 주일에 영동교회
에서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로 장립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15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8월에 목사로 장립되어
평북 철산군 영동, 동문,
보산, 가도 등 네 개 지역
교회에서 로세영 선교사와
동사무사로 목회하게 되었
다.

방효원 목사는 1917년
산둥성 라이양(萊陽)현
으로 파송되어 라이양
남관에 거주하면서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방효원 목사는 중국 현지 노회인 산둥노회(山東老會)로 이명하여 중국 노회원이
되어 활동하였고, 당시 조선 선교사들로 구성된 조선 선교사회 임원으로 서로 의논하면서
협력선교를 하였다. 방효원 목사는 라이양현 주변 여러 교회를 담당하여 활동하면서 1923년에
라이양 남관에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중국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후에는 산둥 화북신학교 이사(理事)로도
활동하였다. 방효원 목사는 중국 교회 담당 선교사로 목회와 전도사업 일선에 나서서 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회 및 상회 활동까지 참여하여 폭넓게 일하였다. 미자립 상태에 있던 여러 중국
교회를 담당하여 일하는 선교사였으나, 중국 교회가 자립, 자양, 자전의 정신을 갖고 일하도록
지도하였다. “고려 예수교 예배당”으로 소문났던 라이양 남관교회 새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도
건축비의 2/3는 중국 교인들이 부담하여 낙성케 되었다. 중국 교회가 자립 정신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방효원 목사는 1917년부터 1935년까지 19년 간 중국 산둥선교사로 힘있게 활동하였다.

라이양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장막전도도 힘썼는데, 1926년 8월부터
착수하였던 장막전도 기간 중인 12월경 서하현 사와박에서 큰 눈을 만나 냉방에서 거처를
하다가 신경마비증이 생겨 입이 한편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방효원 목사는
와사증(喎斜症)으로 인한 불편함을 계속 감수해야 했다. 방효원 목사의 자녀들 중의 삼남
성일(10세)은 1929년 7월에 별세하였고, 방효원 목사 부인도 산후증으로 고생하던 중
산아(産兒)도 별세하여 선교지에서 자녀를 잃는 슬픔을 당하였다. 1935년 11월에 귀국한 그는
그 이듬해 봄부터 중국 상하이(上海) 조선인 교회 전도목사로 파송되어 새롭게 활동하였다.
방효원 목사의 활동으로 교회는 부흥되었고, 상하이 교회 건축을 위한 모금활동도 전개하였다.
모금활동 문제로 일체에 구금되기도 하였으나, 반일항일 죄목으로 내린 구형이 근거 없는
구형임이 입증되어 승소한 바 있다고 한다.

1938년 1월 20일에 회집되었던 전도부(당시 총회에는 전도부와 외국전도부로 구분되어

있었다.-필자 주) 사무국원들은 방효원 목사가 신체불건(身體不健)의 이유로 시무 사면 청원한 것을 받아 수리하였다. 그러나 방효원 목사의 상하이 교회 사역은 재개되었고, 1939년 보고에 의하면 상하이 홍구에 제2교회를 설립하는 등 활발하게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방효원 목사가 산둥성에서 중국인들을 위해 일할 때에는 “선교사”로 총회에서 인정하였고, 상하이에 거주하는 조선 동포들을 위해 일하게 되면서는 “전도목사”로 허락을 받게 되었다. 산둥성 선교는 그의 장남 방지일 목사가 1937년부터 이어받았고, 상하이 조선인 교회 사역은 차남 방화일 목사가 맡게 되었으나, 일제의 패망과 함께 상하이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다. 1941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 조선인교회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 화북노회가 조직되었으며, 방효원 목사가 시무하던 상하이 교회도 가입되었다. 화북노회는 일본 기독교단 화북(華北)교구 사업에 협력하였고 산둥 선교사들을 돕기도 하였다. 1944년 4월, 산둥성 지난(濟南) 조선기독교교회당에서 개최된 제4회 화북노회에서, 방효원 목사는 상하이 교회 원로목사로 허락을 받게 되었다. 화북노회가 허락한 처음이자 마지막 원로목사가 되었다. 화북노회 역시 일제 패망과 함께 막을 내렸다.

방효원 목사는 1945년 귀국하여 평안도 지역 교회에서 목회하였으며,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하하였다가 1953년 1월 1일 별세하였다. 그의 묘지는 인천시 장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후손들이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있다. 방효원 목사는 한국 민족과 중국 민족 복음화를 위해 일평생 수고한 귀한 일꾼이었다.

김교철/ 중국선교연구협회 상임총무, 부개동교회 부목사(외국인에배 담당)

산시(陝西)교회의 분투

척박한 토양 위의 비옥한 교회 성장

산시성은 거친 기후와 척박한 토양을 지닌 내륙지방이다. 그러나 최근 15년 동안 이루어진 교회의 성장은 비옥하기 그지 없는 곳이기도 하다. 1949년 이전에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교회를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교회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도들이 가난하여 교회 재정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 그들은 현재 교회의 생존을 위해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농촌지역에 늘어나는 교회, 신도들

최근 몇 년 간 많은 농촌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다. 상당수의 새 신도들은 병의 치유를 통해서, 혹은 기독교인 친구들이나 이웃들의 증거를 통해 기독교인이 되었다.

현재 산시성에는 약 35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 성을 통틀어 45명의 목사들이 있고, 170여 명의 전도사들이 아직도 안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세례를 받은 교인들의 비율은 극히 저조한 편이다. 600여 개소의 교회당과 처소들이 산간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많은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교회나 처소에서 최소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산간지역에서 30km는 주일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 출석율에는 주기적으로 변화가 있다. 농한기에는 대부분의 신도들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지만, 파종기나 수확기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루 종일을 바칠 수 있는 신도는 그리 많지 않다.

시안 외곽에 건축 중인 새 신학교 건물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성 기독교협회는 3년제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성경학교에는 1년제의 평신도 사역자 훈련과정도 있다. 이 성경학교는 시안



훈련된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촌교회

(西安)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썬위엔(三原)현에 있는 낡은 교회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학습조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 현재 시안 외곽에 새 신학교 건물이 건축 중인데 9월부터 이 새 건물에서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궁핍한 교회 재정, 목회 자료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극히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재정도 극도로 궁핍하다. 교회 건물은 아주 단순하며, 황토고원으로 이루어진 성 북부지역에서는 동굴 속에 처소교회를 세우고 있다. 여러 도시에서는 교회재산이 아직 교회로 환수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를 모실 만한 재정형편이 되지 않으며, 평신도 사역자들은 성경 이외에는 어떠한 목회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기독교 서적은 너무 비싸고 그나마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사역자로나 신도들은 해외로부터 들려오는 복음 방송을 통해 영적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다.

훈련된 사역자 부족과 이단의 확산

교회의 빠른 성장은 한편으로 훈련된 사역자의 부족과 이단의 확산이라는 큰 문제를 초래하였다. 안강(安康)현과 한중(漢中)현에는 교회와 처소가 얼마 되지 않으며,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한편 지역 기독교협회와 연관되지 않은 엄청난 수의 신도들이 농촌지역에 존재한다. 안강현 종교국장은 이들 그룹은 모두 정부에 의해서 '문도회(門徒會)'라는 이단으로 분류되어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국 관할이 아니라 공안국 관할 사항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사역자들은 이들 그룹이 골수 이단들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성경의 부족과 목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단순한 결과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 신도들은 쉽게 리산바오(李三保: 자신을 새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였음) 같은 이단 지도자들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역자들의 지적이다. 지역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하고 양성하기 위한 훈련반이 더욱 필요한 것이 현실이지만 지금까지 몇 차례밖에 열리지 못하였다.

이 글은 애덕기금회 해외연락사무소의 클라우디아 오블라우 목사가 산시성을 방문한 기록이다.

출처/「중국교회」 제11호, 애덕기금회 해외연락사무소 발행

세상이 감당 못 할 사람

방지일

“끈질긴 수뇌공작 등 신앙으로 승리. 핍박도 불구,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공산당

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신
앙은 말살당

하고 만 것 같았다. 그러나 자유를 빼앗겼다고는 하나 진정한 신앙은 어떤 제도나 탄압에도 말살당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나는 몸소 경험하였다.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던 저우자오밍(周兆銘)이란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하며 의심할만큼 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그는 라이양(萊陽) 출신이며 빈농이었다. 그가 라이양에서 농사를 지으며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던 중 공산화를 당하게 되었다. 곳곳마다 노조회의가 조직되었고 그

곳에서는 항상 ‘신앙은 자유이지만 교회는 미제국주의의 이용을 당해 첩보정책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학습시켰다. 저우자오밍도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자유라는 헌법 조문만을 붙잡고 ‘나는 신앙자유를 누릴 뿐이며 그 외는 불문에 불인다’고 말했다. 교회는 문이 닫혔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그들은 공산당에게 자진해서 교회당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어쨌든 지난 날의 모든 과오에 대해 인민들 앞에서 사과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저우자오밍은 ‘공산당에게 동조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들었다.

“나는 주어진 신앙자유를 누릴 뿐 미제국주의는 알지도 못합니다.”

반항하는 기색 없이 오직 평화로운 얼굴로 신앙의 자유만을 누리려고 했지만, 공산당은 그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며 밤을 새워가

면서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그를 다루었다. 저들이 저우를 심문할 때마다 저우는 한결같이 만면에 미소를 가득 띠고 오히려 저들을 권면하였다.

“나는 미제국주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예수를 믿을 뿐입니다. 우리 나라가 잘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사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주장과 태도는 한결같이 간절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공산당은 그를 고문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옮겨 대화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일관성있게 웃으면서 간절히 권면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공산당은 온갖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하루는 밤에 그를 밧줄에 매달아 놓고는 깊이 반성하라며 가버렸다. 매달려 있으면서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은 그는 조용히 찬송만 불렀다. 아침에 그들은 죽지 않았다고 그를 풀어주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예전과 같은 태도로 저들을 권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던지 그의 동생을 불러 형을 데려가게 했다. 그리고 형을 못나가게 하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며칠 쉬 뒤 다시 여러 곳으로 돌아 다니면서 교인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도하였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길이 잘 사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다가 공안에게 잡히면 본향으로 보내졌다.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잡혀 고향인 라이양의 공안국으로 이송된 일이 내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58차례나 되었다. 라이

양 공안국에 이송되어 오면 또 왔나며 제발 다른 곳에 가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까지 책임을 추궁당했다. 그러나 동생은 이제 더이상 형을 책임지지 못하겠다고며 보증을 거절하였다. 저들도 저우자오밍은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 않는 사람임을 잘 아는 터여서 그냥 집에만 있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변함없이 또 전도하러 나갔다. 나에게서는 여러 형제 자매의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 2백 리나 되는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오곤 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걱정이 없었다. 공안국에 잡혀가면 거기서도 전도했다. 한번은 내가 있는 칭다

오(靑島)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공안에 잡혀 연행되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전도인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를 하는가?”

“정말 요긴한 때입니다. 전도할 때란 말입니다.”

“토즈(여행증)가 있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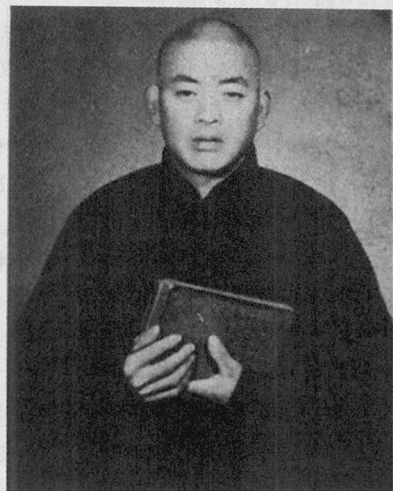
“그런데 어떻게 나왔는가?”

“저는 전도를 안 하고는 잠을 못 잡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지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감히...”

“저는 이 말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입씨름이 오고간 후에 결



저우자오밍

국 그는 다시 라이양으로 돌려보내졌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다른 지방에서 잡혔을 때의 일이다. 공안은 그가 성경책을 가진 것을 보고 그를 미제국주의 첩자로 몰아 공안국으로 연행했다. 먼 거리였으므로 밤이 깊어 심문을 하지 못해 이튿날 심문하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똑같은 것을 물었다. 어디에서 떠나, 어디 어디를 들렸으며, 누구누구를 만났는지 자세하게 쓰라고 하였다. 그는 하나도 숨김 없이 소상하게 썼다. 마지막으로 여백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썼다. 모든 노정을 보고하면서 맨 끝에 적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꼭 잘 읽어 보라는 부탁까지 했다. 취조하는 이는 기가 막혀하면서 저들의 방침대로 그의 고향인 라이양서로 호송하라고 명하였다. 이외에도 그에 관한 신앙 일화는 매우 많다.

그는 언제나 만나는 사람마다 온유한 얼굴로 대했다. 어떤 지방에서 붙잡혀 이송되어 올 때도 반항하지 않고 경찰의 요구에 잘 순종하였다. 모든 일에 그저 순종할 뿐이었다. 중국이 살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므로 전도야말로 애국애족하는 일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그는, 자신을 취조하는 경찰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복음을 전하였다. 그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다. 심문하려고 마주 앉은 경관 앞에서 그가 기도를 하였다. 그러자 경관은 그에게 뭐 하느냐고 물었다. 그가 기도한다고 대답하자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며 차

갑게 응수했다. 그러자 저우자오밍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만 뵈히 쳐다보았다.

“왜 더이상 말이 없는가?”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한 다음에야 당신과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당장 그만 뒤. 입 닥치지 못해.”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그의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다시 그의 얼굴만 쳐다 보았다. 경관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모든 일에 선후사가 있는 법입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과 대화한 다음에야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랑이가 몇 차례 오간 후 끝내 경찰관은 그에게 기도하도록 허락하고야 말았다. 그의 기도가 끝나야 비로소 경관과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들은 대로 하나도 숨김 없이 진실하게 대답하였다. 주저함 없이 솔직하게 대답하는 그를 보고 저들은 매우 놀랐다. 모든 심문이 끝나면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든지 경찰에게 전도를 한 그의 행동에 경찰들까지 두 손을 들고야 말았다. 한 번은 나도 “자네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만약 노동개조하러 신장(新疆) 같은 지역으로 보내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못만나게 될 터이니 이제 전도하는 일을 좀 삼가하고 집에 있으라”고 권면한 적이 있다. 그는 만약 신장에 가게 되면 거기서도 많은 노동개조원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므로 팬

찮다고 말하고는, 덧붙이기를 신장이 구만리 길이라지만 우리는 영으로 교통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였다.

저우 형제의 모든 언행은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실로 그 위대한 용기와 각별한 은사는 일일이 말로 다 얘기할 수 없다.

출처 / 「福音歷史半百年」 중에서
다음호에 계속

방지일/ 목사,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복음을 위해 남김없이 바친다

WEC의 창설자 찰스 토마스 스테드(Charles Thomas Studd)

안정숙

찰스 토마스 스테드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인 1860년 12월 2일 에
드워드 스테드(Edward Studd)의
6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인 에드워드는 매우
기발한 사업가로 많은 재산을 소
유하고 있었으며, 인도 북부 비하
르(Bihar)에 쪽(염료의 재료)을
재배하는 대농장을 두 개나 가지
고 있었다. 승마와 크리켓에 광적
인 관심을 갖고 있던 그는 넓은 정
원을 갖춘 대저택에서 승마와 크
리켓을 즐겼다. 당시 그는 영국에
서 상류층 신사였으며, 사교계와
스포츠계에서 맘껏 생을 즐기던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찰스 스테
드를 비롯한 그의 5남매도 풍부함
과 안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성장
했다.

아버지의 강자손려 회심

아무런 부족함 없이 크리켓과 승
마, 그리고 사냥으로 인생을 즐기
고 있던 어느 날 에드워드는 경마



1912년경의 찰스 스테드

장에 같이 가기로 했던 친구 빈센
트의 간곡한 권유로 경마장행을
마지 못해 취소한 뒤 더블린에서
열린 무디(D. L. Moody)의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들은 무디 바로 앞
에 앉았다. 그날 밤 무디의 설교는
에드워드로 하여금 56년간 즐기
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

놓게 만들었다. 그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그의 가슴에 와 박혔다. 그
날 이후로 그는 도박성 있는 경마
에서 손을 끊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말들 중 자녀들의
연습용 말 한 마리씩만을 남겨두
고 모두 팔아버렸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기
쁨을 맛보면서부터는 사격, 사냥,
크리켓 등도 자연스럽게 그의 생
활에서 떠나갔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그는 만나
는 사람마다, 그가 하인이든지 친
구이든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개방하
여 설교자를 초청하여 집회를 열
었다. 집회가 있는 날은 말을 타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이나 부자나 모두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변화에 대해 찰스 스테드는 “우리
는 아버지가 무엇에 사로잡혔는
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계
속 자신이 거듭났다고 말씀하셨

으며, 밤이면 내 방에 오셔서 나의 영혼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피가 나서 아버지가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자는 척했다. 우리 가족이나 하인들은 회심하기까지는 잘못을 저지른 강아지처럼 아버지를 피해다녔다. 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보면 그 넓은 집 어딘가에 곧 숨어버리곤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에드워드는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역시 무디의 집회에 가던 길이었다. 가는 도중 집에서 데리고 오지 않은 하인을 생각해 내고는 마차에서 내려 급히 달려가다가 그만 다리의 혈관을 다쳐 어이 없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에드워드의 뜨거운 열정은, 훗날 그의 셋째 아들 찰스 스터드가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며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데 고스란히 이어졌다.

크리켓으로 이름을 날린 스터드

찰스 스터드는 국민학교를 마친 후 이미 위로 두 형이 다니고 있던 이튼(Eton) 국립학교에 입학한다. 이튼은 영국 귀족들이 다니던 학교로, 교회 출석은 학교 규정사항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신앙과 상관 없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다. 이튼에서 생활하는 동안 스터드 형제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크리켓이었다. 모두 우수한 크리켓 선수로 인기를 얻고 있었다. 회심 후 에드워드는 세 아들의 신앙에 관심이 많아, 그들이 집에 돌

아오면 무디 집회에 데리고 가거나, 집으로 설교자를 초빙하여 집회를 열어 말씀을 듣게 했다.

찰스 스터드가 열여섯 살이었을 때, 하루는 아버지가 웨더비 목사를 집으로 초대하였다. 그날 세 형제는 웨더비 씨와의 개인 상담 후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그러나 회심한 즉시 에드워드처럼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다. 이튼으로 돌아간 후 만형인 키나스톤의 주도로 성경공부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찰스 스터드의 삶의 중심은 크리켓이었다. 한 가지를 붙들면 완벽하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진 그는 크리켓에서 1인자가 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크리켓을 연습하는 데 다 보냈다. 1879년 이튼과 해로우와의 경기에서 우수한 후 모든 언론들은 그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라고 극찬했다. 그 해 그는 이튼에서 크리켓 선수단의 주장이 되었다.

캠브리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두 형과 함께 그는 대학 4년 내내 크리켓 대학팀의 선수로 이름을 날렸다.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캠브리지대학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둘째 형인 조지가 폐렴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는 일이 일어났다. 많은 형제 중에서도 조지와 특별히 친했던 그였기에 형의 침대 아래서 그를 간호하며 긴긴 밤을 보낸다. 그날 밤 그는, 인생에서 생명을 잃으면 세상의 명성과 부귀와 지위는 모두 헛된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고는 무디의 집회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1884년 1월 그가 참석했던 무디의 집회는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날로 그의 마음에 새겨졌을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세상의 명예와 쾌락이라는 벽을 다 허물어뜨렸다. 그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날 밤 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주님, 저 자신과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더이상 크리켓 선수로 전교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찰스 스터드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새 생명으로 가득차고,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불일듯 일어났다. 그는 크리켓을 하던 열정으로 만나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크리켓 시즌이 다가왔지만 더이상 크리켓은 그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찰스 스터드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하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중국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중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던 허드슨 테일러가 런던에 왔다. 테일러는 선교의 불이 일고 있던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해 선교에 대해 잠자고 있던 그들의 열정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1884년 찰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껴 중국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어머니와 큰형을 비롯한 전 가족과 친척들의 반대는 무척 거세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캠브리지 7인



밴조를 연주하고 있는 찰스 스톨드



왼쪽부터 스탠리 스미스와 그의 아내, 중국인 하녀, 프리실라와 스톨드 그리고 네 딸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 이상으로 심한 반대 탓에 그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결정을 격려해 주셨다. 그는 선교사로 중국에 가기 위해 허드슨 테일러를 찾아갔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를 중국내지선교회 선교사로 기쁘게 받아주었다.

중국으로 가기 전 1년 동안 찰스 스톨드는 스미스, 호스트와 함께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을 다니며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다시 한 번 영국의 언론은 크리켓 선수가 아닌 ‘운동선수 선교사’로서 그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이 때에 찰스 스톨드와 스미스를 포함한 캠브리지 대학 출신 7명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캠브리지 7인’이다. 또한 찰스 스톨드는 에딘버러를 비롯한 영국 북부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다니기도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고 나서 자신의 부유했던 삶에 회의를 느꼈다. 이 경험은 훗날 그의 중국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중국 선교사로 함

께 떠났던 세실 폴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톨드는 매우 검소한 생활을 주장하였다. 비싼 음식이나 비싼 가구를 멀리하였다. 그리고 안락함을 싫어하여 의자에 기대는 것도 싫어했다.”

내지선교회의 선교사로 중국에 가다

1885년 2월 5일 찰스 스톨드를 비롯한 캠브리지 7인은 상하이(上海)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런던의 빅토리아항구를 유유히 떠났다. 운동선수이자 귀족이며 영국 사회의 영향력 있는 젊은이들이 상류사회의 삶과 세상의 인기를 버리고,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상하이에 도착하자 그들을 마중 나온 허드슨 테일러를 만났으며, 곧바로 그들이 입고온 셔츠와 바지를 벗고 중국식 복장으로 갈아 입었다. 그리고 머리는 밀어서 가운데 상투를 틀었다. 그들은 상하이에서 몇 개월 간 교제를 즐긴 다음 각각 사역지를 향하여 떠났다. 찰스 스톨드는 폴힐 형제와 함께 4개월의 여행 끝에 북부의 한

중에 도착했다.

비록 언어의 장벽으로 사역의 열매는 없었지만,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다.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 들었으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의 중국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중국의 전통의상은 그를 가장 힘들게 했다. 발이 유난히 컸던 그에게 맞는 신발이 없어 작은 신을 신고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발이 부어 오르고 고름이 났다. 날이 갈수록 상태는 악화되어 걸을 때마다 송곳으로 발을 찌르는 듯한 통증까지 느꼈다. 그는 동료 선교사와 함께 야고보서 5장을 읽고 함께 기도했다. 다음날 기적같이 발의 부기가 빠지더니 결국 더이상 고름도 나오지 않고 완전히 치유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이 일을 통해 그는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단련되어 갔다.

그가 중국에 있을 때 2만9천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유산으로 상속되었다. 그는 말씀 속의

부자청년 이야기를 묵상하며 자신의 유산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한다.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한 후에 남은 3천 4백 파운드는 장차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훗날 그의 아내가 된 프리실라도 너그럽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그 돈을 구세군의 총재에게 보내면서 빈민들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서 완전한 신뢰와 전적인 포기를 보셨으므로,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들은 그 때의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었으며, 자신들의 필요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아뢰며 남은 생을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 허드슨 테일러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고 산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동역자로서 맺어진 결혼

1864년 8월 28일 북부 아일랜드 리스번에서 부유한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난 프리실라(Pricilla Slvingstone Stewart)는 큰 눈에 금발머리, 그리고 발랄하고 단순하며 외향적인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술과 담배를 즐기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루는 지옥을 경험하는 꿈을 몇 번씩 꾸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친척 아주머니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도록 그녀에게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거부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이

끌려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을 감았다. 그랬더니 그동안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을 거절하던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순간 불신과 조롱을 즐기던 그녀의 삶이 양심을 찔렀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다. 이후 그녀는 구세군에 가입하여 함께 행진하며 전도하였고, 회심한 지 두 해가 못 되어 중국내지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땅을 밟게 되었다. 그 때 나이 24살이었다.

찰스의 형인 조지가 요양차 상하이에 와 있었을 때 찰스와 프리실라는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형을 만나기 위해 룡안에서 온 찰스 스티드는 그녀와 함께 선원들을 만나 전도활동을 하였다. 프리실라는 사람들에게 구세군의 찬양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녀에게 호감을 느낀 찰스는 룡안으로 돌아간 후 그녀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뜨거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결국 프리실라는 찰스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텐진(天津) 영사관 앞에서 중국식으로 결혼하던 날, 두 사람 모두 옥양목으로 만든 평범한 옷을 입었다. 물론 결혼 반지도 없었다.

평생을 건디며 중국인처럼 살다

1888년 5월 결혼식을 마친 스티드 부부는 생활하던 룡안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사역을 시작했다. 그들은 중국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중국사람들과 구별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집 역시 하얀 석회를 바른 벽과 고르지 않는 벽돌 바닥으로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 매우 검소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룡안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정령숭배자들이었고, 그 가운데 몇만 명은 회교도였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음에 대한 저항이 많았다. 스티드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고 이웃들과 친해지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그들을 '서양귀신'으로 몰아 항상 저주와 욕을 퍼부었다. 프리실라는 "5년 동안 우리는 밖에 나갈 때마다 이웃들이 일제히 퍼붓는 악담을 참아야 했으며, 그 도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우리 탓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사회는 말할 수 없이 무섭고 잔인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특히 크리스천을 야만적으로 구타하며 핍박하였다. 폭도들은 스티드 부부가 예배처소로 지은 임시건물을 부수기도 했다. 이처럼 심한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열중하였다. 찰스는 구세군의 선교방법(전투적 전도방식)에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취주악단과 함께 거리를 행진하며 복음을 외쳤다. 그들은 룡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 외에도 아편 중독자를 위한 재활원을 열었다. 7년 동안 800명의 사람들이 이 재활원을 거쳐갔으며, 그 중에는 회심하여 예수게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약방도 열

었다. 매일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의 도움을 청했고, 찰스는 의학서적을 펴놓고 대담하게 처방해 주었다.

그들은 기독교의 원리에 어긋나는 중국의 관습을 대담하게 배격하기도 했다. 찰스 스테르트는 전족의 잔인성과 어리석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였고, 이후 그에게 세례를 받은 여자들은 발을 묶지 않았다.

찰스의 하루 생활은 새벽 2~3시에 일어나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은 아버지인 에드워드로부터 이어받은 것으로 그의 일생동안 지속되었다. 1886년 2월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선하신 주님은 매일 내게 하루를 살 힘을 주신다. 보통 새벽 3시 30분경에 일어나면 정신이 상쾌하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다. 아침에 읽는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하루종일 지워지지 않는다.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때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때이다. 그 시간을 놓치면 나는 머리 꺾인 삼손과 같다. 나는 가까스로 인정받는 일꾼이 아니라 칭찬받는 일꾼이 되고 싶다.”

미국, 인도, 아프리카에서 한 삶의 밑모

중국에서 그들의 삶은 역경의 연속이었다. 스테르드 부부는 4명의 딸을 모두 집에서 의사의 도움 없이 출산했다. 심장병을 갖고 있던 프리실라는 출산할 때마다 생명의 위기를 맞았다. 그럴 때마다 스테르트는 어두움의 세력에 격렬하

게 대항하며 아내를 위해 기도하였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구제비와 사역비로 들어갈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8년 간의 중국 생활로 스테르드와 프리실라의 몸은 매우 쇠약해졌고, 찰스는 천식으로, 프리실라는 심장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찰스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을 떠나야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 그들이 그동안 사역하던 건물을 중국내지선교회에 위임했다.

영국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을 얻게 되었다. 찰스는 영국의 많은 도시를 다니며 다시 사역을 시작했다. 찰스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학생자원자운동 단체에서 그를 초대했다. 1896년 미국에 도착한 스테르드는 18개월 동안 미국 전역을 순회무전하며 전도여행을 하였다. 집회를 인도한 후에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도록 상담의 끈을 놓지 않았다. 얼마 안 되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도로 길을 열어주셨다. 인도의 오타카먼드(Ootacamund)는 많은 영국 군인들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곳으로 인도인의 생활양식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그 지역에 주둔한 군대를 방문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 인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들은 영국의 섬들을 다니며 순회전도를 하였지만 여전히 마음은 선교지에 가 있었다.

1908년 리버풀을 방문했을 때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라는 이색적인 문구를 담은 포스터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모험심이 강한 그는 즉시 아프리카로 떠날 것을 결심했으며 1913년 벅스톤과 함께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향하여 떠났다. 아프리카는 어느 곳이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맹수와 식인종, 민족간의 전쟁 등이 끊임없이 그의 생명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찰스는 천식과 고열로 늘 시달려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1915년에는 니안가라에서 첫 세례식을 거행했다. 여기서 그는 HAM(Heart of Africa Mission)을 설립하였는데, 1919년 WEC(World Evangelization Crusade)으로 개칭된다. 그는 수천의 아프리카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아프리카 땅에 심을 때 백 배의 열매가 맺히리라고 믿었기에, 중앙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마치기로 결심했다.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가 아프리카의 심장부에 자신의 생명을 심고난 후 수백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이 땅으로 나아왔다.

찰스와 프리실라가 죽은 후 WEC은 40개 이상의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오늘날 활동중인 선교사는 1천4백 명 가량 된다. 그 외에도 WEC의 도움으로 설립된 기독교문서선교회(Christian Literature Crusade)에는 6백여 명의 사역자가 찰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안정숙/ 본지 편집기자



北京的士司機：成爲
社會資訊交流新聚點

중문 제목

달리는 소식통, 베이징 택시

지쉬밍(紀碩鳴)

15차 공산당 대표대회가 열리기 전날, 베이징(北京)의 택시기사 차이렌첸(紫連臣)은 빨리 회의에 가서 '학습'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학습이란 지도자가 택시기사들에게 특별히 통지하는 것으로, 15대 기간동안 "교통안전에 주의하고 마음대로 뒷골목의 소식을 믿거나 퍼뜨리지 말라. 그리고 의심이 되는 사람은 경계하고 필요할 때 즉시 통보하라"는 요구 사항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우리에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다" 오 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기사 차이는 말했다. 학습은 평상시에는 매월 두 번, 매년 설이나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한다. 이것은 회사가 택시기사를 관리하는 수단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베이징시에는 현재 6만 5천여 대의 택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숫자를 초과한다. 번호판 없이 영업하고 있는 '헤이체(黑車)'의 숫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베이징의 택시 종류나 복잡함은 전국에서 최악이다. 가장 낮은 등급인 '미엔디(麵的-붕고 모양의 자동차)'에서부터 일본에서 수입된 고급 '크라운(Crown)'자동차까지 베이징의 택시에는 10여 종류가 있다. 택시비도 차종에 따라 6가지로 구분된다. 차이렌첸은 "베이징 거리의 「京B」자 번호판이 있는 차는 모두 택시이며 매일 백만 명이 넘는 손님을 운송한다."고 말했다.

외지인들은 택시를 타면 '베이징의 택시 기사가 이렇게 열정적일까!'하고 놀랄 것이다. 어떠한 기사는 이것저것 묻고 심지어는 담배도 주고 가는 중에 이런 일 저런 일 쉬지 않고 이야기한다. 그들의 말을 통해 현재 주식시세, 주식투자자가 투자한 상황과 전(前) 베이징

'미엔디'-매우 비좁고 냉난방장치도
되어있지 않지만 값이 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장인 천시통(陳希同) 안건의 내막이나 자
오쓰양(趙紫陽)의 근황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 수 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뒷골목 이야기는
택시 안에서 빠르게 전해진다. 어떤 사람은
베이징 택시를 「민간 선전부」라 칭한다.

중국의 수도이며 정치문화의 중심인 베이
징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것
은 당연한 사실이다. 베이징사범대학 교수 치
우윈(邱雲)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정치에
대한 베이징 시민들이 갖는 관심의 열정도 높
아졌다. 베이징인들에게는 광둥인처럼 모여
차를 마시는 습관이 없었고, 교류 장소도 부
족했다. 그래서 택시가 가장 좋은 교제 통로
가 되었다.”

약 70~80%의 택시가 기사 개인 소유이지
만, 번호판은 여전히 회사가 소유하여 관리한
다. 택시기사인 진더민(金德民)은 일찍 텐진
(天津)에서 만든 “샤리(夏利)”차를 인민폐 13
만 원(한화 약 1천 3백만 원)을 주고 샀는데,
매월 회사에 관리비 1천 7백원과 비용을 공제
하고 나면, 매월 순수입은 3, 4천 원에 불과하
다. 택시기사의 수입은 10여 년 동안 별 변화
가 없었다. 90년대 초, 매월 4, 5천 원의 돈을
벌었던 한 기사는 “지금은 차가 많아져 경쟁
이 심하고 관리도 엄격하다. 바가지 요금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오르는
것에 비해, 베이징의 택시기사의 생활 수준
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여긴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소형 미니버스(麵包車)
인 ‘미엔디’는 비록 5~7칸의 좌석이 있지만
매우 비좁고 냉난방 장치도 되어 있지 않아,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이 차를 탄 사람
은 마치 벌을 서는 것만 같다. 상하이(上海)에
서 만드는 매 km당 2원인 중형차 산타나
(Santana)보다 절반이 싸기 때문에 많은 시
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베이징 정부는 ‘미엔디’가 작고 지저
분하며 안정성도 없고 속도도 느리다는 이유
로 2/3로 줄였다. 그러나 아직도 택시 중 미엔
디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나 된다. ‘미엔디’
의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기사는 짐
은 거절하는 등 임의로 손님을 골라서 태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심지어 어떤 기사는
기름을 아끼기 위해 중간에 자리를 없애고 적
재량을 줄이기도 한다. 이것에 대해 베이징
사회는 기사의 도덕준칙에 대해 여러 차례 토
론을 벌인 적도 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돈도 적게 벌고
위험하기도 하다. 올해 7월에는 손님을 가장
한 4인조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빼앗겼다.”고 택시기사 진더민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그는, 택시는 사회의 일반 시민
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며, 사
회의 일면을 반사하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출처/ <亞洲週刊> 97. 11. 3 “出租車折射京城現狀”

번역/ 김은희 · 본지 편집기자

중국의 발목을 잡는 실업문제



국유기업의 도산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실업 증가는 정책 당 국 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1994-1995 경제백서」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 실업인구는 당국의 축소정책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이미 480만 명에 달했다. 원래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직장이 주어지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실업(失業)’이라는 용어 자체의 사용을 기피하면서 ‘취업대기 인원(待業人員: 국가로부터 직장이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잉여 노동력’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해부터 국영기업 상황에 대한 보도에서 ‘하강(下崗: 퇴직)’이라는 어휘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비록 경제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퇴직 근로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실업이 최대의 잠재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늘어가는 잠재 실업자들

대도시보다도 중소도시 지역에 잠재적 실업

자군이 더욱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실업자군은 농촌의 잉여노동력과 진학하지 못한 중등학교 졸업생 및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국영기업체로의 전직을 원하고 있는 고용 대기 인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숫자는 800만 명 이상이며, 이 밖에도 국유기업에서 업무 불만 상태에 있는 2천만 명이 '반휴직' 상태에 있다. 그 동안 실업이라든가 기업의 파산 같은 사태를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의 근로자들 퇴직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군다나 재취업도 매우 어렵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퇴직자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생계문제이다. 중국의 근로자들에게 퇴직은 의료 등 사회보장까지를 포함하여 여태까지 모든 것을 제공받던 소속단위로부터의 격리를 뜻한다. 현재 장쑤(江蘇)성이나 저장(浙江)같은 부유한 성에서는 퇴직자에게 150~200원(元)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동북 지역의 몇몇 성에서는 퇴직자들이 최저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은 시민들의 심리적 균형을 잃게 함으로 사회적 불안운을 조성한다. 퇴직문제로 인한 불안의 징조들은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다. 동북지역의 공업도시들에서 노동자 청원사건이 많아졌고, 허베이(河北)성에서는 시위가 발생하여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그런데 중앙당국은 지방당국에 과도한 수단으로 민중소요에 대처하지 말도록 곧바로 비판과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옆에 표를 참고하면 중국 실업률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업파동의 역사

중국은 1949년 이후 세 차례의 실업파동을 겪었다. 제1차 실업파동은 내전을 끝내고 정부를 수립한 직후인 1950년대 초에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4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군과 다수의 파산농민이 있었다. 그 후 도시 실업

도시의 실업자수와 실업률
(1993, 1994, 1995년도 중국통계연감)

년	도시실업자수			실업률
	(만)	실업청년	비율(%)	(%)
1981	439.5	343.0	78.0	3.8
1982	379.4	293.8	77.4	3.2
1983	271.4	222.0	81.8	2.3
1984	235.7	195.9	83.1	1.9
1985	238.5	196.9	82.6	1.8
1986	264.4	209.3	79.2	2.0
1987	276.6	235.1	85.0	2.0
1988	296.2	245.3	82.8	2.0
1989	377.9	309.0	81.8	2.6
1990	383.2	312.7	81.6	2.5
1991	352.2	288.4	81.9	2.3
1992	363.9	299.8	83.2	2.3
1993	420.1	331.9	79.0	2.6
1994	476.4	301.0	63.2	2.8
1995	520.0			2.9

자수는 줄어들기 시작하여 대약진운동이 시작되기 1년 전인 1957년에는 실업자수 200.4만 명, 실업률 5.9%로 저하되었다. 1958~1959년 추진되었던 대약진운동은 노동력의 광범위한 동원을 동반하였으므로 실업률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로 끝났고, 1960년 이후 경제의 축소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더욱이 이 시기에 3년 간의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만연하여 1962년까지 취업자수가 격감하였다. 이를 제2차 실업파동이라 한다. 그 후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완전고용상태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일할 사람을 모두 공장의 필요와는 관계없이 배치하였고, 많은 청년들을 농촌에 하방(下放)시켰기 때문이다. 즉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산성을 무시한 고용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문혁이 끝나고 농촌에 갔던 청년들이 도시로 다시 몰려왔고, 인민공사 해체와 농업 생산책임제 도입에 따라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몰려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그 결과 1979년의 실업률은 6%에 달하였다. 이 시기를 제3차 실업파동이라 한다. 이 때 정부는, 한편으로 실업자들을 국유기업, 집단기업에 흡수하는 정책을 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구직활동을 허용하고 자영

업을 권장함으로써 실업문제에 대처하였다. 국유기업, 집단기업에 실업자들을 흡수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 국유기업의 정원초과고용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노동자의 조기퇴직제도, 즉 정체제도(頂替制度)¹⁾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을 수용하여 국유기업과 집단기업은 많은 노동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동일한 일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분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업 안에 본래의 임무와는 다른 직장을 만들어 거기서 잉여노동력을 흡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이런 취업방식은 많은 폐단을 불러왔다. 노동자들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켰고, 철밥통(鐵飯碗)이라 불리는 종신고용제도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의존심리를 강화시켰으며, 노동력의 수급에서 공급초과를 더욱 촉진하였다. 효율을 희생시킨 대가로 얻어진 실업률 저하는 실업자를 불완전취업자(在職失業者)로 바꾸었을 뿐이고, 오히려 기업의 경영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농인구가 드리운 그늘

현재 중국의 총 실업인구는 대략 1.8~2.6억으로 미국 인구와 맞먹는 거대한 규모이다. 관련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도시에 약 2,600~3,800만 명(기업 2,000~3,000만 명, 기관사업 부분 600~900만 명)의 음성적인 실업인구가 존재하며, 현재 농촌에는 이직을 필요로 하는 잉여 노동력이 1.5~2.2억에 달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실업인구는 약 1.8~2.6억의 규모에 이른다. 1997년 예상되는 성시 및 진의 공식 실업률은 약 3.2%이다(95년 2.9%, 96년 3.0%).

개혁 이후 농촌에서 도시로,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의 실업률은 더욱 큰 폭으

로 증가하였다. 현재 전국 4.2억의 농촌인구 중 약 1.2억이 잉여 노동력인데, 이들이 도시로 직장을 찾아 이주하는 것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은 공업이나 건설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부 연해지구 경제의 신속한 발전이 농촌 잉여노동력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에도 한계가 있다. 그 결과 198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맹류(盲流), 민공(民工) 등의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이농인구는 도시의 신규직업 창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입되었으므로, 도시의 취업문제에 큰 압력을 가할 뿐 아니라,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해 미래 농업부분에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국유기업의 도산과 실업자 양산

실업증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중국 경제체제의 근간인 국유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96년 현재 중국 국영기업의 숫자는 30만 5천 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고용된 종업원은 1억 1천만 명으로, 도시 전체 노동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개혁개방 정책이 가속화되고 독점상태가 붕괴되면서, 최근 국유기업은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다. 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96년 말 현재 국유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총액은 95년에 비해 40%나 증가한 인민폐 7백억 원(약 7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유기업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경영능력 부족이다. 중국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몇 차례 개혁안을 내놓았다. 92년 10월의 14차 공산당대표대회에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행을 위해 국유기업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경영에서 손을 떼고 기업 경영자에

1) 정체제도(頂替制度); 국유기업에 취업 중인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대신 그 자녀를 그 기업의 정규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제도.

2) 한 기업(단위) 내에 병원, 학교, 유아원, 세탁소, 이발소 등 서비스 산업을 두는 것은 중국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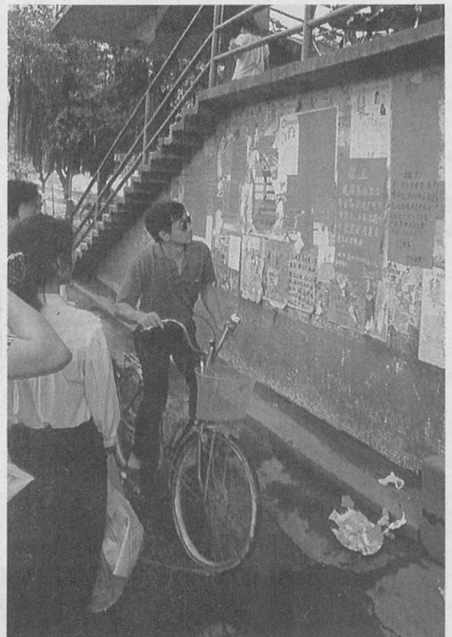
게 경영권을 이양하는 등 계약책임제 방식의 현대적인 경영기법이 도입되었다. 동시에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인수, 합병은 물론 과감하게 도산시키는 방법도 동원되었다. 96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국유기업 도산건수는 95년에 비해 2.7배나 증가한 6,232건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결실은 커녕, 오히려 실업자수만 늘리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중국 지도부의 실업막기 총력전

이에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실업문제에 대해 몇 가지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가운데 하나는 국유기업의 퇴직정원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다른 기업에 근무하는 부부 두 사람이 동시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한 기업이 부부 가운데 1인을 반드시 복직시키도록 하고, 동일기업에서는 부부를 동시에 퇴직시킬 수 없으며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현지의 주관부서가 부부 중 1인의 재취업을 책임지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응급조치는 각 지역이 재취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즉시 수립토록 하는 것이다. 상하이(上海)시는 자영업 종사를 자원한 모든 퇴직자에게는 원래의 직위와 생활보조금을 2년 간 유예해주고 자원퇴직자는 자영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도 원래 소속단위로부터 한 번에 2년의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과학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퇴직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응급 조치는 일자리를 갖는 고용단위를 늘리는 것으로 퇴직자를 50% 넘게 받아들이는 고용단위에는 조세납부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선전(深圳)의 경우에는 '市内 먼저 市外 나중'의 비례제 취업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중국의 각지에서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가 우선 순위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모든 조치들은 퇴직과 실업문제가 사회의 불안정서 폭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

거리의 구직 광고
정부는 실업막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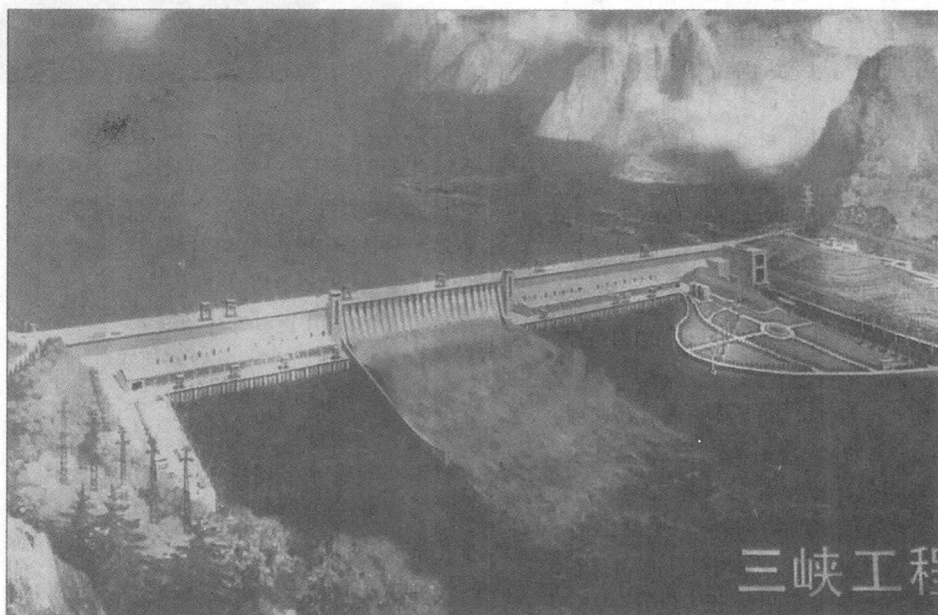


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실업문제는 필연적으로 국유기업 개혁과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얽혀 있다. 국유기업의 개혁은 종업원 구조의 개편을수반하고, 이러한 개편은 종업원의 대량 퇴직 연결되기 때문이다.

작년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중국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경제체제 개혁의 가속화로 국유기업 개혁 방향이 언급되었다. 만성적인 적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유기업의 개혁 방향에 대해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대형 국유기업을 공사(公司)제도로 개혁하고, ▷정부의 경영간섭을 배제하며 ▷주식제를 포함한 주식합작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개혁방향을 밝혔다. 장 주석은 또한 전력, 석탄, 기계, 자동차, 그리고 방위산업체 등 국가기간산업 분야의 대형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크고 작은 기업들은 합병, 매각, 연합, 임대, 위탁경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살리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과감히 파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처럼 의욕적인 국유기업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업자 문제의 처리대책이 시급하다. 국유기업 개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약 1천5백여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산샤(三峽)댐 물막이 완료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산샤 댐 건설의 청사진

창장(長江)은 세계 3대 강이자, 이름 그대로 중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전체 길이가 약 6,300km이다. 이 강은 칭짱(靑藏)고원에서 발원하여 쓰촨(四川)성에서 4개의 지류와 합류하면서 수량이 더욱 풍부해진다. 창장은 다시 후베이(湖北)성과의 경계에 있는 따바산(大巴山) 줄기를 따라 흘러간다.

산샤(三峽)란 이 따바산 줄기에 있는 취탕샤(瞿塘峽), 우샤(巫峽), 시링샤(西陵峽)의 3대 계곡을 통칭하는 말이다. 충칭(重慶)에서 우한(武漢)에 이르기까지 양편으로 기암절벽과 협곡이 이어지는데, 변화무쌍한 풍경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삼국시대의 자취 등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삼국지 적벽대전의 무대이기도 하다.

1992년 4월 중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이 산샤지역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댐이 들어서는 곳은 후베이성 이창현 산더우핑(山斗坪) 지역으로, 지난 11월 8일 세인의 관심 속에 '산샤 수리댐 공정' 1단계인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이 댐이 예정대로 2009년에 완공되면, 수심이 185m로 지금보다 10m에서 최고 110m까지 올라가게 되어, 모두 13개 도시와 1백40개의 읍,

‘홍콩정조’의인문중

그리고 4천5백여 개의 마을이 물 속에 잠기게 된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수몰 예정 지역으로 토지를 잃게 되는 농민들에게 매월 1인당 인민폐 50원(한화 약 6천 원 정도)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 생활 보조금은 일정한 직장을 얻을 때까지 지급되는데, 만약 그가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중국 농민들 대부분이 ‘농사를 그만둔다’는 사실에는 별다른 미련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실제로 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다른 농촌에서 일부러 댐 건설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 50원에 만족할 수 있을까?

또한 창장의 물줄기를 막는 산사댐 공사가 완공될 경우 대홍수를 유발, 50만 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다고 중국의 한 수력발전 전문가가 경고한 것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보도한 바 있다.

베이징 청화대학 수력발전학과 황완리(黃萬里, 86세) 교수는, “창장의 6백 km 수로 중 쓰촨성 이창(宜昌)과 충칭 중간에 댐을 쌓아 303억 톤(t)의 물을 저장하는 산사댐 공사가 완공되면, 상류 지역에 홍수가 나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수력발전소 공사에 참여해 온 황 교수는 이 산사댐으로 인한 대형 홍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청(淸)나라를 멸망시킨 1911년의 신해혁명 당시에 버금가는 최악의 폭동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지난 92년부터 장쩌민(江澤民) 국가 주석에게 여섯 차례 서한을 보내 공사 중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댐이 1993년 착공될 때부터 댐의 안전성과 환경 피해, 문화 유적의 수몰, 수백만에 이르는 이주민 대책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곳에 홍수 방지와 치수를 주목적으로 하여 연간 840억 kw/h 용량의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총예산 1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또한 “리펑(李鵬) 총리가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설이 난무한 가운데, 담당 부서인 수력자원부가 댐 건설에 배정된 엄청난 예산이 탐나, 댐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등의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댐 축조와 수력발전 시설 설치가 주공정인 2단계 공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댐이 완성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총 1백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에 잠겨 가는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자연 개조 계획에 따라 대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산사댐 공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됨에 따라 중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벌여온 “물과의 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기획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중국 55개 소수민족은 숫적으로는 불과 10% 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수이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종족이 많이 있다.

따라서 중국선교를 생각할 때, 소수민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호에는 윈난성의 소수민족 중 바이족과 완족,

광시좡족자치구의 좡족, 닝샤후이족자치구의 후이족을 다루었다.

윈난성의 소수민족(Ⅰ)

김중하

바이족(白族)

인구

1,594,827명(1990년 통계)

분포

중국 윈난성(云南省) 다리시(大理市) 바이족 자치주(白族自治州)에 80%가 거주하고 있으며, 쿤밍(昆明), 리장(麗江), 누장(怒江), 윈산(文山), 디징(迪慶), 추송(楚雄) 등 윈난성(云南省)의 서북쪽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기타 쓰촨(四川)성, 구이저우(貴州)성, 후난(湖南)성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언어

고유의 언어가 있고, 다리주(大理州)에서는 자기들만의 대화를 할 때 민족언어로만 이야

기하는데, 이 지역의 바이족(白族)은 95% 이상이 자기 민족의 언어를 할 줄 안다. 일부 지역(도시중심)에서는 한어(漢語)를 통용하고 있다.

바이족의 언어는 크게 세 가지 방언이 있다.

- 1) 젠촨추안(劍川)지역 중심의 중부방언(사용하는 인구 약 51만 정도).
- 2) 다리(大理)지역 중심의 남부방언(사용하는 인구 약 102만 정도).
- 3) 빼장(碧江)지역 중심의 북부방언(사용하는 인구 약 6만 정도).

북부방언은 다른 두 지역의 방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나, 남부와 중부방언은 서로 대화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문자

이전에 있었던 문자는 지금은 없어졌고, 한자(漢字)를 주로 사용한다. 널리 전파되지는 않았지만 자기 민족의 언어를 한자를 빌려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백문(白文)”이라고 부르며 “한자백독(漢字白讀-글은 한자를 사용하면서 바이족의 언어로 읽는다는 뜻)”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편 1958년 남부방언을 기초로 해서 <바이족 문자 방안(白族文字方案)>을 작성해서 바이족문자를 다시 만들려고 했었으나, 중부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해 잠시 보류되었다가, 1982년부터 다시 문자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때부터는 남부와 중부의 방언을 모두 고려해서 서로 언어가 다를지라도 한 가지 문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후 10여 년 간의 연구와 실험단계를 거쳐서 한가지 방언을 확정된 뒤 민족문자로 사용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다.

민족역사

바이족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 오래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 중의 하나이다. 전국(戰國)시대에 초(楚)나라의 군사들이 윈난지역으로 들어와서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본래 있던 민족들과 통혼을 했다. 한(漢)나라 시대에도 윈난으로 군사를 파견했는데, 이 때 많은 수가 윈난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고, 또한 전쟁을 피해서 도망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 사람들이 전국시대 이주해 왔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서우런(叟人)”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 “서우런”중에서 일부분이 나중에 변화의 과정에서 바이족의 선조가 되는 “바이만(白蠻)”을 형성했다.

8세기 중엽에는 난자오국(南詔國)이 파리얼하이(洱海)지역을 통일한 후, 파리국(大理國)을 거치는 500년의 통치가 있는 후 이 지역의 민족들은 점차적으로 한 언어와 풍속을 지닌 안정된 민족공동체가 되어 가면서 “바이런(白人)”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하나의 독립된 민족이 되었다. 이후 여러 가지 이름(白子, 白尼 등)으로 불리었으나 그 모든 이름의 의미가 한결같이 ‘백인’이라는 의미여서 1956년 바이족(白族)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바이족(白族)은 흰색을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옷도 흰색을 즐겨 입고, 가옥이나 담장도 하얀 색으로 칠한다.

지계(支系)

- 1) 민자(民家) : 대부분 파리(大理)에 집거한다.
- 2) 나마(那馬) : 윈난(云南)성의 랑핑(蘭平), 웨이시(維西)일대에 거주한다.
- 3) 러모(勒墨) : 누장주(怒江州)의 빼장(碧江), 니수이(瀾水)일대에 거주한다.
- 4) 칠성명(七姓名) : 꾸이저우(貴州)성에 거주한다.

생활

농업 위주이며, 얼하이(洱海-파리지역)에 있는 호수) 부근에서는 어업으로 생활한다. 손재주가 좋아 건축물, 조각물, 회화 등이 뛰어나며, 파리의 나염천은 매우 유명하다. 파리얼하이 지역은 관광으로 생활하기도 한다.

주요절기

바이족의 절기는 대부분 아름답고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전설이 있다. 이 전설들은 또한 한결같이 정의로움이 악한 것을 이기게 되는 내용들로 선을 사랑하는 바이족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족은 번주제(本主節)를 제외하고는 지정한 장소에 모여서 절기를 지내는데, 이러한 절기에 함께 모여 지냄으로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가 민족의 전통춤을 추고 있는 바이족



싼웨제(三月街, 음력 3월 15일 - 22일)

여기에서 제(街)는 장이 열리는 장소를 의미하는 토속어이다. 이 절기는 본래 민족들이 모여 불경을 강론하던 종교행사였는데, 행사를 진행할 때 서로의 편리를 위해서 온갖 물물교환을 하던 것이 점차 변해서 민족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절기가 되었다. 1년에 한 번뿐인 이 때에 커다란 장이 서며 예술, 체육활동 등이 함께 진행된다.

위탄후이(漁潭會, 음력 8월 중순)

파리 열하이 지역에서 열린다. 싼웨제와 비슷한 성격을 띤 절기로서 주로 어업에 관계된 활동이 있고, 어구(漁具) 등이 주로 매매된다.

훤바제(火把節, 음력 6월 24일)

서남지역의 많은 민족들이 이 훤바제를 지내는데, 바이족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훤바제는 폭압에 굴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 민족의 원수를 갚고 민족을 구한 영웅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라고 한다. 이 절기는 여러 가지 민족 전통 놀이(소싸움, 양싸움, 활쏘기, 경마, 극놀이, 씨름, 그네뛰기 등)가 행해지고, 밤에 있는 횃불행사는 장관을 이룬다.

번주후이(本主會)

번주후이는 각 마을마다 지키는 날짜와 방법이 다르다. 3월, 6월, 8월 등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키고 있으나 대부분 민족의 전통복장을 입고 진행하며, 첫째날 번주(本主)를 환영하는 의식으로 행사가 진행되어 1일~3일 동안 갖가지 민족 전통활동들이 진행된다(종교부분의 本主를 참고).

그 외에 바웨거후이(八月歌會), 창신제(嘗新節), 얼웨바(二月八), 스바오산거후이(石寶山歌會), 라오하이후이(繞海會), 청구냥제(靑姑娘節) 등의 절기가 있다.

건축특징

바이족의 가옥은 구조나 장식하는 모든 면에서 한국의 전통가옥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가옥은 목재를 사용한 건축물이며, 2층으로 되어 있다. 가옥은 평면으로 볼 때 ㄷ자 형태로 되었다. 중앙부분의 1층은 중앙에 손님을 접대하는 거실이고, 양쪽의 방은 침실이며, 2층은 대부분 작업실과 창고로 사용된다. 그리고 ㄷ자의 양쪽부분은 주방과 창고, 짐승을 기르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건축형태의 변화를 보면 이전에는 큰 가옥이었으나 지금은 작은 가옥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는 대가족제도에서 소가족제도로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바이족 아가씨들은 상의는 소매가 짧은 흰 색 옷을 입고, 검은 색 옷깃이 있는 겹옷을 입는다.

복장

다른 민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에 있는 바이족은 다른 민족의 영향을 받아 전통복장에 변화가 있거나 전통복장을 입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바이족만 모여 사는 파리의 시저우(喜州)나 저우청(周城), 쟈촨(劍川) 등지에서는 전통복장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남자

지역에 따른 전통복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

의 전통복장을 보기가 어렵다.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장소나 민족절기의 행사 때에나 볼 수 있다.

여자

여자는 비교적 전통복장을 지켜오고 있는 편이다.

얼하이 주변이나 동쪽 젊은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길러서 하나로 땀은 다음 바오터우(包頭)라는 두건을 한 바퀴 두른다. 손에는 은 팔찌를, 귀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귀걸이를, 그리고 은목걸이를 하는데, 이들은 은을 매우 좋아한다. 지금도 따리에 가면 은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장식품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사용하고 팔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의는 소매가 짧은 흰 색 옷을 입고, 검은 색 옷깃이 있는 겹옷을 입는다(어떤 사람은 소매에 넓고 좁은 장식된 천을 두르기도 한다). 그리고 화려하게 수놓은 앞치마를 하고, 하의는 바지를 입는데, 대부분 바짓가랑이에 흰 색, 옅은 녹색, 남색 등의 천으로 둘러 장식을 한다. 신발은 꽃으로 수놓은 뾰족한 신을 신는다(지금은 이런 신발을 신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나이든 여자들은 검은 색 천을 머리에 두르고, 흰 색 내의를 입고, 남색 저고리를 입는다. 남색이나 검은 색 바지에 꽃신을 신는다.

얼하이 서쪽지역의 여자들은 머리를 틀어 올려 은장식품을 꽃고 검은 천으로 두른다(한국 여인의 쪽을 지은 모습과 비슷하나 비녀의 모양은 각양각색으로 종류가 많다). 상의는 앞이 짧고, 뒤가 길며, 목의 모양은 둥글고, 오른쪽 옷깃이 위로 가도록 된 옷을 입는다. 허리에는 허리띠를 두르는데, 양 앞섶에 그림이 있거나 꽃수를 놓은 색이 있는 긴 천을 이용한다. 바지는 비교적 짧고, 신발은 짚신을 신는다.

음식

바이족은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비교적 평지에 살고 있는데, 평지에 사는 사람들의 주식은 쌀과 밀이며, 산지에서는 옥수수과 감자를 주식으로 한다. 바이족 음식의 특징은 쌀로

만든 것이 많다는 것이다. 따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콰이(餌夫), 얼스(餌絲) 등이 모두 쌀로 만든 것으로 맛도 있고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식사용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음식은 샤오귀위(砂鍋魚)이다. 이것은 돌로 만든 냄비에 얼하이(洱海)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을 넣고 끓여 탕을 만드는 요리인데, 돌냄비를 이용한다고 해서 '샤오귀위'라고 부른다.

바이족은 시고, 차갑고, 매운 것을 좋아하는데, 한국의 김치종류를 좋아한다. 이들도 모양이 긴 한국의 깍두기 같은 김치를 만들어서 먹고 팔기도 하는데 따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한족이나 다른 민족들과 달리 차갑게 무쳐서 먹는 것을 즐긴다. 요리 방법에 있어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

결혼풍습

일부일처제이며, 동성(同姓)간에는 결혼을 금하고 있다.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비교적 개방적이다. 과거에는 부모 중심으로 중매인을 통해 서로 소개받아서 결혼하였으나 지금은 자유연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바이족은 음력으로 11월과 12월에 결혼하는 것을 선호한다.

바이족 결혼 풍습 중에 특이한 것은 결혼 당일엔 신부는 자기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신랑 측에서 사람들을 보낸다. 신랑 측에서 보내는 사람들은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선물을 갖고 비교적 화려하게 장식한 마차(지금은 자동차를 이용하든지, 농촌일 경우는 경운기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를 타고 가서 신부를 데려온다. 이때 말의 머리에 붉은 천으로 둘러 길상을 뜻하는 장식을 한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의 집이 있는 마을까지 오면 마을 입구에서 마차에서 내리고 신랑이 신부를 업고 집으로 간다. 어떤 지방에서는 등을 서로 맞댄 모습으로 업고 간다. 그 의미는 결혼해서 일생동안 떨어지지 말고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뜻이다. 집에 도착해서는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한바퀴 돌고 들어가는데, 그들의 생활이 불꽃처럼 타오르

라는 의미이다. 집에 들어가면 회고 통통한 아이를 낳으라는 의미로 신부가 땅콩과 커다란 대추를 먹는다. 그런 후에야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부모에게 인사를 한다.

장례풍습

바이족은 명나라 이전에 불교의 영향을 받아 화장을 주로 했으나 청나라시기에 와서 나무관을 사용하여 매장하는 습관으로 바뀌었다. 현재에도 파리의 얼하이를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보면 파리시 건너편 쪽으로 많은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파리시 서쪽으로 있는 창산(蒼山)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많은 무덤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무덤을 매우 중요시하는 편으로 가족들이 나들이겸 절기마다 찾아가서 조상들의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묘를 관리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다.

교육상황

다른 민족에 비해 문화가 일찍 발전했던 민족이지만 지금의 교육수준은 그리 높지 못한 형편이다. 1982년의 통계에 의하면 대학졸업자가 전체 인구의 0.4%이며 중국의 56개 민족 중에 24위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졸업자 3.5%(25위), 중학교 졸업자 12.8%(20위), 초등학교 졸업자 33.6%(18위)로 나타나고, 문맹, 또는 반문맹(漢字를 해독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는 인구는 49.65%(23위)로 높은 문맹률이다. 이는 한어(漢語)를 못하고 자기 민족 언어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보여진다.

1992년을 기준으로 파리시(大理州)에 대학수준의 학교가 2개(大理師範專門學校, 大理醫學院), 일반 중고등학교가 208개(중고등학교가 모두 있는 학교가 36개, 중학교만 있는 학교가 172개), 농업직업학교가 13개, 전문과정(예를 들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을 마친 후에 고등학교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는 위생학교를 진학한다) 학교가 7개, 초등학교가 2,144개, 분교가 2,416개가 있다.

종교 상황

번주(本主)

번주는 바이족의 전통종교로 가장 오래된 종교이다. 거의 모든 마을마다 번주를 모신 사찰이 있다. 바이족은 번주가 민족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낸 민족의 영웅으로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기도 하며, 번주는 일반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감각과 감정을 갖고 있으며 자기들의 모든 일 속에 개입하여 돕는다고 믿고 있다.

불교

당(唐)나라 시기에 전래되어 원(元), 명(明)나라 시기에 발전하여, 지금은 바이족의 주요 종교가 되었다.

도교

한족과 잡거하게 되면서 한족의 영향을 받아 도교가 들어왔는데 적은 수가 믿고 있다.

기타

이 외에도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이 있으나 이슬람교는 파리 지역에 있는 회족들이 주로 믿고 바이족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파리지역의 교통의 편리함으로 인해 한때는 부흥하기도 했다.

종교적 태도

바이족은 비교적 다른 종교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종교를 갖고 있으며 다른 종교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종교로 인정할 뿐이며, 자신이 개종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종교가 혼합되어 또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원인은 파리가 일찍부터 발전한 지역이라서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문화와 종교방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상황

1881년 중국내지선교회 소속의 영국선교사가 파리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해서 많은 열매

를 거두었다. 나중에는 안식일교회, 성공회 등에서 선교사가 들어와 활동을 하기도 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약 5만 명의 신자가 있다고 하기도 하나 그 숫자는 따리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의 신자들의 통계인 듯 하다. 예를 들어 따리에 윈난성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있으나 지금은 40~50명 정도의 교인 중에 바이족은 10여 명도 채 안된다. 그리고 샤관(下關), 켄촨(劍川), 얼두(弥渡), 웨이산(巍山) 등 다른 지역에도 교회들이 있으나 대부분이 한족들이고 바이족 신자는 그리 많지 않다.

1982년 종교국의 통계에 의하면 바이족의 기독교 신자는 2,100명 정도이고, 교회당은 8개이며 교회를 짓지 못하고 신자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이 11곳이 있다. 이들은 비록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정부의 허가를 얻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 교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종교국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바이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 중이다.

여행정보

따리지역으로 바이족을 보기 위해 여행을 할 경우

얼하이 부근

따리 고성(古城)과 얼하이(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바이족의 전통차(산다오차, 三道茶)를 마시면서)에서 바이족의 음악과 무용 등을 통해 그들의 문화와 복장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다. 시저우(喜州), 저우청(周城) 그리고 샹핑(沙坪)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바이족 전통시장에 가서 보면 바이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켄촨(劍川)

바이족의 집거지 중에서 도시화되지 않은 전통 풍습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바이족의 조각 기술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종교인 번주(本主)와 불교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절기에 맞추어서 간다면 절기

를 지키는 본래의 풍습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기타 지역

따리(샤관:下關)에서 그리 멀지 않으므로 하루 정도씩 다녀보면서 조사할 수 있다.

바이족의 전통적인 모습이 가장 많이 보존된 곳은 따리주 검천현(大理州劍川縣)이고, 따리시에서는 시저우(喜州)와 저우청(周城)이 바이족 만이 모여 살면서 도시 속에서 민족 전통의 것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마을이다.

따리 고성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는 마약을 하기 위해 따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 마약을 구하기가 쉽고 외국인 이 많으며 장기간 휴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걱정되는 것은 외국인들만이 아니라 호기심과 영어를 배우기 위해 그들과 접촉하는 중국인들까지 마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도제목

1. 바이족을 위한 복음전도자가 한족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2. 경제와 마약을 수단으로 하여 이 민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체계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 부숴지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3. 진행 중인 성경번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참고서적

1. 大理白族自治州概况, 云南民族出版社
2. 大理四十年, 云南民族出版社
3. 大理州年鉴, 云南民族出版社
4. 白族社会历史调查(1-4), 云南人民出版社
5. 白族简史, 云南人民出版社
6. 云南简史, 云南人民出版社
7. 白族本主文化, 云南人民出版社
8. 中华民族, 华夏出版社
9. 中国少数民族概观, 天津古籍出版社

인족(佤族)

인구

351,974명(1990년 통계)

분포

원난성의 창위엔(滄源)과 시명(西盟)이 와족(佤族)의 주요 집거지(58%)이고, 명련(盟連), 경마(耿馬), 란창(瀾滄), 쌍장(雙江) 등지에도 분산되어 있다. 이들은 해발 1,000~1,500m, 또는 그 이상의 산에서 사는 산지민족이다.

언어

언어는 크게 3가지 방언이 있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 1) 반홍(班洪), 진강(鎮康) 등지에서 사용하는 “와(佤)”방언으로 다이족(傣族)의 문화와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2) 창위엔(滄源), 경마(耿馬), 란창(瀾滄) 등지에서 사용하는 “뿌라오커(布儺克)”방언으로 한족의 문화와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3) 시명(西盟), 명련(盟連) 등지에서 사용하는 “아와(阿佤)”방언으로 아와산(阿佤山)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들은 외부와의 교류가 적고, 본래의 전통문화와 언어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한어(漢語)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다른 민족에 비해 한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적다.

문자

문자는 정부가 뿌라오커(布儺克) 방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준 것과 선교사가 만들어 준 것(기록에 의하면 1930년대에 용원썬(永文森)이라는 중국이름을 가진 영국 선교사가 병음문자를 만들어 줌)이 있는데, 이 문자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다가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의 수

가 적어져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지계(支系)

와족의 본래 이름은 “바이푸(百濮)”였다. 선진(先秦)시절부터 그렇게 불리웠다. 바이푸는 수(隋)나라시절부터 청(淸)대에 이르기까지 점차로 발전하면서 부랑(布朗)족, 더앙(德昂)족, 와(佤)족으로 나뉘게 되었다. 오늘날의 와족은 더 나뉘어 3개의 커다란 언어(言語)군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뿌라오커(布儺克)

창위엔(滄源), 경마(耿馬), 누장(雙江), 란창(瀾滄) 일대에 살고 있으며 漢族의 언어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아와(阿佤)

시명(西盟), 명련(孟連) 일대에 살며 와족의 언어와 문화특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와(佤)

반홍(班洪), 진강(鎮康) 일대에 살고 있으며 다이족의 언어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위의 3지계 외에도 바오커(巴敖克), 바편커(巴芬克), 아와(阿臥), 웨이푸(位弗), 레이와얼(勒佤爾), 공와(龔佤) 등이 더 있으며 비교적 많은 지계로 나뉘어 진다.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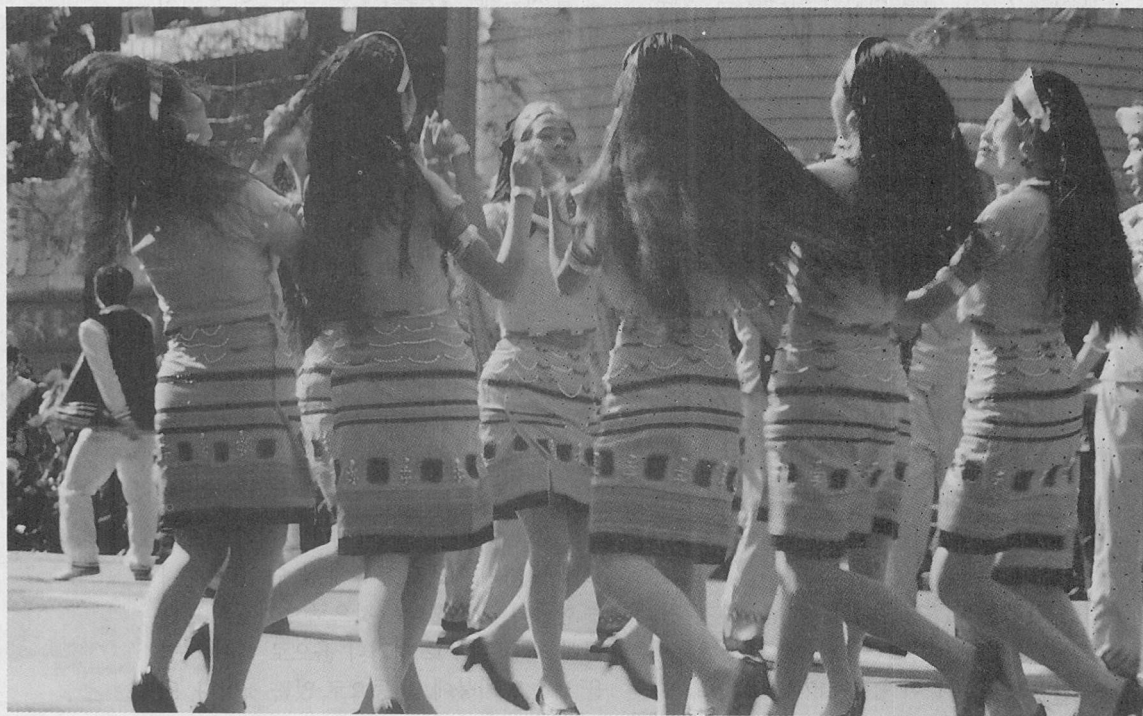
와족들이 사는 지역은 대부분 산지이기 때문에 농업, 수렵, 수공업 등이 주된 경제를 이루고 있다. 수렵 위주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최근에는 정부의 단속으로 경제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절기

와족은 많은 전통절기들을 지내는데, 그 중에 어떤 절기들은 그들의 종교활동과 관계 있다.

신미제(新米節, 음력 7월-8월)

와족은 일반적으로 신미제를 두 번 지낸다.



와족 여자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는데, 땅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길러 늘어뜨린다(민속춤을 추고 있는 와족 아가씨들)

곡식의 첫 수확이 있을 때 첫번 신미제를 지내는데, “창신미(嘗新米-새로운 곡식을 맛본다는 의미)”라고 부르기도 하며, 와족의 말로는 “평아오”, “피아오”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모든 곡식이 다 익어 거두어들일 때 지내며 “츠신미(吃新米-새로운 곡식들을 먹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부르기도 하며, 와족의 말로는 “평팅”, “아오와”라고 부른다.

신미제는 마을의 행사가 아니라 각 가정의 행사인데, 지내는 시기는 매년 각 집마다 다르다. 그 이유는 매년, 집마다 곡식을 거두어들이게 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미제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시간 동안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절대로 금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어린이로 하여금 문을 지키도록 하여 손님이 찾아오면 어린이 안 계시니 다음에 다시 오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그러면 손님은 그 뜻을 알아듣고는 돌아간다. 제사의식이 끝나면 문을 활짝 열고 신미제(新米節)를 지낸 사실을 전 마을을 향해서 알리고 사람들을 초

청해 함께 즐겁게 지낸다. 이 때 방문하는 손님은 주인에게 선물을 준다.

평난니(崩南尼)

“평난니”는 와족의 신년이다. 이 절기를 지낼 때, 절기의 첫째 날에는 마을 밖으로 갔던 모든 사람과 짐승이 마을로 돌아오고, 밤에는 마을의 지도자들이 최고 지도자의 집에 함께 모여 새해맞이 계획을 세우며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생산활동, 사고, 재난 등을 돌이켜보고, 1년 동안 마을의 생산활동이나 대소사를 계획한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 3시경에 일어나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찹쌀로 밥을 짓고 “바바(찹쌀로 만든 떡의 일종)”를 만든다.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과 청장년 남자들은 마을의 최고 지도자의 집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낸 후에 “난니(南尼)”밥을 같이 먹는다. 아침행사가 끝나면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새해인사를 하고 서로 초정도 하고 방문도 하면서 즐겁게 지낸다. 이 절기를 지낼

때 특이한 것은 잠을 자면서 머리를 꼭 동쪽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머리를 서쪽으로 향하고 자면 재난이 있거나 불길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궤파니엔(過大年, 음력 1월 1일)

이 절기는 한족들이 지내는 춘제(春節-구정)를 같이 지내는 것이다. 이 절기를 지낼 때에는 모든 마을이 일제히 총을 쏘는데, 좋은 한해가 왔다는 의미이다. 새해의 이른 아침부터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전통복장을 입고 마을의 광장에 모여서 “다거뤄(打歌羅-동근 원의 형태를 만들어 돌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활동)”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데, 며칠동안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한다.

취신헌(取新火, “평난니”를 지낸 후 첫 번째 달, 혹은 두 번째 달)

이 절기는 온 마을이 함께 지키는 절기로, 옛 불을 끄고 새로운 불로 바꾸는 마을의 활동이다. 이 절기를 지키기 전날, 마을에서는 집에 미리 옛불(지나간 한 해 동안의 모든 재난이나 불행의 원인을 의미하는 불)을 지퍼놓는다. 그리고 절기의 첫날 모든 사람들이 물을 이용해서 이 불을 끈다. 사람들은 숯과 작은 쌀이 든 상자, 양초 한 묶음을 들고 마을 최고 지도자의 집으로 가져간다. 그 자리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옛불의 숯과 하얀 털의 수탉을 한 마리 들고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온갖 저주를 한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닭을 잡아 죽이고, 옛불의 숯과 함께 구덩이에 묻는다. 이렇게 하여 과거의 모든 불행을 묻어버린다는 것이다.

옛불을 묻은 후에는 지도자들이 마을 한 곳 중심지에 모여 새로운 불을 취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새 불을 취하는 의식은 각 마을마다 다른데, 어떤 마을에서는 대나무를 비벼서 불을 일으키기도 한다. 불을 일으킨 후 쪼더미로 옮겨서 큰 불을 만들고 지도자가 먼저 그 불로부터 초에 불을 붙이고 붉은 수탉과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새 불을 각자의 집으로 가져간다.

그날 저녁에는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모여서 새 불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를 벌인다.

포수이제(潑水節, 음력 4월 중순)

외족의 포수이제는 비록 자기들만의 독특한 전설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본래 다이(傣)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다이족의 절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건축양식

외족들의 마을은 대부분 산허리나 산 정상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들은 400호 정도 되는 큰 마을도 있고, 30호 정도 되는 마을도 있다.

외족의 주택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한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초가집의 형태인데, 벽을 나무로 하거나 흙으로 해서 사면을 세우고 지붕에 짚 등으로 엮은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다이족의 영향을 받은 건축구조로서 대나무나 목재로 방을 만든 2층의 건물이다. 아래층에는 짐승들을 기르고 사람은 윗층에 거주한다. 대부분의 방들이 다이족의 영향을 받아 지은 것들이다.

방을 주인방과 손님방으로 나누어 사용하며, 문은 3개(鬼門, 火門, 客門)를 내는데, 귀문(鬼門)밖으로 베란다 형식의 공간을 만들어서 곡식이나 옷가지를 말리기도 하며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두는 곳으로 사용한다. 화문(火門)은 평상시에 출입구로 사용하는 문으로 귀문의 오른쪽에 있다. 귀문(鬼門)의 왼편으로 객문(客門)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어린이들이나 손님의 잠자리로 사용되고, 집안에 상(喪)이 있을 때에는 사체(死體)를 잠시 놓아두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외족들은 집을 지을 때 서로 도와서 짓고, 다 지으면 주인 집에 모여서 축하하며 지낸다.

복장

남자나 여자나 지역마다 다른 복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종류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한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지금은 전통복장과 일반

복장을 겸해서 입는데, 옷이 없어서 입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았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아직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다. 필자가 깊은 산 속의 마을에 갔을 때에는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어린이들은 팬티만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내의 상의만을 입고 있는지 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른들도 옷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저 겨우 부끄러운 곳만을 가리고 사는 정도이다.

남자-머리를 짧게 자르고 머리에 남색, 검은 색, 붉은 색, 흰색 등의 천으로 두른다. 상의는 옷깃이 없는 옷을 입고, 바지는 넓고 짧은 바지를 입는다. 손에는 은팔찌, 귀에는 귀걸이 그리고 대나무로 엮은 목걸이와 은목걸이를 하며 발에는 아무것도 신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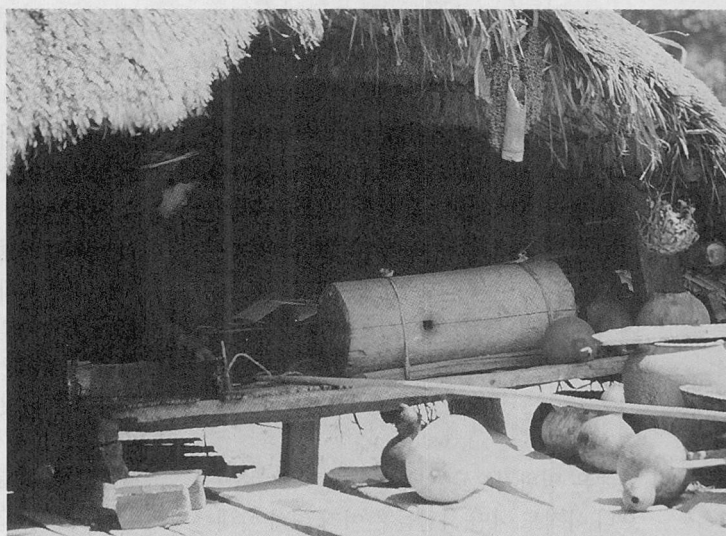
외출시에는 어깨에 장식용 천을 두르고 긴 칼과 사냥용 총, 활 등을 지니고 다닌다. 필자가 외족 지역을 처음으로 갈 때에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칼과 총을 갖고 타는 것을 보고 혹시나 범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놀랐던 적이 있다. 그러나 차에 오르자 서로 아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전혀 어떤 범행을 저지를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일상적인 생활 모습이었다. 물론 도시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남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지 않고 다니면 용기 없는 사람으로 보여진다고 한다. 칼과 활, 총은 남자들의 용맹스러움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과거의 외족 남자들은 몸에 문신을 많이 했는데, 문신 기술은 다이족의 도움을 받았고, 문신의 모양은 주로 물소의 머리모양, 새, 산람 등이었는데, 이것은 이들의 자연숭배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

여자

여자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는데, 땅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뒤로 하여 늘어뜨리고 은이나 대나무로 만든 띠 같은 것을 두르고 검은 천으로 다시 두른다. 귀걸이와 목걸이를 은으로 만들어 하고, 다른 보석도 구할 수 있으면 겸해서 장식을 한다. 허리에도 대나무로 허리띠

를 만들어 두르고 다리에는 대나무 등으로 감는다. 어깨 바로 아래의 팔 부분에도 은으로가락지를 만들어 끼우고, 손가락에도 은가락지를 끼운다. 상의는 옷깃이 없는 짧은 옷을 입고, 하의는 무릎을 덮지 않는 통치마를 입는다. 여자들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이 아니고는 신을 신지 않는다.

지금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외족의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매년마다 허리나 다리에 대나무 등으로 띠를 하나씩 두른다. 그래서 띠의 수를 헤아려 보면 그 사람의 나이를 알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나이의 개념보다는 장식의 의미가 더 있는 것이다. 필자가 외족 지역인 ○○현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현(縣) 소재지의 시장에 갔는데, 바로 다리에 이런 띠를 잔뜩 두른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모습이라 여겨져서 멀리서 그 다리의 모습을 사진에 담느라 고생한 적이 있다.



베틀에 천을 짜고 있는 외족 여인

전통음식

외족의 주식은 쌀이고, 옥수수와 콩류를 많이 먹는다.

매운 것을 먹는 습관이 있다. “매운 것이 없으면 밥이 맛이 없고, 소금이 없어도 역시 아무 맛이 없다”고 말한다. 한번은 시명(西盟) 지역에 가서 현(縣)정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였다. 그들은 닭죽을 매우 즐겨 먹는 데, 죽에다 매운 고추를 잘게 썰어 만든 양념을 첨가해서 먹는다. 필자도 그들이 하는 대로 먹었지만 삼키지도 못하고 뱉었다. 그렇게 매운 맛은 처음이었다. 웬만하면 손님이고 또 매운 것을 먹고 자라난 한국 사람인지라 먹고 버텨보려고 했으나, 그 매운 맛은 상상을 초월했다.

빈랑(檳榔)을 씹는 습관이 있다. 외족은 남방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빈랑을 즐겨 씹는 민족이다. 이들은 빈랑을 씹으면 이가 튼튼해진다고 믿고 있으며 이가 검은 색으로 변하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여긴다. 빈랑은 이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씹는 것이다.

수이주(水酒)를 즐겨 마신다. 이 술은 곡물로 만든 민족의 전통 술인데, 손님을 접대할 때 이 술이 없으면 안되며, 음료를 대신해서 마시기도 한다.

가족제도

외족의 가족 형태는 일부일처제와 핵가족 중심제이다. 부모의 재산은 대부분 작은아들이 상속하고 딸은 상속권이 없다. 부자연명제(父子連名制-아버지의 이름자 끝자를 아들의 이름자 첫 자로 삼는다)의 습관이 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의 첫 조상의 이름은 “쓰강(司崗)”이라고 짓는다. 그 의미는 조상이 호로병에서 나왔거나 석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혼제도

외족은 일반적으로 일부일처제를 택하고 있으나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기도 한다. 그리고 동성(同姓)간의 혼인을 절대로 금한다. 만약 동성간에 결혼이 아니라



외족 남자는 여자의 부모가 허락을 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
(사진은 건강미 넘치는 외족 아가씨)

성관계만 발견되어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동성간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귀신’을 노하게 하는 것이며 귀신이 노하면 그들과 한가지 성(姓)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물론 마을에도 재난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 어떤 재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이 방면에서부터 조사한다.

기록에 의하면 1957년 봄 시명(西盟)지역의 용광(永廣)이라는 마을에 가뭄이 있을 때 마을의 지도자가 그 원인을 동성간의 성관계에 있다고 보고 사람들을 시켜 곳곳에서 감시를 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동성간의 성관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나무북을 두드려서 전체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너도나도 칼을 들고는 닥치는 대로 가족들을 죽였다(이것은 이들의 일종의 풍속이었는데, 이렇게 죽이고 난 후에 범행자의 집에서 그 모든 가족들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 발각된 사람들은 도망했고, 그 집에서 마을의 모든 죽임을 당한 가족값을 배상했다.

“촨구냥(串姑娘)”은 외족의 남자가 여자에

게 구혼을 하며 연애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환구낭(串姑娘)시에 남자는 여자에게 빈랑을 주고 서로 정가(情歌-사랑을 주고받는 노래)를 부른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단체 활동 중에서 마음이 맞아 개별적인 연애를 하려 할 때는 공방(公房-혼기에 이른 남녀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 여자의 집에 가거나 여자의 집 근처에서 함께 잠을 잔다. 이때 좋은 꿈(큰 나무 숲이나 바나나 숲을 보는 등)을 꾸면 결혼을 하고, 나쁜 꿈(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등)을 꾸면 서로 다른 상대를 찾아 나선다. 이 때 함께 잠은 자지만 성관계는 갖지 않는다. 만약 성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게 되면 엄한 처벌(가산을 몰수하기도 함)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이런 연애과정을 거쳐 서로가 결혼하기를 원하면 남자가 여자의 부모에게 인사를 가서 허락을 받는다. 여자의 부모가 허락을 해야만 결혼할 수 있다.

장례

와족은 사람이 죽었을 경우, 남자가 죽으면 총을 쏘고, 여자가 죽으면 징을 쳐서 알리고 3일장을 지낸다. 어린이가 죽으면 아무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당일에 매장한다. 와족의 장례방법은 일반적으로 토장(土葬)이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안이나 마을 근처에 매장한다. 그 이유는 이전에 시명(西盟)지역의 와족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의 목을 베어다가 제사를 지내는 습관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의 목을 베어가기도 했기 때문이다. 와족(佤族)은 부부의 합장을 하는 일이 없고, 그들의 신앙의 관계로 인해 죽은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함께 묻는 습관이 있다.

종교 상황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으며 자연숭배의 신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물소를 가장 숭배한다. 물소를 숭배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생활에서 물소만큼 자기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며 도와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소는 도움을 주면 주었지 절대로 사람에게 해가 되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게 되었고, 가장 숭배하는 대상으로 변했다. 그래서 마을마다 입구에는 꼭 물소의 해골이 걸려있고, 어떤 집은 집의 지붕이나 문의 입구에 물소의 해골을 걸기도 하고 물소 머리모양의 장식을 달기도 한다.

기독교 상황

기록에 의하면 1912년 미국침례회에서 파송된 용웨이리(永偉里) 선교사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지금의 란창현(瀾滄縣)에 속하는 시우푸(糯福) 지방의 일부 땅을 사서 교회도 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란창(瀾滄)과 창위엔(滄源)지역에 많은 성도가 있었는데, 1960년 이전에 약 2만 명 가량의 와족 신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로 1966년 통계에 의하면 창위엔(滄源)지역에 93개소의 교회가 있었고, 약 1만 5천 명 정도의 신자가 있었으며 74명의 전도사가 있었다고 한다. 일부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한다.

기도제목

1. 민족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될 수 있도록
2. 이 민족들을 억압하고 있는 악령의 세력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무너지도록

참고서적

1. 中華民族, 華夏出版社
2. 中國少數民族概觀, 天津古籍出版社
3. 佤族風俗志, 中央民族大學出版社
4. 佤族簡史, 云南教育出版社
5. 佤族, 民族出版社
6. 西盟佤族自治縣概況, 云南民族出版社
7. 滄源佤族自治縣概況, 云南民族出版社
8. 耿馬傣族佤族自治縣概況, 云南民族出版社
9. 盟連傣族拉祜族佤族自治縣概況, 云南民族出版社

김중하/ 중국선교사, 본지 편집위원

복음으로 찾아내야 할 사람들, 좡족

I.Z.M

특별한 한 사람

매일 점심과 저녁 때 펑(馮)씨는 그가 경작하는 밭에서 마을로 들어와 대나무 장막에서 혼자 라디오를 들으며 성경을 읽는다. 이 마을에서 유일한 기독교인인 그는 라디오의 복음방송 프로그램과 가끔씩 들르는 외지의 기독교인들로부터 힘을 얻고 신앙성장에 도움을 받고 있다.

펑씨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안에 거주하고 있는 1,600만의 좡족인 중의 한 사람이다. 좡족은 오랜 세월 외부와 접촉되지 않았던 민족이다. 그들은 자신의 언어인 좡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다. 세계에서 자기 문자로 된 성경이 없는 가장 큰 언어집단이 바로 좡족인 것이다. 좡족 중에 기독교인은 겨우 몇천 명으로 0.19%밖에 안 된다. 좡족이 ‘숨겨진 민족’이라 불리우는 것은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대외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때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도시와 농촌의 좡족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

펑씨의 남동생 중 한 명이 대도시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영어교사의 인도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후에 그가 펑씨에

게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해 펑씨도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었다. 현재 몇 명의 크리스천 교사들의 개인 전도, 그리고 라디오 및 영화 ‘예수전(예수의 생애)’ 등을 통해 좡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좡족의 생활

좡족은 주로 중국의 매우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다.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내려온

신앙을 신봉하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에 정령이 존재한다고 믿어 돌, 나무, 땅, 새, 그리고 조상을 숭배한다. 또한 신령이 생명을 지배하며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신령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아직까지 무속, 마술 및 무당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좡족인은 오히려 무신론자로 변해버린다.

좡족의 주요 문화는 노래와 공예, 그리고 자수이다. 좡어(壯語)는 태국어와 비슷한데 50여 종이 넘는다. 도시에 거주하는 좡족 사람들은 좡어 외에 표준어 혹은 광둥어를 구사한다. 농촌에 사는 좡족의 대다수는 농민으로 주로 쌀, 보리, 채소 등을 지배하는데, 늘 가뭄과 홍수의 위협에 처해있다.

어떻게 좡족에게 다가가 수 있을까?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은 한족이 사는 곳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다. 특히 위생과 교육에 관한 문제는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광시좡족자치구의 구이린(桂林)은 세계적으로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유명 관광지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경관 뒤에 어

두운 절망이 도사리고 있다. 한 좡족 학생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비록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신론 사상에 의해 세뇌를 받았지만, 나는 늘 마음 속 깊이 이 세계는 참 신이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다. 당신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참 신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됐다.” 사실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이처럼 주님을 알게 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 혹은 당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좡족을 향한 복음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면 아래 몇 가지를 고려하기를 바란다.

▲ 현재 많은 대학의 교사 자리가 비어있으며 의과대학과 농촌 훈련센터들도 의사와 간호사, 치과 의사, 기타요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 중 80%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들이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된다면 그들은 곧 ‘좡족 전도사’의 신분으로 고향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 광시자치구로 여행을 하는 해외 크리스천인이 있다면 일부 기독교 단체를 통해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 현재 광시좡족자치구 소수민족 지역에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천 상인들이 이곳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 해외의 크리스천들이나 교회의 신중한 헌금은 좡족인 학교와 교회, 진료소에 도움을 준다. 또는 중국 삼자교회에 제공하여 이들이 좡족인을 위해 진행하는 훈련과정에 쓰도록 할 수 있다.

1,600만 좡족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 몇 가지가 실행 가능한 사역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국민, 그리고 국가에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중국의 최대 소수민족에게 도전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좡족이다.

I.Z.M. 필자는 줄곧 좡족인의 복음 전파사역에 관심을 갖고 실제적인 탐사와 연구를 진행했으며, 현재 개인이나 단체들의 좡족인에 대한 복음사역을 힘을 다해 돕고 있다.

출처/「守望中華」136期 원제: 隱藏的壯族

번역/ 신호정 · 중국어문선교회 자원봉사자

복음을 기다리는 좡족

배경

좡족(壯族)은 본래 태국인으로 원적(原籍)은 태국과 월남이다. 중국 전역에 1,600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그 중 90%가 광시좡족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농부로 깊은 산골에 살고 있으며, 소수만이 광시좡족자치구의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언어

좡어와 중국어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 50년대에 국가가 자모음을 제정하기 전에는 글로 옮길 수가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인된 문자가 없다. 대다수의 좡족인은 광둥어와 표준어를 구사하고 읽을 수 있다.

종교

좡족은 범신론자들로, 만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지만 도시에 사는 대다수의 좡족인은 무신론자이다. 광시좡족자치구에는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들은 농촌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좡어로 된 성경이 없다.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교회 이외의 장소에서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며, 그나마 이런 건축된 교회는 주로 한족이 거주하는 곳에 분포되어 있다.

지도제목

- ▶ 좡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 좡족 신도 중에 지도자와 목회자가 배출되도록
- ▶ 좡족 신도들을 위한 더 많은 지도자 훈련의 기회가 생기도록
- ▶ 세계 각지의 사역자들이 좡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 좡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보호해 주시도록
- ▶ 좡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자들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도록
- ▶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좡족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참여해야 하는 분명한 뜻을 주시도록

이슬람의 철벽을 넘어 후이족에게 복음을!

후이(回)족은 어디에서 왔으며 조상은 누구이고 관습과 문화는 어떠한가? 거주하는 곳은 어디이고 복음사역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가? 다음은 후이족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페르시아와 아랍의 후예들

후이족은 본래 ‘시만(西蛮: SeMu)’이라 불렸으며 중동의 페르시아 및 아랍 민족의 후손이다. 당나라 시대인 AD 618년에 중동의 상인과 회교도 군인 및 무역상인들이 그 유명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서북지역으로 들어왔다. 이외에도 수로(水路)를 통해 동남부로 들어와 각자의 이상을 추구했다. 8세기에 달할 때까지 외지로부터 물려온 적지 않은 회교도들이 중국에 거주하게 됐으며, 이들은 한족과 통혼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왔다. 당시 이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후에는 아랍어를 사용했다. 중국인들은 이들을 줄곧 이방 민족으로 여겼고, 이후 명대(1388-1644)에 이르러 후이족의 역사는 암흑기를 접어들게 된다.

명조가 망하고 원나라가 들어선 후에 중국 후이족 사회와 외부와의 벽은 더욱 두터워졌

으며, 후이족의 사회 특성 또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들은 이방 민족과 동화함으로써 본 민족이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① 중국 문자가 페르시아 문자와 아랍 문자의 위치를 대신하게 됐다.

② 한족(漢族) 성씨를 채용했다. 예를 들어 마(馬), 매(梅) 등...

③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중국인의 생활 습관을 따랐다.

④ 중국에 건축한 청진사(淸眞寺, 이슬람교 사원)는 중국식 건축양식을 띠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후이후이족(回回族)”이라 불리었다.

이들은 만청(청조: 만주인이 세운 청나라) 청대부터 문화대혁명까지 줄곧 핍박을 받았다. 수백만에 달하는 후이족들이 살해를 당했고 이슬람교 사원은 훼손되고 문물 단절되었다. 아랍어 사용이 금지되고 코란이 불에 태워졌으며 지도자들은 숙청을 당했다.

1958년에 중국 정부는 후이족 거주지를 자치구로 승인했는데 현재의 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가 그것이다. 후이족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양식과 교육의 보조를 받고 있고 한 자녀만 낳아야 하는 중국정부의 가족계획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후이족

중국 대륙 전역에 약 900만 명의 후이족이 분포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省), 현(縣), 시(市)마다 후이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중국의 북부와 서북부의 각성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수는 다음과 같다.

닝샤 1,600만, 간쑤 1,100만, 허난 90만, 허베이 50만, 산둥 50만, 칭하이 70만, 윈난 55만, 신장 70만, 랴오닝과 안후이 35만 등이다. 네이멍구와 시안, 베이징시 안에서는 좡족, 만족과 더불어 중국 3대 소수민족 중의 하나이다.

생활과 풍습에 녹아 든 이슬람

이전부터 현재까지 아홍(阿訇 Ahong: 본래의 뜻은 교사인데, 회교도 가운데에서는 이슬람교 성직자의 칭호로 쓰임-역자 주)이 신생아의 이름을 짓고 결혼과 장례를 주관한다. 후이족의 생활은 각 방면에서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음식은 더욱 그렇다. 돼지고기의 식용을 금지하고 굶이 갈라진 동물과 피는 먹지 않는다. 후이족들은 통상적으로 그들의 풍속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데 주로 식당과 식품점 등이다.

철저한 이슬람 신앙

후이족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민족이다. 그들의 신앙에는 다섯 가지 가르침이 있다.

1. 알라를 참 신으로 믿으며, 무하마드는 참 신의 선지자임을 믿는다.
2. 매일 다섯 차례 기도를 드리며 특별히 금요일과 회교 성일에는 반드시 기도한다.
3.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
4. 샤움(Saum-금식)월(月)을 지킨다.
5. 성지 메카를 참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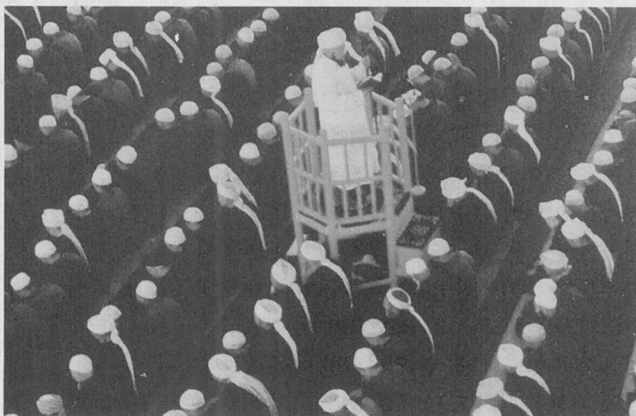
1979년부터 중국의 회교도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닫혀진 사원을 다시 개방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약 4만여 곳의 사원이 있는데 그 중 신장위구르자치구 일대에 14,000여 개의 사원이 있으며 현재 아랍어 학원이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부유한 회교도는 메카를 순례하는 기회를 더 얻게 된다. 중국 정부는 이슬람교의 부흥운동과 매일 성장하는 회교도주의의 행동을 매우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신장과 닝샤에서 몇몇 극단주의 회교도들은 동티무르의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복음을 위해 넘어야 할 산들

후이족을 향한 복음사역은 「중국내지회」 및 스웨덴에서 파견한 단체가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34년에 미국의 이슬람 선교사 해진생(海進生)이 칭하이(青海)성 현 정부로부터 25ha의 토지를 구입해 칭하이에 독립된 거점을 설립하고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7개의 방이 있던 이 건물은 당시에 왕래하던 회교도를 접대하기에 편리했다. 매일 4명에서 6명의 회교도 교사가 이 곳에서 회교 경전을 가르쳤다. 이런 복음전파의 효과가 어떠했는지 의구심을 가질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이런 계기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싸(加薩) 부근의 신도들이 전쟁과 핍박으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다. 현재는 몇 명의 위구르인과 25명에서 30명 정도의 회교도와 카자흐스탄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아 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중국 서북부 지역에 매우 부흥하고 있는데, 한 한족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 신도들은 회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한족에 대한 회교도의 부정적인 선입견이 무척 깊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한족은



알라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후이족들. 중앙 강단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이슬람 지도자 아홍이다.

“우상을 섬기고 돼지고기를 먹는 핍박자”이며, 후이족을 핍박한 적이 있다. 한족들은 회교도가 주님을 영접한 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 집회에 참석시키는 일이 매우 힘든 일임을 발견하게 된다. 신장자치구 정부의 명문에는 회교도가 배신하여 기독교로 개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산당 종교조례 및 회교의 열정적인 압력하에 있는 한족인 신도는 큰 사람과 지혜로운 아들을 접해야 한다. 25~30명의 후이족 신도는 같은 민족끼리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다. 이들은 현재까지 한족인 신도와 가정에서 함께 집회를 갖고 있다. 이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외족의 가정에 가는 것이므로 회교신도의 믿지 않는 부모들이 매우 싫어하는 일이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합당한 예배장소를 공급해주시고 지속적인 양육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한다. 이들은 95%가 청년들로 같은 민족의 압력에 대응할 안정된 위치에 놓여 있지 않다.

지난 3년 동안 후이족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역자는 두세 명에서 20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모두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갖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근래 세계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40 창’이라는 세미나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사역자를 선택하셔서 후이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일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될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가 부르신 사역자들을 도와주셔서 이들이 헌신하며 연합하여 회교도들을 섬기길 바란다.

해외의 극동방송은 이미 위그르어와 표준 중국어로 된 기독교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있으며, 이것이 조금씩 결실을 거둬들이고 있다. 필자는 이전에 후이족신도와 연결이 되는 한 신도를 만났는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50세가 된 한 후이족신도는 신앙이 매우 뜨거워 지역의 이슬람교 사원 지도자와 예수에 관한 일을 변론했다. 그는 현재 이러한 이유로 종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행위는 이미 종족의 극심한 분노를 사고 있으므로 그



후이족 신도에 대한 양육사역은 그 지역 기독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의 신변안전과 매일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후이족 신도에 대한 지속적인 양육사역은 그 지역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회교도들에게 전도하려는 기독교 단체들이 있다면 그들이 볼 수 있는 책자들을 발행하거나, 중국의 기독교인들일 경우 중국 내 후이족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회교도 기독교인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케 하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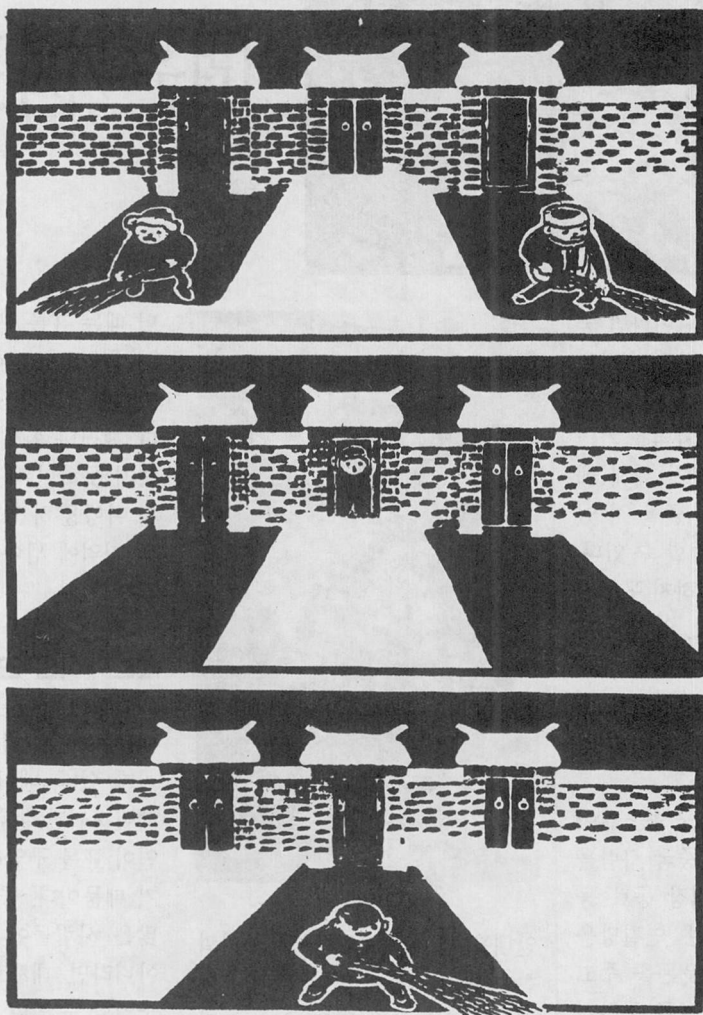
필자는 중국 북부의 5명의 회교도 신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스승(교사)들로 인해 주님을 알게 됐다. 주님이 각각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더 많은 해외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가르침의 현장에 도전하기를 바란다. 필자가 방문했던 신도들은 대부분 이 타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주님의 보호가 있길 기도한다.

출처/「守望中華」136期 원제: 認識回族

번역/ 신호정 · 중국어문선교회 자원봉사자

내 집앞만 쓸자(自掃門前雪)

판리푸(范立夫)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그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묶여 있던 개인의 욕망이 함께 분출되는 중국사회. 경제 개방도 좋지만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개인주의 물결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오늘도 중국인은 눈 내린 문 앞을 열고 이렇게 외친다. “우리 집 앞만 깨끗하면 되지 뭐!”

중국 체험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기차표 사기

석은혜



중국 여행을 해 본 사람이라면 중국 여행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기차표를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느 기차역을 가더라도 승차표를 구입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서 구불구불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표를 구입하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역 앞에서 잠을 자면서 표를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미 그런 생활에 습관이 되어 버린 듯 불평 한마디 없이 잘 기다린다.

기차역에서 기차표 구하는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일가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관시(關係)’로 연결된 연결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웃돈을 주고 암표를 산다. 결국 차표를 구하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거나, 전혀 관시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거나, 외국인 뿐이다.

외국인들이 단체로 중국을 여행할 때, 중국 여행사를 이용해 여행



안내를 받고 기차표 구입을 의뢰하면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여행사에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려면 기차표를 구입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

나는 베이징에 거주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여행을 많이 다녔다. 친구들과 같이 다

닐 때는 표를 구하지 못해도 서로 의지가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에 그다지 걱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자 여행할 때 표를 구하지 못하면 매우 조급해진다. 혼자 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것 중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엔벤에서의 곤혹

베이징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발할 때는 그래도 비교적 표를 구입하기가 쉽다. 베이징잔(北京站)이나 베이징쑤잔(北京西站)에는 외국인인 표를 구입하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공휴일이나 명절 등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쉽게 기차표를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여러 지역을 여행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때와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올 때이다.

한번은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엔벤을 방문한 일이 있다. 엔벤

으로 가는 표는 북경난잔(北京南站)에서 사야하는데, 그 역에는 외국인들이 표를 사는 곳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중국인들과 같이 한참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표를 구해야 한다.

오랜 시간 기다린 보람도 없이 표를 구하지 못하고, 다시 베이징 잔으로 가서 선양(瀋陽)으로 가는 표를 구해서 선양에서 다시 연변 가는 표를 구해 가게 되었다. 다행이도 선양에서는 비록 압표이긴 하지만 표를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어떻게 가진 갔는데 오는 것이 문제였다. 연변에서 베이징까지 비행기를 이용하면 2시간 정도면 올 수 있지만, 그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아 형편상 부득불 기차를 이용해야만 했다.

기차표를 사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번 연변역에 나가보기로 했다. 다른 역과 달리 사람들이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표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표를 파는 아가씨는 차갑게 “메이 여우(沒有)” 한 마디 하고는 더 이상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튿날 다시 역에 갔지만 역시 표를 구하지 못한 채 돌아와야만 했다. 역은 한산한데 왜 표가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결국 수소문하여 연변에 거주하는 한국 분이 알고 있는 조선족 중에 표 파는 사람과 친척 관계에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듣고 그 연결망을 통해 어렵게 표를 한 장 구했다.

그런데 돌아가야 하는 바로 전날 갑자기 일이 생겨 어렵게 구한

표지만 할 수 없이 반환하기 위해 밤에 다시 역에 갔다. 표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소에 가서 약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어리둥절 하고 있는데, 어떤 말쑥하게 생긴 조선족 청년 하나가 도와주겠다고 옆 건물로 안내해 주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 그런데 그 청년이 돌아가지 않고 “당신은 한국 어디에 살아요? 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끝없이 질문을 하면서 계속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역을 청소하던 조선족 아주머니가 조심하라며 귀뜸을 해주었다. 어쩐지 이상하다 느끼던 차에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나니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에게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와 헤어졌다. 반환할 때 공제하는 20%를 뺀 돈을 환불받고, 거쳐하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역을 나왔는데 그 청

년이 다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나는 조선족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역 안으로 들어가서 철로를 건너 반대편 쪽으로 한참 걸어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어둠 속에서 혼자, 길도 잘 모르면서 도망쳐 온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도 오싹해진다. ‘그가 접근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아, 다른 길이 있는지 백방으로 알아보았다. 마침내 기차표를 구입할 수 있는 호텔을 알게 되어 수수료 60원(元·한화 약 6,000원)을 지불하고 표를 구입해서 베이징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어리석음? 현명함?

한번은 정저우(鄭州)를 거쳐 뤼양(洛陽)에 들른 적이 있다. 여행을 마치고 뤼양에서 북경으로 돌아와



기차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국인들(정주역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중국인들은 역 앞에서 여유있게 표를 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야 하는데, 좀처럼 표를 구할 수가 없었다. 작은 도시에 이동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유를 몰랐었다. 한 중국인의 말에 의하면, 춘절도 지나고 봄이 오고 있으니 베이징 등 대도시로 직업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몇 번에 걸쳐 표를 구하기 위해 뤼양역에 갔지만 기차표를 사지 못하고, 표를 사기 위해 창구마다 길게 줄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뚫고 겨우 빠져나와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역을 찾아갔을 때, 표를 파는 창구에 여권을 들이대면서 외국인인데 좀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언젠가 상하이에서 그런 방법으로 표를 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방법이 통했는지 마침내 표를 살 수 있었다. 그런데 표를 자세히 보니 밤에 출발해서 이른 새벽에 도착하는 기차인데다 입석표가 아닌가? 장장 17시간 동안 서서 가야 하는 표였다. 17

시간 앉아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서서 가야하니. 안 되겠다 싶어 표를 다시 물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표를 반환하는 곳은 다른 창구로, 표 반환시 표값의 50%만 받을 수 있다고 크게 써 있었다. 그렇게 많이 손해볼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감시원의 눈을 피해,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한 중국인에게 접근해 조금 싼 가격에 그 표를 팔았다.

그 입석표는 팔았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막막하기만 했다. 역 앞에 멍하니 서 있는데, 한 중국 남자가 접근해 오면서 표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그가 안내한 바로 역 앞에 있는 작은 호텔에서 표를 팔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요구하는 웃돈이 너무 비싸다는 사실이었다. 원래 가격에 100원(한화 약 1만 원)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었다. 흥정을 하여 겨우 80원으로 낮추었다. 호텔 아가씨는 돈을 먼저 지불하고, 떠나는 날 표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중국인을 사랑하자고 늘 생각하면서 인내를 배워가고 있었지만, 그 날 내 인내는 한계에 도달하고야 말았다.

“외국인에게 이렇게 비싸게 표를 팔아서야 되겠느냐. ... 왜 표를 창구에서 팔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파느냐?” 등등. 그런데 나의 말이 자존심 강한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나 보다. 갑자기 나에게 표를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미 써 주었던 영수증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나도 사정해서 다시 표를 구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격이 되고 말았다. 결국 기차표를 사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기 위해, 다음날 아침 버스를 타고 다시 정저우로 왔다. 정저우역에 도착하니 마침 12시였는데, 점심시간이라 표를 팔지 않는다고 창구문이 닫혀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는 2시까지 두 시간을 때우기 위해 배낭을 짊어진 채 시내버스를 타고 정저우 시내를 돌아다녔다.

오후 2시에 다시 역에 도착해서 베이징 가는 표를 파는 2층으로 갔더니 표가 없다며 아래층으로 가보라고 했다. 아래층에서는 다시 위층으로 가란다. 오르락 내리락 몇 번 하다가, 외국인이니 좀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하여, 결국 1층에서 저녁에 출발하여 새벽에 도착하는 ‘궈안위(軟臥)’표를 구할 수 있었다.

어차피 새벽에 베이징에 도착해서 집까지 택시를 타야 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뤼양에서 정저우까지 소요된 버스비와 정저우에서 베이징까지의 기차표 값을 계산해 보니, 뤼양에서 80원의 웃돈을 주고 표를 사는 것과 같은 금액이 들었다.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고생만 한 셈이었다. 뤼양에서 80원을 더 주고 표를 사서 돌아 오는 것이 더 나았을까, 아니면 정저우에서 정식으로 표를 구해 온 것이 더 현명한 일이었을까? 지금까지도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경험이 오래오래 내 머리에 남아 있을 것만은 확실하다. 중국에서 기차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랄 뿐이다.

석은혜 / 본지 편집장

笨嘴主人 말재주 없는 주인의 이야기



主人要請四位客人吃飯,
却只來了三位...

한 주인이 손님 네 사람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단 세 사람만 온 것을
보고 말하기를...



甲不高興地離席而去, 主人很懊惱...
갑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자리를 뜨자,
주인은 매우 난처해졌다.

1.

2.

乙也走了...
을도 가버렸다.



既然他是不該走的, 那該走的便是我了?

‘ 그가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면, 가야 할
사람은 바로 나란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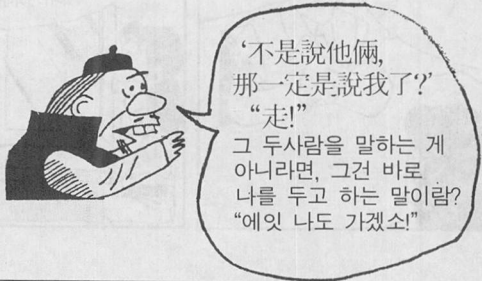
3.



“哎呀呀!
我又不是說的他倆!”
“아이구, 나는 그들 두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라네!”

“老兄,
你今後說話可要加
注意, 否則得罪人呵!”
“형님, 다음부터는 말할 때
좀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4.



‘不是說他倆,
那一定是說我了?’
“走!”

그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람?
“에잇 나도 가겠소!”

5.



永遠的生命

Yǒng yuǎn de shēng mìng

영원한 생명

중국에 유학 중인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왕(王)씨 성을 가진 중국 남학생을 만났다. 이야기 나누다가 한국 여학생이 중국 학생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다.

金 小姐: 你相信耶穌基督嗎?

Jīn xiǎojiě: nǐ xiāngxìn Yēsū Jīdū ma?

김 양: 당신 예수 믿습니까?

王 同學: 我不信。

wáng tóngxué: wǒ bú xìn.

왕 군: 나는 믿지 않습니다.

金: 我們在神面前都是罪人。

jīn: Wǒmen zài shén miànrán dōu shì zuì rén.

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王: 那麼怎麼才能得救呢?

wáng: Nàme zěnmě cái néng dé jiù ne?

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金: 無論是誰, 只要接受耶穌就能得到救贖。

jīn: wúlùn shì shéi, zhǐyào jiēshòu Yēsū jiù néng dédào jiùshú.

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王: 那麼, 接受耶穌的方法是什麼?

wáng: Nàme, jiēshòu Yēsū de fāngfǎ shì shénme?

왕: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金: 相信耶穌基督是你個人的救主, 就是接受耶穌基督了。

jīn: xiāngxìn Yēsū Jīdū shì nǐ gè rén de jiùzhǔ, jiùshì jiēshòu Yēsū Jīdū le.

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세주로 믿으면 곧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王: 我願意現在就接受耶穌基督。

wáng: wǒ yuànyì xiànzài zài jiù jiēshòu Yēsū Jīdū.

왕: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합니다.

金: 聖經上說, 任何人只要接受了耶穌基督, 就有永生。

jīn: Shèngjīng shàng shuō, rènhé rén zhǐyào jiēshòu le Yēsū Jīdū, jiù yǒu yǒngshēng.

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相信(xiāng xìn): 믿다

罪人(zuì rén): 죄인

救贖(jiù shú): 구속하다

接受(jiē shòu): 받다, 영접하다

願意(yuàn yì): 원하다

任何人(rènhé rén):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석은혜/ 본지 편집장

快樂崇拜歌 기뻐하며 경배하세

H. van Dyke

조금 빠르게 ♩ = 116

(찬 13장)

HYMN TO JOY: 8.7.8.7.D.

L. van Beethoven, 1824



快樂, 快樂, 我們崇拜, 榮耀上主愛之神,
Kuài lè, kuài lè, wǒ men chóng bài, róng yào shàng zhǔ ài zhī shén,
콰이 러, 콰이 러, 위 먼 총 배이, 롱 야오 상 주 아이 즈 셴,



心如花開, 到主面前, 主如旭日, 我歡迎。
Xīn rú huā kāi, dào zhǔ miàn qián, zhǔ rú xù rì, wǒ huān yíng.
신 루 화 카이, 따오 주 미엔 치엔, 주 루 쉬 르, 위 환 잉.



苦意愁云, 懇求消滅, 疑惑黑蔭, 求散盡,
Kǔ yì chóu yún, kěn qiú xiāo huà, yí huò hēi yīn, qiú sǎn jìn,
쿠 이 초우 윈, 켄 치우 샤오 화, 이 화 헤이 인, 치우 산 진,



永恒快樂, 救主賞賜, 旭日光華滿我心。阿們。
Yǒng héng kuài lè, jiù zhǔ shǎng cì, xù rì guāng huá mǎn wǒ xīn. ā mēn.
용 형 콰이 러, 치우 주 상 츠, 쉬 르 광 화 만 위 신. 아 멘.

우리말 가사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중국어 복음성가

主啊，我在這裏！ 주님，내가 여기 있사오니!

親愛主 我今正在這裏 請你差遣我
Qīn ài zhǔ wǒ jīn zhèng zài zhè lǐ, qǐng nǐ chāi qiǎn wǒ
친아이 주 위 진 정 짜이 짜 리, 칭 니 차이 치엔 워

我的心 我的身 都願意獻在主前 主請你悅納我
wǒ de xīn wǒ de shēn dōu yuàn xiàn zài zhǔ qián zhǔ qǐng nǐ yuè nà wǒ
위 디 신 위 디 셴 따우 위엔 시엔 짜이 주 치엔 주 칭 니 웨 나 워

親愛主 我今正在這裏 請你差遣我
Qīn ài zhǔ wǒ jīn zhèng zài zhè lǐ, qǐng nǐ chāi qiǎn wǒ
친아이 주 위 진 정 짜이 짜 리, 칭 니 차이 치엔 워

我所有的一切都願意獻在主前 主請你悅納我
wǒ suǒ yǒu yī qiè dōu yuàn xiàn zài zhǔ qián zhǔ qǐng nǐ yuè nà wǒ
위 쉼어 요우이치에 따우 위엔 이시엔 짜이 주 치엔 주 칭 니 웨 나 워

哈 利 路 - 亞 哈 - 利 - 路 - 亞
hā lì lù - yà hā - lì - lù - yà
하 리 루 야 하 리 루 야

哈 利 路 - 亞 - - - 哈 - 利 路 亞
hā lì lù - yà - - - hā - lì lù yà
하 리 루 야 하 리 루 야

亞 主 請 你 悅 納 我 主 請 你
yà zhǔ qǐng nǐ yuè nà wǒ zhǔ qǐng nǐ
야 주 칭 니 웨 나 워 주 칭 니

悅 納 我
yuè nà wǒ
웨 나 워

우리말 가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能不能在二十分鐘內赶到? / Néng bù néng zài èr shí fēn zhōng nèi gǎn dào?
(넙 부 넙 짜이 얼 스 편 중 네이 깐 따오?)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중국 문화유적지 시안(西安)

유재승

중국

6대 고도(古都)의 하나이며 3,0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안은 1,100년 간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였다. 가장 번창했던 때는 장안(長安)이라고 불렸던 당(唐: B.C. 6618~907)대였으며, 현재는 서북 지방 최대의 상공업 도시이다.

시안(西安)으로 가는 길

비행기

베이징(北京)에서 1시간 30분, 상하이(上海)에서 1시간 50분, 광저우(廣州)에서 2시간 15분 소요 되는 항공편이 있다. 그 외에 32곳의 주요 도시로 향하는 국내 항공편과 홍콩, 방콕, 싱가포르, 나고야 등지로 가는 국제항공편도 있다(공항세 40元).

열 차

베이징에서 터콰이로 16시간 47분, 상하이에서 터콰이로 32시간 47분, 각 열차들은 시안시 북쪽에 있는 시안역으로 도착한다.

시안 시내의 교통

버스의 종류는 시내를 달리는 시내버스와 시안교외와 시내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그리고 시내를 오가는 트롤리버스 등이 있다. 대개는 혼잡하여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른다. 단, 외국인들이 많이 타는 버스들은 소매치기가 있으므로, 특별히 소지품에 주의해야 한다.

택시 및 기타 교통 수단

버스 이외에는 택시나 삼륜차를 많이 이용한다. 주로 호텔 앞이나 근처, 그리고 역 앞에서 잡을 수 있는데, 반드시 타기 전에 요금을 흥정해 두는 것이 좋다. 대체로 외국인들에게는 중국인들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담시킴으로 시중가로 적절히 흥정할 필요가 있다.

여행 계획

중국 대륙에서도 거의 중앙에 위치한 시안은 좋은 지리적 조건으로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이 곳이 실크로드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당시의 시안이 누렸을 경제적, 정치적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시안은 역사가 오랜 도시인 만큼 시내나 시외 곳곳에 볼거리가 많다. 중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성벽의 보존 상태가 좋다고 하는 시안의 시내



반포 원시 유적지 내부 모습

비림(碑林), 종루(鐘樓) 등을 비롯하여 갖가지 볼거리를 안고 있다. 특히 교외로는 더욱 많은 고대의 유서깊은 유적들을 볼 수 있다.

시내에 있는 명소들을 보는 데에도 하루로는 좀 모자란다. 더욱이 교외에 있는 명소들은 거리도 멀거니와 볼거리들이 풍부하여 동쪽, 서쪽, 남쪽으로 도는 데에 각각 하루씩 투자해야 하므로, 2~3일은 족히 걸린다. 그래서 시안의 명소들을 여유있게 돌아보려면 적어도 3박 내지 4박은 해야 한다. 물론 대강 중요한 볼거리만 보고자 한다면 1박에서 2박으로도 가능하다.

관광 명소

성벽(城壁)

시안 성벽은 중국에서 옛날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유적 중에서도 으뜸이다. 명(明)대에 당대의 장안성(長安城)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는데,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높이 12m, 둘레 11.9m, 폭은 위가 12~13m, 아래가 15~18m의 규모, 성벽 위에서 보는 성내외의 전망도 좋다. 성벽을 모두 돌아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개방되어 있다.

산시(陝西)성 박물관

역대의 명필을 새긴 1,095개의 비석이 마치 나무숲처럼 무성하여 비림(碑林)이라고도 하는 이 박물관은 역사 진열실, 석각 예술실, 비림 등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당(唐)대 개성년간(開成年間)에 만들어진 114개의 비석에 61만 글자나 들어 있는 개성석경(開成石經)을 비롯하여, 로마에서 네스토리우스파의 그리스도교가 전래된 것을 담은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教流行中國碑), 당현종 직필의 비석 석태효교비(石台孝教碑), 왕희지(王羲之)의 삼장성교서비(三藏聖教序碑), 안진경의 안가묘비(顏家廟碑), 회소의 성모침비(聖母帖碑), 제술량의 안탑성교서비(雁塔聖教序碑)등 서예가의 필체가 새겨진 비석들이 숲처럼 늘어서 있다.

종루(鐘樓)

시안성 중앙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한 3층의 누각이다. 겉모양은 3층이지만, 내부는 2층으로 높이 8.6m, 둘레 35.5m의 벽돌로 된 제단 위에 세워진 것이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기둥 하나로만 만들어진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원래는 1384년에 세워졌으나 청대에 재건하면서 원래의 자리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누각에 올라서서 시내를 조망해 보는 것도 좋다.

청진사(淸眞寺)

약 5만 정도의 이슬람교도가 살고 있는 시안의 중심에 있는 사원으로, 당나라 때인 742년에 창건되었다. 독특한 아라비아 문자가 새겨진 것도 눈에 띄며, 내부의 대전(大殿)은 약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산시역사박물관(陝西歷史博物館)

5만6천m²의 넓은 부지 안에 조성된 국가급 박물관으로, 당(唐)대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1991년에 개관하여, 이전에 산시성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주(周), 진(秦), 한(漢), 수(隋)대의 시안 근교 출토품들이 이곳으로 옮겨 수장되었다. 특히 당대의 능묘에서 출토된 커다란 색채화가 유명하다.

반파유적박물관(半坡遺跡博物館)

시안 동쪽의 반파(半坡)에 있는, 기원전 4,000~2,500년의 고대 유적에서 발굴된 것들을 수장하고 있다. 1953년 우연히 발견된 반파유적은 당시 고대인들의 집단 주거환경이 땅 속에서 거의 그대로 유지된 채 발견되어 화제를 모은 곳이다. 당시의 생활상을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흥경궁공원(興慶宮公園)

당 현종(玄宗)이 양귀비와 함께 살면서 집무를 보던 흥경궁 유적을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넓은 부지에 꾸며진 공원인데, 그나마 원래의 흥경궁 크기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흥경궁으로 쓰던 건축물의 초석 일부만 남아 있는 가운데, 양귀비가 좋아했다는 모란 정원, 침향정(沈香亭) 등 부분적으로 복원되어 있다. 취해서 편히 누운 듯한 포즈를 한 이백의 조각상도 재미있다.

시안 교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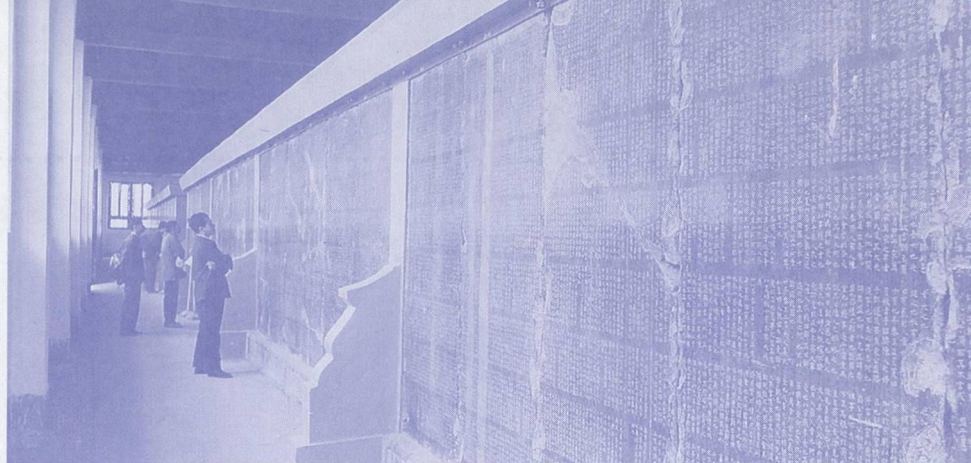
시안은 역대 고도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 온 도시여서, 시내뿐만 아니라 교외에도 여러 가지 유적과 관광지가 무궁무진하다. 시안의 동쪽, 서쪽, 남쪽으로 각각 산재한 명소들은 관광객의 발길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진시황제릉(秦始皇帝陵)

시안에서 진시황병마용갱박물관 도착 직전에 낮은 야산처럼 보이는 것이 진시황릉이다. 세계적으로 개인을 위한 묘로서는 최대의 크기로, 진시황제(BC 247~210)가 즉위한 때로부터 37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주변의 둘레가 25km정도 되는 대규모의 능에는 지하에 화려한 궁전과 부장품이 있다는 것을 자외선 조사로 밝혀 낸 상태이지만, 현재 발굴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도굴 방지를 위해서 자동 발사되는 화살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병마용으로 가는 길에 잠깐 내려 둘러보거나 차장을 통해 잠깐 눈길을 주는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진시황 병마용갱박물관(秦始皇兵馬俑坑博物館)

진시황릉을 중심으로 꾸며진 진시황 능원은 지하와 지상에 모두 꾸며졌으나, 지금은 지상에 만들어진 부분은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지하에 만들어진 부분은 조금씩 출토되고 있다. 진시황릉 주변에서 출토된 것으로 현재 진시황을 호위하는 병마용(兵馬俑)과 진시황에 생전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동마차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현재 박물관으로 꾸며진 곳에 수장되어 있으며 계속 출토 작업 중이다. 세계 8대 기적의 하나로 친다. 발굴이 끝나면 어떠한 규모가 될지 기대가 된다.



산시성 박물관의 개성석경.

화청지(華清池)

시안의 북동쪽에 위치한 온천 휴양지로 무려 3,000여 년의 역사를 가진다. 산세가 좋고 온천수가 좋아 역대 황제들이 별장을 만들어 겨울철의 휴양지로 쓸만큼 각광을 받았던 곳이다. 특히 당나라 현종이 60만㎡의 넓은 면적안에 화청궁을 만들어 중국4대 미인의 하나인 양귀비와 생활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화청궁의 전체 구조는 4문, 10전, 4루, 2각, 5당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연못가에 버드나무가 줄을 짓고, 석방(石舫)이나 어전, 정자, 회랑을 배치한 중국식 정원이 있고, 양귀비상도 서 있다. 어탕건지(御湯遣地)박물관에는 양귀비의 부용탕과 현종의 구룡탕을 복원하여 연화탕으로 꾸며 놓았다. 이 온천의 물은 석탄, 탄산, 망간을 포함하며, 항상 43℃를 유지하고 수량도 풍부하다. 화청궁 안의 오간청은 1936년에 시안 사변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다. 도간청에는 장카이스(蔣介石)가 잠깐 숙박하다가 장쉐량(張學良)에게 체포당하면서 생긴 총탄의 흔적과 구멍 뚫린 유리창 등이 당시 그대로 남아 있다.

건릉(乾陵)

당 3대 황제 고종(高宗:BC 628~683)과 측천무후를 합장한 곳이다. 고종의 비인 측천무후가 고종이 죽은 후 황제의 자리에 재위하고 있는 동안 조성한 곳이기도 하다. 매우 광활한 터에 만들어진 것으로, 참례도 만으로도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홍교사(洪教寺)

당나라 때인 669년에 창건된 사찰로, 현장삼장의 유골을 수납한 묘탑으로 유명하다. 이 탑은 높이 21m, 방형 5층의 벽돌로 만들어진 석탑이다. 탑 좌우에는 고제의 진짜 뼈로 판명된 손가락 뼈 4개가 발견되어 화제를 모았다. 그 외에도 단수십이환석장 등의 금,은으로 된 도자기, 유리로 된 자기, 견직물, 측천무후의 자수 등 당나라의 왕성했던 예술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귀중한 문물이 1,000여 점이나 발굴되었다. 이것들은 현재 박물관으로 꾸민 진보각에 전시되어 있다.

시안의 삼자교회

교 회	주 소	전 화	예배 시간
북대가(北大街)예배당	西安市北大街 99號	029-7232036	주일 7:30, 10:00, 19:30
동관(東關) 예배당	西安市 東關東新巷 55號	029-3238041	주일 7:00, 8:30, 19:30
남신가(南新街)예배당	西安市 南新街集賢巷副1號	0913-227992	주일 7:00, 8:00, 10:00

유재승(주) 천지 항공 여행사 부사장, 배재대학 강사, 종교학 박사

진시황

을 왜곡 묘사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상영이 금지되었던 진송이 개봉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다. 역사물이 결코 재미없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TV에서 사극을 거의 보지 않는 나로서는 중국 역사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싶은 정도의 미미한 것이었다. 하지만, 영화는 기대 이상이었다.

「진송」은 '96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영화상 후보에 올랐고, 골든글로브 평론가상과 스페인 국제영화협회 평론가대상을 수상하였다.

‘붉은 수수밭’, ‘패왕별희’로 우리에게 낯익은 장원(姜文), ‘인생’으로 94년 칸느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거유(葛優)의 연기는 역시 영화의 완성도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빼어난 연기의 진수를 선보였다. 카메라는 중국인의 자존심만큼이나 위풍당당한 만리장성을 훑고 지나가다가 황하(黃河)의 장관 앞에서 멈춰선다. 강제를 지내리 온 죽음 직전의 진시황(姜文 분)으로부터 화면은 플래시백.

영정(시황제)과 고점리는 죽마고우이다. 전쟁 끝에 연나라의 인질이 된 두 주인공은 온갖 수모를 겪으며 하루하루를 죽음의 위협 속에 지낸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영정은 결국 진나라로 돌아가게 되지만, 고점리는 영정과 함께 타고가던 마차에서 버려지게 된다. 이후, 영정은 대제국의 왕, 고점리는 가야금-여기서 가야금은 중국의 전통악기「칸」- 악사라는 판이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영정은 전국시대를 평정하고 중국 최초 통일국의 황제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진다. 연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로 잡혀온 고점리와 재회한 영정의 목표는, 진 나라의 국가(國歌) 즉, 진송(중국 음악은 풍, 아, 송의 세 장르로 나뉜다. 풍(風)은 일반 민가, 아(雅) 궁중음악, 송(頌)은 장엄한 군가풍이다.-편집자 주)을 만드는 일이다. 영정은 고점리에게 진송을 지을 것을 명령하지만, 고점리는 잔인한 살육을 중단하라며 단식으로 왕의 요구를 거절한다. 영정의 딸 요양공주는 왕에게 간청하여 고점리

중국영화 감상

진송 秦頌

임용진





로부터 가야금을 사사받는다. 두 남녀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만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를 안 황제는 공주를 왕변장군에게 시집보낼 것을 선포한다. 연나라 포로수용소에 서는 '진시황은 죽고 나라는 분열될 것이다'란 석판이 발견되어 연나라 포로들은 모두 학살당할 위험에 처한다. 고점리는 진송을 작곡하라는 황제의 요구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포로들을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한편 요양공주는 "당신을 한 번 안을 수만 있다면, 지금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는 고점리에게 몸을 허락하는데, 진노한 황제는 고점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요양공주를 왕 장군과 결혼시킨다. 그러나, 왕장군은 고점리에게 몸을 허락한 공주를 참혹하게 살해한다.

라스트 신. 드디어 영정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 나라의 황제로 등극하고,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운집한 가운데 고점리가 작곡한 진송을 연주하는 날이다. 이 때 고점리는 가야금으로 황제를 공격한다. 진시황에 대한 도전으로 자기 목숨과 예술적 재능, 왕과의 우정을 한꺼번에 내어 던지는 순간이다. 영화 영어제목 「The Emperor's Shadow」만큼이나 제국의 변영 그 이면에는 사랑과 우정의 비극적 종말이라는 암울함이 짙게 배어 있는 것이다.

만리장성의 건설, 분서갱유(焚書坑儒), 불로초 등으로 잔인한 절대군주로만 인식되어 오던 진시황의 인간적 면모, 민심수습을 위해 진송의 작곡에 전념하는 모습, 결국 친구를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진송을 완성하기까지 보여준 친구에 대한 이해와 우정 등은 사실 새롭고 놀랍다. 역사보다는 인물에 초점을 맞춘 극의 전개와 차분한 연출이 이를 잘 뒷받침하였고, 그로인해 일종의 감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중국 영화에는 아직까지 할리우드의 이벤트적 화려함은 없지만, 탄탄한 구성력과 예술적 깊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는 필자의 시선을 줄곧 묶어 두었고, 중국영화에 대한 관심의 질을 높여주었다.

옛 제국의 웅장함과 질박함을 과장되지 않은 촬영과 조명으로 소화하였고, 한 시대를 풍미한 역사 인물들의 미묘한 감정을 무리없이 그려낸 감독의 솜씨는,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만큼이나 큰 영화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한껏 살린 조계평의 음악 또한 사랑과 우정의 서사시에 선율을 실어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

임용진/ 온누리교회 청년, (주)SKC 근무

춘제와 중국인

이민선



중국은 어딜가나 땅 넓고, 인구 많은 나라인 것을 실감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대로변으로 나와보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시선을 어디에 뒀아할지 순간 아찔해진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설날은 어떤가? 중국은 우리 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으로 설 문화도 비슷한 점이 많다. 원래는 음력설을 위엔단(元旦)이라고 부르던 것을 신해혁명을 거친 이후 1949년부터 서력(西曆)기원을 공식 채용하면서 양력 1월 1일은 위엔단이라고 하여 하루를 쉬고 있고, 음력 정월 초하루를 ‘춘제(春節, 음력설)’로 부르고 있다.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설날은 바로 음력의 춘제이다.

해마다 중국은 춘제 때 보통 열흘에서 길게는 보름까지 휴일로 즐긴다. 평소 바쁘게 일하던 모든 사람들과 회사가 쉬기 시작하면, 고향 친지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한 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나누며, 일손을 놓은 채 먹고 마시며 정신없이 즐기는 것이다. 이것을 쩌넌(過年)이라고 부른다.

춘제는, ‘따디 푸쑤(大地復蘇)’란 중국 속담대로, 대지가 다시 소생한다는 뜻 그대로이며, 봄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봄은 겨우내 얼었던 만물이 따뜻한 기운을 받아 녹아서 풀리는 계절. 추위에 냉랭하게 움츠렸던 사람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열리는 시기이다. ‘한 해의 설계는 봄에 있다(一年之計在於春)’고 했듯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 날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축제로 벌이는 설날의 풍습은, 중국인들이 라웨(臘月-음력 12월을 라웨라고 부르는데, 이는 12월 중 8일이 라바알(臘八兒)이라는 가장 큰 제삿날이 있기 때문이다)를 보낸 후, 새해를 맞게 되므로 새해가 시작되기 훨씬 전 음력 12월 8일부터 막이 오른다. 아침에 집집마다 붉은 죽(紅粥)을 먹는 이날은, 원래 석가 성불의 날이었지만 지금은 민가의 전통 습속으로 뿌리 내렸다. 붉은 죽을 먹기 전에 먼저 문 앞에 만들었던 눈사람(雪人)에게 먹여준다. 눈사람의 입술에 홍죽을 조금 묻혀두면 되는 것이다. 다음에 ‘춘지우(春酒)’를 마시고, 물만두를 먹으면서 동지



를 지낸다. 그 뒤로 라웨 27일인데, 이 날은 중국인 가정들이 가장 바쁜 날이다. 온 가족 모두 열심히 집안 곳곳 대청소를 하는 날로, 특히 벽에다 석회를 칠하고, 유리나 가구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는다. 그리고는 이제 시장에서 사온 전지화(剪紙花-종이를 오려 동물이거나 사람 모양으로 만든 종이 공예)들을 유리창에 붙인다. 청소가 다 끝났으면, 귀넌을 맞이하기 위해 시장에 가서 고기, 채소, 쌀, 기름 등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 폭죽과 새옷과 모자, 구두를 사는 것이다.

따넌(大年) 추시(初夕), 즉 섣달 그믐 오후에 춘련(春聯)을 써서 집안에 있는 문마다 위 아래, 양쪽에 붙인다. 또 대문 양쪽 기둥에 복을 기원하는 문구를 써 놓는데, 붉은 글씨로 ‘복(福)’ 자(字)를 거꾸로 붙인다. 이것은 ‘복이 거꾸로 되었다(福倒了)’는 말과 ‘복이 찾아왔다(福到了)’의 ‘푸 따오 리’ 발음이 같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 날 저녁은 밤새도록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집안에서 ‘자오즈(餃子-물만두)’를 빚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오즈

를 먹고 대문 밖에 음식을 내놓는다. 예로부터 ‘넌(年)’이라 불리는 흉한 괴물이 섣달 그믐날 사람을 잡아 먹는다고 하여, 이 날만은 중국인들 모두 외출을 삼가하고, 문밖에 음식을 내놓아 괴물을 달랬다는 전설로 인해 이러한 풍속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2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폭죽을 터뜨리는 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풍속이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와 기쁘게 송구영신을 외치며 터지는 폭죽은, 터지면서 어두운 하늘에 아름다운 빛으로 환상적인 무늬를 이루는 것도 대단하지만, 울리는 소리 또한 커서 조용히 잠자던 어린아이들이 놀라서 울거나, 폭죽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귀가 먹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렇게 섣달 그믐날 자정에 폭죽을 터뜨리는 것도, 집 근처에 서성대는 귀신들을 놀라게 하여 자기가 사는 곳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

정월 초하루의 음식으로는 과거 원(元)나라 때의 동전 위엔바오(元寶) 모양을 한 자오즈와 함께 닭, 오리, 생선, 돼지고기 등을 넣은 자오즈를 먹는다. 때로는 아예 만두 속에 동전을

넣기도 하는데, 이는 만두를 먹다가 동전이 든 만두를 먹는 사람은 일년 내내 돈을 잘 벌고 운이 따른다는 속설을 즐기려는 것이다. 정월 초하루의 세배 풍속은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세 번 조아리면 어른들은 ‘야쑤이첸(壓歲錢)’이라 부르는 세뱃돈을 준다.

음력 1월 2일은 중국의 재물신 ‘차이선예(財神爺)’가 태어난 날로, 집집마다 상점마다 이 재물신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빌면서 제사를 올린다. 음력 1월 15일은 ‘상위엔제(上完節)’인데 수당(隋唐)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행사로 집집마다 화등(花燈)을 내거는 풍습이 있다.

중국인들에게 최대의 명절인 춘제야말로, 민족대이동이 벌어지는 절정의 시기인 것이다. 외지로 돈 벌러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민공(民工)들의 귀성행렬은 전국의 교통마비를 일으킬 정도여서,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민족대이동’에 발맞춰 춘원(春運) 교통 비상 작전에 들어간다. 이 또한 해마다 중요한 연례 행사로서 중요한 세시풍속이라 할 것이다.

이러다보니 음력 12월 8일부터 전통적인 절기 행사를 치르는 풍습이 춘제가 있는 음력 1월까지, 음력 12월은 물론 때로는 음력 1월 초까지도 정상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잡지 못해 업무가 마비되고, 중국 전체가 썰렁하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 사회도 현대적인 생활의 변화로, 께넌의 풍속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일부 부유층들은 번거롭게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대신 호텔 음식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전화기가 확산되면서 춘제에 신년인사를 전화로 대신하는 풍조도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中國民俗學』, 原著: 直江廣治, 譯者: 林懷卿, 世一書局印行 p.. 91-97.

『中華民俗風情大觀』, 主編: 楊子東, 陝西師範大學出版社 p.. 2-10.

『북방저널』, 92. 1. p.. 136-137.

베이징 지역 물 부족 심각 강우량 예년의 절반도 못 미쳐

베이징(北京)시 수리국에 따르면 최근 몇 달째 계속 되는 가뭄으로 베이징시 일원의 생활용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민일보가 지난주 보도했다.

역사적으로 베이징의 강우량이 가장 적었던 해는 지난 65년으로 377mm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난 9월말까지 베이징 일원에 내린 강우량은 고작 348mm로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흔히 매년 10월 이후 강우량이 적은 예에 비추어 베이징의 생활용수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난하다’는 주장과 ‘심각하다’는 상이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향후 용수 사정이 무난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저수지의 수량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베이징시의 수원지는 미윈(密雲) 저수지와 관팅(官廳) 저수지로 매년 10억5,000만m³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미윈 저수지에 저장된 물은 28억m³인데, 그중 24억m³을 베이징에 공급할 수가 있다.

이같은 상황을 근거로 하면 향후 1~2년 안에는 베이징 일대의 용수 부족현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맞서는 비판론도 만만찮다.

베이징시 수리국의 수위 측정 자료를 분석해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두 저수지에서 방출한 수량은 6억 4,000만m³로 작년 동기 대비 8억m³가 적은 양이었다.

올해 감소된 방출량은 두 저수지가 연간 방출하는 수량의 80% 수준이다. 지금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내년 5월까지 두 저수지의 방출 예상량은 2억3,000만m³로 90년대 이래의 평균 방출량보다 40%나 감소했다. 더욱이 지하수 저수량도 7억6,800만m³나 감소해 수자원의 결핍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저널 제26호>

샤강즈공(下崗職工)

근래 '샤강즈공'이란 말이 새로 생겨나 널리 쓰이고 있다. 중국어로 직책이나 본분을 '강웨이(崗位)'라고도 하므로 이 말을 '직장'이란 뜻처럼 쓰기도 한다. '직장에서 내려왔다(下崗)'는 말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즉 '실직됐다'는 뜻이다. '샤강즈공'은 국유기업에서 실직된 사람들을 일컫는 새로운 단어이다. '실업(失業)'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좀더 살펴보았다.

즈스칭넨(知識青年)

중국은 실업을 자본주의적 죄악의 산물로 보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는 실업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지 불과 15년을 넘기지 못한 1964년에 벌써 고등학교 출신 실업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업자'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단순히 '즈스칭넨(知識青年)'이라고 불렀다.

샤상칭넨(下鄉青年), 차투이칭넨(插隊青年)

1965년부터 즈스칭넨을 농촌으로 내려 보내면서 불려진 말이다.

파이칭넨(待青年)

도시민들을 다시는 농촌으로 내몰지 않게 된 1976년 이후로 불려진 말로 일자리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우치간부(5·7 幹部)

문화혁명 이후 남아도는 간부들을 농촌으로 내몰면서 그들에게 붙여진 말. 마오쩌둥(毛澤東)이 도시의 간부들을 농촌으로 내려 보내 단련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5월 7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졌다.

출처/ 「베이징저널」 제24호



세계 선교 동향

러시아 선교, 막힌 담을 뚫어라

이일남



지난 9월 26일 러시아 정부는 엘친 대통령이 서명하여 최종 확정된 러시아 연방 신종교법을 10월 1일 공포했다. 따라서 러시아 현지의 교회는 물론, 후원하는 국내 교회와 유관 기관들은 러시아 선교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려하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공포된 신종교법(양심의 자유 및 종교단체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은 전문 4장 2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많아 전문가의 유권적 해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속조치로 나오게 될 세부 시행령(시행세칙)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에서 법에 대한 확정적인 해석을 내리기에는 아직 곤란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명백한 문제의 초점은 신종교법 제27조 종결 규정 제3항에 있다.

“해당된 영토에서 15년 이상에 걸쳐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거를 소유하지 않은 종교단체는 지정된 15년 기간까지 매년 종교단체의 재등록의 조건에서 법인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음 단서 조항에 있다. 즉 “상술된 종교단체들은 그 해당기간 동안 본 러시아 연방법 제3조 4항(병역 의무의 선택적 대신권리 및 병역 면제 혜택), 제5조 3항, 4항(교육기관 설립 권한/ 어린이 종교교육 기회 제공), 제13조 5항(종교단체는 부설기구, 종교단체 대표부 설치 가능), 제16조 3항(교회 이외의 특정 장소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권리), 제17조 1항, 2항(종교 서적 출판, 획득, 수출, 수입, 보급권), 제18조 2항(문화 계몽단체 및 교육기관 설립권리), 제19조(전문 종교교육 기관(신학교) 설립 특전), 제20조 2항(선교 및 종교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권리)에 규정된 권리들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시되는 또 하나의 조항은 제13조 2항으로서 “외국 종교단체에게 러시아 영토 내에서 자신의 대표부를 개설할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 외국 종교단체의 대표부는 종교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 단체의 대표부에게는 본 연방법에 규정된 종교단체의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으로 보아 외국 선교단체(선교사)의 독자적인 선교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종교법이 공포 발효(97년 10월 1일)된 후, 모스크바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교회 중 주일에만 파르타임으로 임대하고 있는 교회는 아직 별 문제가 없으나, 건물을 교회로 전용하고 있는 교회는 모스크바 행정당국으로부터 명도 지시를 받고 있다. 임대계약이 만료된 교회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마다 3개월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세무 보고하던 것을, 이제는 철저히 세무 사찰을 강화하고 있고, 모스크바 근처의 어느 시골에서는 갑자기 교회 임대를 취소하거나 종교법과는 관계없이 다른 이유를 대면서 나가라고 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방대하여 신종교법이 지역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도 지역적으로 다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교사들의 합법적 신분 보장과 선교사에 대한 비자 발급은 물론 교회 장소 임대 등 앞으로는 장기 사역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구소련의 선교 문이 열린 91년도부터 선교를 시작, 아직 15년이 안 된 우리 한국 선교사들로서는, 선택의 여지란 오직 러시아에서 15년 이상 된 현지의 기존 개신교 선교사 교단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은 현지 러시아 기존 개신교 교단과 협의를 시작하였는데, 들어갈 수 있는 러시아 개신교 교단은 러시아 침례교와 오순절교 정도로 제한되고 있다. 러시아 침례교 교단의 신앙 노선은 보수이나, 교회 목회 전반에 걸쳐 침례교 교리와 정관에 의해 감독 지시를 받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러시아 오순절 교단은 개방적이며 가입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침례교단보다 오순절 교단 쪽을 택하는 선교사와 교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극동 지역(하바로브스크, 연해주, 사할린, 캄차카)에서는 연해주 한국선교사 협의회와 러시아침례교 극동 연합회 간에 선교사들이 개교회 별로 가입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97년 11월 6일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 가입 조건은 첫째, 개교회 별로 가입을 하되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구비 사항은

- 1) 신앙고백서
- 2) 교역자에 관한 신상 명세서
- 3) 교회 예배장소, 목사 성명, 제직, 성도수 등이다.

둘째, 교회의 차이, 법률적인 활동, 명칭 등이 일치하도록 요망하고 있는데

- 1) 침례
- 2) 매월 첫째 주에 행하는 성만찬
- 3) 임직과 교회 권징 관계 등이다.

셋째, 교회 제직은 담배와 술과 마약과 음란 패설에 상관 없는 오직 거듭난 성도라야 한다. 넷째, 가입하는 교회는 매달 연합회로 교회의 심일조와 연합회 장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정한 금액(세례교인 1인당 3,000루블(한화 500원)을 회계부로 입금해야 한다.

다섯째, 회원의 책임 각 목사들은 연합회로부터 교회의 활동과 생활에 대하여 감독과 지시를



받게 된다.

여섯째, 요청사항으로서 한국 교회 목사 여러분 중에 일정기간 동안 대표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목사를 선출하기 바란다(러시아 침례교 극동 연합회 회장 아브람 모브).

다른 지역도 지역별로 선교사 협의회가 그 지역 관할 개신교 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있다. 가입 절차는 선교사 개교회 별로 가입하는 형식이며, 한국 선교사들이 제각기 교회별로 독립 교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러시아 개신교 교단과의 협약 관계는 상호 동반자적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볼 때, 독자적 교파 명칭은 사용 못하더라도 가입 조건이 수월한 오순절 교단을 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러시아 오순절 교단은 하나가 아니고 등록된 여러 계파가 있다고 하므로 이단성 여부 등을 예의 파악하여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오순절 교회가 없는 연해주 지역에서는 할 수 없이 지역 침례교 교단에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지역 침례교 교단에 가입하면 독자적인 교회 명칭도 사용 못함은 물론 교회 운영 전반에 걸쳐 그들의 정관에 따라 감독 지시를 받는 종속관계가 될 것이다. 현재 여건상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결여되지 않는 한 예배 형식이 좀 다르거나 독자적인 교파 명칭을 사용 못하는 문제까지도 대범하게 수용해야 되리라고 본다.

이번 신종교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교회개혁(건축) 위주의 선교 전략이나 현지 러시아 기존 교단과의 협조 관계에 소홀했던 일방적인 선교 태도 등은 반성하고 심기 일전하여 새로운 선교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효과적인 선교전략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지 기존 개신교 교단을 통하여 현지인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복음 선교사역에 치중하고, 이와 병행하여 장애인 선교, 의료선교, 사회구호사업 등 특수선교를 통해 정상적인 선교 활동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본적인 실례로서 서시베리아에서 사역 중인 장 선교사는 수년 전부터 장애인 교회를 매월 후원하며 도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서시베리아 침례교 연합회 정식회원 목사로 추대받고, 러시아 침례교회의 1개 교회를 담임하면서 특수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등 현지 러시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선교사로 인정을 받고 있다.

둘째, 공개적이고 일시적인 영적 집회보다는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하여 신앙 핵심 요원의 일대일 양육 사역에 치중하는 동시에, 현지 교회 지도급 신자를 어떤 명목으로라도 한국으로 초청하여 제자화 훈련시킴으로써 현지 교회의 신앙적 자립화를 기할 수 있다.

셋째, 특수교육을 통한 선교사역이다. 교회를 평일에는 한글 교육이나 영어, 독일어 등 현지인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어 교실과 피아노 교습 또는 컴퓨터 교습 장소로 운영함으로써 현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선교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NGO(기아대책기구, 월드컨선) 등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간접적인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다. 특히 농지개발 기술을 가르쳐 농장을 개발하여 생활 수단이 없는 많은 현지인, 특히 고려인들의 생활 대책을 해결해 주는 농업 특수선교는 특히 현지에서 환영받는 사역이다. 실례로서 연해주의 모 선교사는 생활 대책이 없는 많은 현지 고려인들을 위하여 작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현지 주정부로부터 수십만 평의 땅을 무상 임대받아, 현지 교회 핵심 요원 2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학시켜 특수 농업기술을 습득시키고, 가나안 농군학교의 기술지도 지원을 받아 현지에 집단 농장을 개간 운영함으로써 현지 주민과 사회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현지 지역사회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그 나라 정부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주민과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취약 분야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특수 사역은 다양하다.

과거 대국이었고 예술 문화의 전통 있는 나라요 기독교적인 문화유산을 가진 러시아를 단지 70년 간 공산주의의 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선교지처럼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자성의 소리도 높다. 이제는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선교는 통하지 않는다. 러시아 선교는 현지인과의 협력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선교지에서 러시아 민족의 국민 정서를 무시하지 않는 겸손히 섬기는 선교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중 특히 유의해야 할 대상은 러시아 정교회이다. 러시아 정교회는 제정 러시아 때부터, 그리고 공산주의 아래서도 개신교를 줄곧 반대해왔다. 그리고 러시아 국민은 출생하면서부터 정교회의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출생하고 자랐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의 민족종교라는 강한 의식하에 이들은 개신교 선교사를 이단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 연방 종교법안을 기초한 사람이 러시아 정교회 알렉세이 주교라고 알려져 있고, 신종교법의 전문에도 “러시아 역사, 러시아의 정신과 문화의 형성에 있어 러시아 정교회의 특별한 역할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러시아 정교회를 등지고는 선교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입각해서, 러시아 정교회와 상호 화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인내와 사랑으로 꾸준히 접근해야 한다. 91년도에 러시아의 70년 공산독재를 무너뜨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신 선교의 문을 닫을 자 누구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만 역경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안다.

일방적인 과시 위주의 선교나 인간의 가시적 실적 위주의 선교, 물량 위주의 선교, 조급한 성과 위주의 선교가 있었다면 반성의 계기로 삼고, 막히면 돌아가라는 속담대로 좀 더딜지라도 선교의 정도를 걷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철학을 거울 삼기 위해 다음 말씀을 함께 되새겨 보기를 원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전 9:19)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고전 9:22)

이일남 / 소련선교회 총무 겸 사무처장

중국대사기(大事記)

1996년 11월 ~ 1997년 11월

종교 · 선교



96. 11. 22

티벳 라마교의 제11대 판첸 라마의 취임 1주년을 경축하기 위한 법회가 베이징 옹화궁(雍和宮)에서 거행되었다.

97. 12. 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중국에 카톨릭을 합법화하고 신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요구를 거절하고, 교황청이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96. 12. 28 ~ 97. 1. 4

중국기독교협회 제6차 전국협의회에서 한원자오(韓文藻)가 회장, 쑤더츠(蘇德慈) 화동신학원 원장이 총무로 선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중국기독교협회와 삼자애국운동위원회 헌장을 개정하였다.

정치 · 군사 · 외교

96. 12. 11 / 12. 16

홍콩특구 제1기 정부추선위원회는 11일 제3차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등젠화(董建華)를 홍콩특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서 등은 총 400표 가운데 320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중국 국무원은 12월 16일 등젠화를 홍콩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했다.

96. 12. 24 ~ 12. 30

8기 전인대(全人大)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차오스(喬石) 위원장의 주제로 개최되었다.

96. 12. 30

중공중앙 문헌연구실과 중앙TV방송이 94년부터 3년 간 공동제작한 12부작 다큐멘터리



「鄧小平」이 1997년 1월 1일부터 방영되었다. 이후 「人民日報」는 13일 베이징에서 좌담회를 열고 이 작품에 대해 토론하였다.

97. 1. 30

국무원은 1월 31일 리구이시엔(李貴鮮) 국무위원 주재하에 제5차 반부패공작회의를 거행하였다. 이 회의에 리펑(李鵬) 국무원 총리와 추자화(鄒家華) 부총리 등이 참석하였다.

97. 2. 19 / 2. 24

당샤오펍이 말기 파킨슨씨 병 및 폐감염으로 인한 호흡순환기 장애로 2월 19일 21시 8분에 베이징에서 93세로 서거하였다. 중공 중앙위원회는 덩을 당과 군과 중국의 각 민족 인민이 공인한 탁월한 영도자이며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 정치가, 군사가, 외교가, 오랜 시험을 거친 공산주의 전사, 중국 사회주의 개혁개방 및 현대화 건설의 총설계사, 중국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이론의 창립자로 기렸다. 덩의 유체는 24일 당과 국가 지도자들, 가족들의 추모 속에서 베이징에서 화장되어, 바다에 뿌려졌다.

97. 3. 1~3. 12

8기 전인대 5차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다. 이 회의에서 개정,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주석령 83호로 공포되었다.

97. 4. 22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엘친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갖고 “세계 다극화 및 국제 신질서 수립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또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대통령들과 “국경지역 상호 군사력 감축 협정”에 조인하였다.

97. 6. 25

미 하원은 홍콩의 중국반환을 1주일 앞둔 미국의 대(對)중국 최혜국대우(MFN)를 다시 1년간 연장한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안을 찬성 259표, 반대 173표로 승인했다.

97.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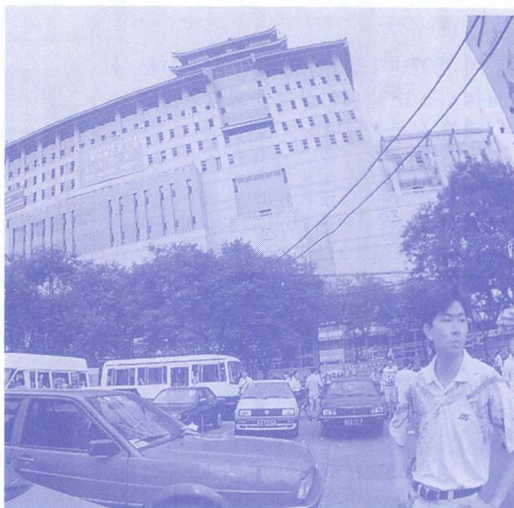
중국과 영국 양국 정부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홍콩 주권 인수인계식을 거행했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성립을 선언하는 연설에서, 홍콩 복귀 후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향인치항(港人治港)과 고도의 자치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하게 집행하는 것이고, 홍콩의 기존 사회, 경제제도와 생활방식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기본도 변화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어서 7월 1일 1시 30분 홍콩특별행정구의 성립 및 특구 정부 취임선서식이 거행되었다.

97. 7. 20

내이멍구(內蒙古)자치구 수도인 후허하오터(呼和浩特)에서 자치구 성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집회가 거행되었다.

97. 9. 12

중국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74명의 대표와 특별초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펑(李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주재로 개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당샤오펍 이론의 위대한 가치를 높이 들고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21세기를 향해 전면적으로 추진하자”는 장쩌민의 강화(講話)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재대두 및 경제체제 개혁의 가속화로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주식합작제의 실시이다.



경제

96. 11. 12

중국 외환보유고가 1,00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96. 11. 21~11. 24

중공 중앙과 국무원은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96년의 경제공작을 총결산하고, 97년도 경제공작을 안배하였다.

사회

97. 1. 21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에서 리히터 규모 6.3 이상의 강진(強震)이 두 차례 잇달아 발생, 1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중상을 입었다.

97. 2. 5

신장위구르 자치구 이닝(伊寧)시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이슬람계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한족과의 유혈충돌이 발생,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 중국 당국은 대부분 위구르족인 시위대 1천여 명을 체포했으며, 공항을 폐쇄하고 야간통행 금지령을 내리는 등 경계태세를 갖췄다.

97. 3. 8

충칭(重慶)시의 전화번호가 8일 0시를 기해 7자리에서 8자리로 전환되었다. 또한 충칭의 장거리 전화 지역번호도 “811”번에서 “23”번으로 변경되었다.

97. 3. 14

8기 전인대에서 쓰촨(四川)성 충칭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97. 4. 29

후난(湖南)성에서 대형 열차추돌사고가 발생해, 승객 2백 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97. 6. 9

중국은 티베트 자치 지역을 여행하는 외국인에 중국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경제협력 문제로 이곳을 방문하려면 티베트자치구 무역청에, 일반 관광 여행객은 티베트자치구 여행국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97. 6. 20~7. 23

남부 윈난(雲南)성 및 구이저우(貴州)성을 휩쓴 홍수로 약 한 달 동안 5백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 8천여 명이 부상했으며, 7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97. 7. 1

중국국가계획위원회와 중국민항총국은 외국인의 국내 항공요금을 국내인과 같은 요금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97. 7. 15

중앙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주임: 丁關根 정치국위원 겸 서기처 서기)는 「講文明, 樹新風 (문명 중시, 새로운 기풍수립)」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중정신문명 건설 캠페인의 성격을 갖는 이 운동은, 문명적인 언행, 환경위생, 서비스 품질, 교통질서의 4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15차 공산당대표대회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97. 7. 17

쓰촨성 미엔양(綿陽)시에서 국영기업 파산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불만을 품은 노동자 10만여 명이 가두시위를 벌였다. 정부 당국은 이 시위를 강압적으로 진압, 노동자 1백여 명이 부상하고 80여 명이 체포되었다.

한·중 관계

96. 11. 24

장쩌민 국가주석은 마닐라에서 김영삼 한국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중 우호관계가 장기적인 선린우호협력의 길을 따라 부단히 진전되기를 기원하였다.

97. 5. 18~5. 21

유종하 한국 외무장관은 중국을 공식방문해 전기침(錢其琛)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어업협정 체결문제 등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선양(沈陽) 한국총영사관 조기개설을 촉구했으나, 중국 측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양측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데 공동의견을 모았다.

97. 6. 17

북한은 자유무역 경제지대인 함북 나진·선봉시 원정리에 최초의 대(對)중국 국경무역 자유시장인 조·중(朝中) 공동시장을 개장했다.

97. 6. 25

외무부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이 홍콩의 주권반환을 앞두고 23일부터 홍콩 입국사증 신청을 접수하며 발급된 사증은 7월 1일부터 유효하다. 주한 중국대사관외에 홍콩 이민국에 직접 발급신청을 하거나 홍콩의 보증인을 통한 사증신청도 가능하다.

97. 7. 8

상하이에 부산무역사무소가 개소되었다.

97. 8. 12

김수환 추기경이 중국 종교국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방문했다.

97. 11. 4~11.6

서울에서 열린 한·중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항공노선을 한국4개 도시와 중국17개 도시간 총 27개 노선, 주 111회로 대폭 확대기로 합의했다

97. 11. 25

김영삼 대통령은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선교

중국에 1천 명의 신자

중국 국무원은 16일 현재 중국에는 1천여만 명의 기독교 신자와 1만 2천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원 산하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중국의 종교 신앙 자유 상황』이라는 종교백서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 1만 8천 명 이상의 기독교 목회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교회와는 별도로 2만 5천 개 이상의 예배 모임장소가 있다. 이날 발표는 서구선교계의 수치와 차이는 있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백서를 통해 중국의 기독교 및 종교 상황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국민일보 10. 17)



‘중국기독교협의회’, 미 남침례교 연맹과 선교활동 싸고 불화

중국기독교협의회(CCC)는 최근 미국 기독교 최대 교파인 남침례교연맹 국제 선교위원회가 비공식적인 전도활동을 벌여 중국 침입을 꾀했다면서, 일방적으로 남침례교 측에 관계 단절을 통고했다. CCC의 한원자오(韓文藻)의장은 남침례교의 국제선교위원회가 CCC와의 협력을 통한 활동을 벌이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가정교회를 후원하는 등 이중플레이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일보 11. 27)

정치 · 군사 · 외교

장쩌민(江澤民) 방미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미국 방문길에 나선다. 중국 국가 원수의 공식 방문으로는 85년 리셴넨(李先念) 주석에 이어 12년만이다. 중·미 정상회담의 주요 현안은 대만문제와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문제. 그리고 한반도 4자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10. 25)

국제인권규약 정식 서명

중국은 장 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지난 21년 동안 발효되어 온 국제인권 규약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친화쑨(秦華孫)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모든 국가에 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서명했다. (국민일보 10. 28)

북한-중국군, 접경지역 한때 총격전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북한 양강도(兩江道) 혜산(惠山) 근교에서 북한군과 중국군이 충돌, 한때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경 혜산 근교에서 사람들의 출입을 둘러싸고 트러블이 발생, 북한 측이 발포한 데 대해 중국 측이 응사, 쌍방간에 총격전이 벌어졌으나 현재는 진정됐다는 것이다. (한겨레 10. 28)

중국, 미국과 인권-대만문제 미합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몇 가지 주요 현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견해를 보였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인권개선을 촉구하자 장 주석은 “인권과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정의되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맞섰다. 클린턴은 또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과 대만 간의 대화를 촉구했으나, 장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인민의 주권에 관한 문제로 우리는 무력사용의 포기를 약속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동아일보 10. 30)

군수품 수출조례 공포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 자국산 군수품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군수품 수출관리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조선일보 10. 31)

장쩌민 『천안문 유혈진압은 실수』, 하버드대 강연서 과오 인정

미국을 방문중인 장 주석은 하버드대

강연에서 천안문(天安門)사태 당시 자국 정부의 잘못이 있었음을 간접 시인했다. 장주석은 이날 연설이 끝난 뒤 “중국 정부는 왜 민주화세력과 대화하려 하지 않으며, 천안문사태 때 왜 탱크를 투입했느냐?”는 질문에, “우리에게 결점이 있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11. 1)

중·일 새 어업협정 합의

중국과 일본이 새 어업협정 문안에 완전히 합의, 11일 리펑 총리의 일본 방문 때 협정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도쿄(東京)신문이 보도했다. 양국은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 부근 해역(북위 27° 이남)을 협정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에 합의, 그동안 구체적인 수역획정 협상을 벌여왔다.
(동아일보 11. 9)

중·러 국경협정 완료 공동 성명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러간 4천2백 80km의 동부지역 국경선 확정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69년 우수리강 내의 섬인 전바오다오(珍寶島)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무력충돌을 빚는 등 국경분쟁을 벌여왔으나, 이날 국경선 협정을 마무리함으로써 양국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동아일보 11. 11)

중국·대만, 고위급 회담 개최 임박

대만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을 재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2년 간 계속된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 한걸음 전진했다고 중국을 방문 중인 대만의 한 고위 관리가 베이징에서 밝혔다. 중국은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이 지난 95년 6월 미국을 방문한 데 항의, 대만과의 회담을 중단시켰으며 대만의 고위급 접촉 요구를 거부해 왔다.
(중앙일보 11. 13)

중국·대만관계 개선 중대조치

중국은 최근 대만과의 양안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당정 연석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주 초 전국회의를 소집, 대만 문제에 대한 중대조치를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홍콩 신문들이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14일 공산당 중앙위 대만공작령도소조와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공동주최로 3일 간의 당정연석회의를 마쳤다. 첸지천(錢基琛) 외교부장은 당정 연석회의에서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정치회담을 촉구한 장 주석의 8개항 제의를 수락,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11. 15)

웨이징성(魏京生) 석방, 치료위해 미국행

국가 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18년째 수감돼 온 중국의 저명한 반체제 인사 웨이징성(47)이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베이징(北京)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 디트로이트로 떠났으며,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11.16)

베이징 두만강개발 5개국 회의 개막

두만강 지역 개발을 위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 관계자 회의가 17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관해 이들 예정으로 열릴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 남-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속초-나진, 선봉-훈춘 간 카페리 항로에 대한 검토와 2차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
(조선일보 11. 17)

경제

1~9월 305억 달러 무역흑자, GDP 9% 성장

'97년 9월 말까지 중국의 무역 흑자는 급속한 수출증가와 수입정체에 힘입어 3백 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중국해관총서가 밝혔다. 이 기간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한 1천 2백 89억 3천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단지 2.5% 늘어난 9백 83억 6천만 달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인민폐 5조 1천 150

원(미화 6천16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0. 20)

98년 무역흑자 급감 전망

중국의 무역 흑자는 올해 2백여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나 내년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 대외경제협력부의 수석연구원인 리지안은 중국이 최근 관세율과 금리를 인하한데다 외자로 운영되는 하이테크 회사들의 자본재 수입면세 조치도 내년 중 발표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 무역 흑자가 크게 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11. 3)

상하이(上海)에 '미니 홍콩' - 새 항공 상권 부상

상하이시 심장부인 화이하이중루(淮海中路)에 미니홍콩이 들어선다. 홍콩 내 쟁쟁한 8대 부동산업체가 손잡고 대자본을 한꺼번에 동원하여 홍콩 최대의 상업가인 센트럴(中環)과 똑같은 비즈니스 타운을 건설하고 있다. 이 지역의 1km에 이르는 거리는 파리의 샹젤리제나 LA의 선셋 불라바드처럼 가로등에서 휴지통에 이르기까지 유럽정치가 물론 배어 나올만큼 이국적이다. 앞으로 녹지 조성은 물론 육교엔 에어컨까지 설치된다. 사무실 뿐만 아니라 대형 백화점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쇼핑의 '골든트라이앵글(황금 삼각지대)'을 형성할 전망이다.
(중앙일보 11. 5)

국내외 기업에 외화계좌 개설 허용

중국은 최근 외환보유고가 최근 1천 3백 40억 달러에 육박, 달러화에 대한 인민폐 가치의 절상 압력이 거세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해외 투자자에 대해 외화표시 주식 매매를 위한 외화구좌 개설을 허용했다고 홍콩의 「명보(明報)」가 보도했다.
(중앙일보 11. 5)

서비스 6개 분야 개방

중국은 항공운송과 관광·법률 컨설팅·공하관리·국제무역·상거래 등 서비스 6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신화(新



華)통신이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조 기 가입을 위해 내린 것이다.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6만 여개 기업과 매출액 2천51억 원(한화: 약 22조 원)에 이른다.
(동아일보 11. 6)

관세 인하로 수입 증가

10월중 중국의 수입은 지난달 초 6%의 관세 인하로 크게 늘어났다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신문에서 통관증의 물품을 뺀 중국의 수입이 9월 대비 14.8%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96년 10월에 비해서는 17% 늘어난 것으로 작년 초의 감소 추세가 역전됐음을 반영한다.
(국민일보 11. 15)

중, 금융개혁 추진키로

중국은 20일 한국과 동남아의 금융위기가 중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 내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걸맞는 금융기구 체계 및 금융시장 개혁방향을 확립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11. 21)

중국 통화위기 가능성 대비 움직임

동남아 국가들이 통화위기를 맞이하자 중국도 통화위기의 가능성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울들어서도 9%대의 안정적 성장기조 아래 물가를 1~2%선으로 억제하는 한편, 외환보유고도 1,4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해 외환상 어느 나라보다

탄탄한 금융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런 금융 안정은 단기적인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는 앞으로 다칠 지 모를 금융위기 대처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3년 안에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11. 22)

사회

황하물길 바꾼다...댐공사 위해 인공 운하로 돌리

산사(三峽)댐이 건설되고 있는 중국 창장(長江)에 이어, 황하(黃河)도 댐 공사를 위해 물길을 돌리게 됐다. 이것은 황하에서 이뤄지는 금세기 최대의 역사라는 샤오랑디댐 공사를 본격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황하는 댐이 건설되는 허난(河南)성 뤼양(洛陽) 부근에서 원래 물길 중 일부가 방향을 틀어 인공수로로 따라 흐르게 된다.
(동아일보 10. 24)

FBI, 중 사형수 장기 밀매 수사

미연방수사국은 중국 군이 이식을 필요로 하는 미국 시민에게 처형된 죄수의 신체기관을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장기판매 문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ABC방송은 지난 15일 「뉴욕의 한 중국어신문에 장기 이식 광고가 실린 적이 있으며 중국

군 관계자가 신장과 다른 신체기관을 이식용으로 외국인에게 3만 달러에 팔 것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측은 장기 판매주장이 순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신체기관의 판매는 중국에서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0. 24)

중국 인구 2050년 16억 명

중국 인구는 2050년에 16억 명으로 최고에 이르나 그 뒤로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텐슈에위엔(田書原)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문제연구소장이 밝혔다. 텐 소장은 28일 충칭(重慶)에서 개최된 전국가족계획담당자 연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은 지난해 말 기준 12억 2천 3백여만 명의 인구를 2000년까지 13억 명 이내에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지속적인 인구증가 억제 노력을 기울일 경우 2010년의 인구는 14억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일보 10. 29)

“노래방”급속 확산...수입도 쏠쏠

한국의 노래방에 기원을 둔 새로운 오락형식 「롄가팡(練歌房: 노래 연습실)」이 지난해부터 중국 동북지방에 상륙한 것을 시작으로 수도 베이징에서도 급속하게 유행하고 있으며 이를 경영하는 업주들의 수입도 쏠쏠한 편이라고 중국문화보(中國文化報)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에는 작년 말부터 월급생활자들을 주고객층으로 삼는 롄가팡이 생기기 시작해 지금은 수십 곳에 이르고 있다면서, 밤시간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10. 30)

양자강 산사댐 물막이 공사 완공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산사(三峽) 댐 건설을 위해 창장(長江)의 커다란 물줄기를 차단하는 물막이 공사가 착공 5년만인 8일 오후 완공됐다. 산사댐 물막이 공사는 중국 후베이(湖北)성 이창(宜昌)시에서 30km 떨어진 산사 하단부의 창장 양안을 총길이 2천 4백 38m의 제방 두 개로 연결하는 공사다.

리펑 총리는 “창창 물막이 공사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가 엄청나다”며 “이는 전세계에 중국 인민의 일류 수력발전소 건설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11. 9)

신장, 티베트자치구에 강진 발생

중국 북서부의 신장 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자치구에서 8일 리히터 규모 6.3~7.9에 이르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신장자치구 남부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의 진앙은 티베트과의 접경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 중국 기상당국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는 주민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11. 9)

문맹퇴치 발 벗고 나섰다

중국의 성인문맹자는 1억 4천 5백만 명으로 전세계 문맹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국문맹퇴치공작부는 밝혔다.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문맹자는 90%가 농촌에 살며 노년층과 여성의 문맹비율이 월등히 높다. 중국의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 문맹률은 약 17%. 문맹퇴치 작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문맹자가 산간지구, 빈곤지구, 소수민족지구 등지에 산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 11. 13)

HIV감염자 20만 명 추정

중국 본토의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 수가 지난해 말 5천1백57명에서 올해 6월 말에는 7천2백53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자 수가 15만~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개방된 지역인 광둥(廣東)성에서만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보고된 에이즈 환자가 작년 동기보다 19명 많은 73명이었다. 중국 보건당국은 위생부 관리들을 비롯, 중국성병협회, 홍콩에이즈기금 등의 관계자들로 강연단을 구성, 오는 24일 홍콩에서 출발해 베이징까지 철도로 이동하며 5개 도시에서 에이즈 예방 순회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중앙일보 11. 15)

인터넷망 20배 확대 계획

중국은 미국의 ‘AT&T’사로부터 초고속 접속 설비를 지원받아 인터넷 수용능력을 지금보다 20배 확대할 계획이라고 ‘AT&T’사가 밝혔다. 중국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정보 접속 시스템의 용량은 초당 2메가비트에 불과하다. 중국은 T-45를 통해 상하이의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11. 15)

중, 국내항공요금 최고 40% 인하

중국민항 중국은 여객의 신분과 이용시간, 이용횟수 등에 따라 항공료를 5~4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를 조만간 도입,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민항이 밝힌 할인의 유형은 크게 3가지. 첫째는 이용자 유형에 따른 것으로 ▲노인 ▲교사 및 학생 ▲군인 ▲장애인 ▲일가족 ▲단체승객 등이다. 둘째는 항공기 이용시간에 따라 오전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 아침 첫 항공기 이용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왕복요금 ▲예매요금 ▲즉석 구입요금 ▲단골 고객요금 등에도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조선일보 11. 20)

2020년 「관광대국」 된다

오는 2020년에는 중국이 매년 1억 3천 7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세계 최대 관광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세계관광협회가 발표했다. 중국은 매년 8%씩 관광객 수가 증가, 2020년에는 세계 관광시장의 8.6%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동아일보 11. 24)

웨이징성, “중국 최고 지도층 육중구타 묵인”

중국의 저명한 반체제 인사 웨이징성은 “사법부의 지시로 감방에서 정기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며 이같은 구타 지시는 장쩌민 주석과 리펑 총리의 허락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웨이는 또 “장쩌민이 집권한 이후 인권이나 민주 발전에 큰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89년

천안문광장 민주화시위 학생 학살 이후 정치범의 수는 비례적으로 증가, 중국 관리들이 제시하고 있는 2천 명의 몇배는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선일보 11. 26)

한·중 관계

중국 진출 한국기업 현지인 체벌 등 인권 유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종업원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중국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외국 합작업체로 낙인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합작기업의 노사분규 원인은 대부분 연장근로, 숙소조건 등이나 체벌과 같은 인권문제도 많지는 않지만 노사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1. 5)

한, 중 항공노선 대폭 확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중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항공노선을 한국 4개 도시와 중국 17개 도시간 총 27개 노선, 주 1백 11회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서울에서 장춘, 하얼빈, 시안, 충칭, 옌타이, 우루무치, 꾸이린, 쿤밍, 우한, 광저우 등 중국의 10개 도시에 주 2~5회의 여객노선을 신설하고, 부산 및 대구에서 칭다오에 각각 주 3회, 제주에서 베이징과 상하이에 각각 주 3회 여객노선을 새로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일보 11. 8)

한·중 정상회담 이모저모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새벽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공동 관심사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장주석은 김 대통령과의 이번 회담이 여섯 번째인 점을 상기하면서 “이번에 다시 만나는 것은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우정을 다진다는 뜻의 ‘중봉’”이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일보 11. 25)

중국어문선교회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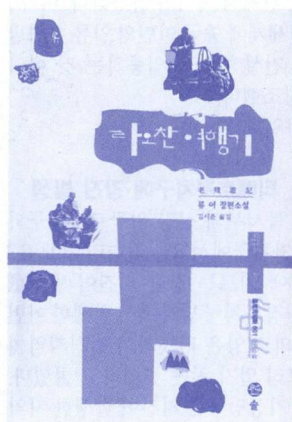
티베트에서의 7년

하인리히 하러 · 박계수 역 · 황금가지
285쪽 · (1),(2)권 · 각 6,500원



광둥성을 알자

홍콩훈련원 편역 ·
한국어린이전도협회
323쪽 · 8,000원



랴오산 여행기

류어 저 · 김시준 옮김 ·
솔 출판사
404쪽 · 8,000원

1912년 오스트리아 휘텐베르크 캐르텐에서 출생한 하인리히 하러는, 젊은 시절 뛰어난 스키 선수로 올림픽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이름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그라츠대학 재학 중 아이거 북벽을 세계 최초로 정복한 등산가이기도 하다. 26세이던 1936년 히말라야 낭가 파르바트 등반 원정대에 참가하여 정찰하던 중,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도의 영국군 포로 수용소에 억류되었다가, 몇 번의 탈출 시도 끝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중립국인 티베트로 탈출하여 일곱 해를 그곳에 머물렀다. 그 때의 건문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십대의 독일 젊은이의 필치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태초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전해진 맑고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펼쳐지는 티베트의 종교, 문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50년대에 쓰여진 이 책은 중국이 점령하기 전 유일한 신정국가였던 티베트를 사실 그대로만 훑고 있어,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행문학의 고전으로 손꼽히고 있다.

“중국은 인종언어학적으로 169개의 종족으로 구분된다(Ethnologue, 1992년). 랄프 윈터는 인종학적인 구분에서 사회학적인 구분까지 가미한 결과, 169개의 종족을, 900개의 종족 집단으로 세분화시켰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언어 구조가 복잡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지역 선교를 향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런 취지 아래 홍콩 훈련원에서는 『광둥성을 알자』를 출간하였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홍콩은 자연스럽게 광둥성(廣東省)의 한 도시가 되었다. 따라서 홍콩에 집중되었던 관심이 진일보하여 광둥성까지도 집중 관심거리가 되면서 독자들이 하여금 비교적 친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중국은 남한의 97배, 전세계에서 3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이다. 이 거대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는 선교사에게 지역 또는 어군(語群)에 대한 부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광둥성이야말로 전 중국 복음화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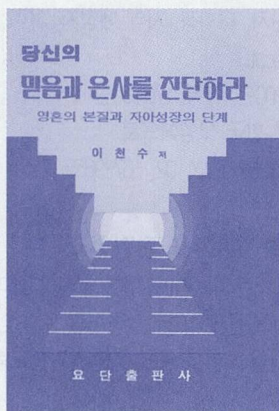
이 책은 청나라 때를 배경으로 하여 쓴 소설로, 서구 열강의 침탈과 내부의 부패로 격동하는 시대의 파도 위에서 침몰해가는 중국의 모습, 그것을 구제하고자 애쓰는 열린 지식인들의 열망과 좌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랴오산 여행기』는 주인공 랴오산의 여행을 통해 과거 병폐가 누적된 봉건관료 사회와 낡은 사회제도를 통렬하게 풍자한 사회비판소설이다.

주인공 랴오산(老殘)은 '노쇠한 중국'이라는 환자를 치료하려는 열정에 가득 찬 구세대의 열린 지식인이다. 청렴하다는 것을 내세워 오히려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출세지향적 관료들에 대한 랴오산의 비판은 탁월하다.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은 탐관오리라고 하는 백성들의 일반적인 선입견에 대해 의표를 찌르는 통쾌한 풍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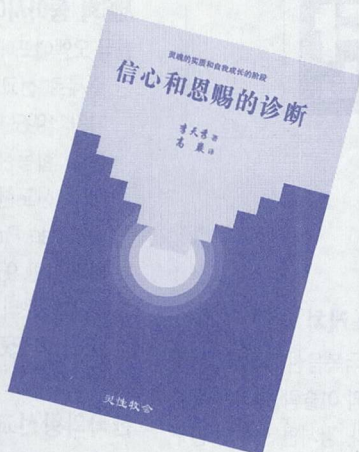
그러나 비록 이 책이 소설이긴 해도, 중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지식인으로서, 주인공이 결국 도사와의 대화를 통해 제시되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들어야 하는 것은 지식인다운 행위로는 안타까운 결말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의 사고에 얼마나 무속적이며, 뿌리깊은 종교성이 자리잡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당신의 믿음과 은사를 진단하라」

李天秀 著 · 高嚴 譯



중국어 번역본 「信心和恩賜的診斷」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갔으나 “무엇인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아서 좌절한 양심적인 지성인들을 위하여 이 책은 쓰였다.

능력을 체험하고 산이라도 옮길만 한 자신이 생긴 은사체험자들에게 덕스럽고 계속적인 영적 성장에 지침이 되도록 이 책이 쓰였다.

개인이나 교회적으로 “은사문제”로 고민하는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이 책은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확실한 체험이 없고 또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이 쌓여 풀리지 않는 분을 위한 좋은 지도서로써 이 책은 쓰였다.

처음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 어떻게 믿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생활인지 차곡차곡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멀리(객지, 병상, 외국)가 있는 친척 친구에게 말씀의 선물을 하고 싶은 분에게 이 책은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중국선교를 하시는 분이나 중국분은 중국어 번역본을 구입할 수 있다.

연락처

Tel. 032) 884-0091 인천 목양신앙훈련원

02) 764-8291 영성목회 상담소

선교단

중국의 이슬람 세미나 스케치

지난 11월 27일(목) 오후 7시,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는 “중국의 이슬람”이라는 주제로 중국선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인 한윤숙 연구원은 중국 이슬람의 역사 및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슬람의 특성과 지위를 조명하였다. 그리고 중국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는 현재 개혁개방 시기의 중국이 주는 제한과 기회를 잘 파악하고, 각 이슬람 민족에 대한 상황 이해와 연구가 선결되어야 하며, 개혁개방 시기에 필요한 비지니스, 사회사업가, 유학생 등의 신분으로 다양하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3월 세미나

일시: 1998년 3월 5일 ~ 6일

주제: 최근 중국 텐트메이커 선교와 소수민족 선교의 모델과 실제

강사: 로널드 위 목사(미국 중국복음선교회 대표)

시간: 저녁 7시 ~ 9시

장소: 여한중화기독교 한성교회 소강당

자세한 문의는 <중국교회와 선교연구소>로

TEL. 02) 318-6867

훈련받을 일꾼을 찾습니다

GMTC 17기 선교사 훈련생 모집

한국해외선교회 한국선교훈련원(GMTC)에서는 타문화권 선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기간: 98년 8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마 감: 98년 5월 말

자세한 문의는 한국선교훈련원으로

TEL. 02) 649-3197, FAX. 02) 647-7675

제6회 동아시아 선교캠프

한국 오엠에프에서는 “21c OMF의 아시아 선교전략”이란 주제로 선교캠프를 갖는다.

기간: 1998년 1월 19일 ~ 22일

장소: 합동신학대학원(수원 소재)

대상: 선교현신자, 대학생, 사역 예정자

강사: Ian Prescott

회비: 1인 95,000원, 부부 170,000원

자세한 문의는 한국 오엠에프로

TEL. 02) 555-3958, FAX. 02) 567-9859

한국외향선교회 '98겨울 단기선교

한국외향선교회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역사와 효과적인 전도방법,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아야할 문화, 언어 및 안전 여행에 관한 훈련을 위해 겨울 단기선교팀을 모집한다.

기간: 1998년 2월 2일 ~ 2월 13일

여행비용: 75만 원(비자비용 포함, 여권 제외)

준비훈련: 98년 1월 6일 ~ 1월 30일

(매주 화, 금요일 오후 7시)

훈련비: 5만 원

자세한 문의는 외향선교회로

TEL. 02) 324-3747, 335-3445, FAX. 02) 335-4951

총회선교훈련원(M.T.I)제32기 훈련생 모집

총회 선교훈련원에서는 5개월에 걸쳐, 선교학을 비롯하여, 공동생활 훈련과 경건 훈련 등 해외 선교지에서 필요한 총체적인 훈련을 위한 제32기 정규훈련생을 모집한다.

기간: 98년 2월 16일 ~ 7월 10일

서류 마감: 12월 19일까지

장소: 총회회관 6층(대치동) 선교훈련원

자격: 총회 선교사 후보에 걸림사유가 없는 자

자세한 문의는 총회선교훈련원으로

TEL. 02) 538-9095, FAX. 02) 569-9173

선교복덕방

일꾼을 찾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간사를 찾습니다.

선교의 소명이 있는 분으로 중국어를 구사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역내용: 인천항 중국인선원 전도사역, 중국어성경 반 협력, 지원, 대내외 홍보, 재정 및 사무행정 등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전화팩> 간사
☎ 032)872-0742 호출: 015-8483-6807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간사를 찾습니다.

하나님나라를 위해 뜨거운 젊음을 불태우시지 않으렵니까?

문헌정보자료 정리 및 중국선교 연구에 관심과 은사가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연구부에 대한 모든 문의는 권수영 간사에게

전자우편: 하이텔, 천리안 ID : sinim

인터넷 메일 sinim @hitel.kol.co.kr

☎ 02)533-5497 팩스: 02)599-2786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글을 잊어버려 우리 말을 잘 못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자녀가 그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곳 동북아시아 지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주말 한글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을 가르칠 초등학교 선생님이 부족하여,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교육과목: 성경, 국어, 사회(국사)

특별활동: 탁구, 수영, 작문

교육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오후 4시

☎ 02) 533-5497 (석은혜 간사)

동북아시아 지역에 386, 486급 중고 컴퓨터가 50대 필요합니다.

이 지역의 소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86, 486중 자판기와 본체가 필요합니다 (모니터는 부피가 크므로).

연락처

☎ 02)592-0132, 533-5497(석은혜 간사)

중국 C시 애화학교 유치원에서 1998년도 사역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분: 정교사 3명, 행정부분 1명, 음악(피아노), 미술교사1명 (단기로6개월도 가능합니다.)

문의: 중국사랑 선교회, 강우찬 간사

☎ 02) 3664-1354

단기선교사를 찾습니다.

사역기간: 1년 이상(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사역지: 동북 아시아

사역내용: 피아노 교사, 원예 전문가,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경력은 비전공자도 가능)

문의: 두란노 해외선교회

☎ 02) 793-7769(직통),

796-1300(교한202) 팩스: 749-5498

제15대의 폐막과 강택민 지도체제의 확립

지난 9월 12일 강택민 총서기의 정치보고를 시작으로 시작된 중국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이하 15대)가, 중앙위원회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한 강택민 체제의 공고화와 국유기업개혁을 골자로 하는 지속적인 경제개혁의 추진이라는 양대 성과 속에서 지난 18일 성공적으로 폐막되었다. 등소평 사망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대표자대회라는 점과 21세기를 겨냥한 중국공산당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15대는, 폐막에 앞서 193명의 중앙위원(중전 189명에서 확대)과 115명의 중앙기율검사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차액제 방식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중국공산당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江澤民 총서기의 권력기반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중앙정치국 위원(기존의 20명에서 22명으로 확대)과 상무위원의 선출에 있어서도, 강택민은 자기 사람을 대거 기용함으로써 내부권력 강화와 정치국내 세력균형 다지기에 성공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¹⁾

15대 인사의 특징

중국공산당은 18일 중앙위원 선거를 통해 당내 서열 3위인 교석(喬石,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서열 6위인 유화청(劉華清, 중앙군사위 부주석), 추가화(鄒家華, 부총리), 양백빙(楊白冰) 등 4명의 중앙정치국원을 탈락시키고, 위건행(尉健行), 이람청(李嵐清), 온가보(溫家寶), 장만년(張萬年), 지호전(遲浩田), 이장춘(李長春)을 중앙정치국원에 새로이 선출했다. 뿐만 아니라 장만년 부주석과 함께 상해와 중에서도 대표적인 강택민 측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경림(賈慶林)과 증경

홍(曾慶紅, 중앙판공실 주임)을 각각 정치국위원과 후보위원에 발탁했다. 이러한 인사는 강택민 중심의 세대교체라는 정권안정적인 특징을 정점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중앙위원과 중앙정치국에 젊고 유능한 테크노크라트들을 대거 발탁한 반면 군부대표를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배제시켰다는 점이다. 즉 193명의 전체 중앙위원 가운데 신규 당선자는 56.5%인 109명으로 절반 이상의 물갈이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전체 중앙위원의 평균연령에 있어서도 55.9세로 14대의 56.3세에 비해 0.4세가 낮아졌으며 55세 이하가 전체의 약 46%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국위원의 거의 대부분이 테크노크라트들로 구성되어 있어 강택민 총서기의 세대교체와 경제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다.

둘째, 중국지도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강택민 총서기 중심의 인물로 구성된 것을 비롯, 강택민 총서기에 의해 주요 포스트에 기용됐던 각 부문의 젊은 간부들이 대거 중앙위원회에 발탁됨으로써, 그의 권력기반 강화는 물론 세대교체를 통한 새로운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즉 15대에서 결정된 중앙정치국 위원을 볼 때 기본적으로 강택민 중심의 권력기반이 확립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공산당이 집단체제에서 모택동, 등소평 시기의 같은 1인 지도체제로 전환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즉 위건행, 전기운(田紀雲), 이서환(李瑞環), 이철영(李鐵映)은 비록 이서환이 북대하(北戴河)회의에서 강택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교석(喬石)의 지지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비(謝非), 오관정(吳官正), 이장춘(李長春) 등 지방출신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출신지역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 이 글은 『明報』 9월 20일자(일간지), 『人民日報』 9월 20일자, 『新華』 9월호, 김정계, 『중국의 권력구조와 파워엘리트』, 국내 주요 일간지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임.

이람청, 전기침, 오의, 강춘운 등 기술관료적 성격이 짙은 사람들은 교식이라는 정치적 거물이 제거됨에 따라 부처의 이익에 따라 지지를 결정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강택민 총서기가 이끄는 집단지도체제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집단지도체제의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강택민 총서기의 영도력과 상무위원 내부의 세력균형이라는 변수에 의해 규정받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앞서도 밝혔듯이 강택민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의 안정적인 기반의 확립은 이번 인사를 통해 가시화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국공산당의 정치경제 체제의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도부의 구성에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치국의 강택민 사람들

강택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맥만들기에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택민의 이러한 인맥만들기는 결과적으로 15대에서 정권안정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강택민 중심의 집단지도체제의 안정성이 기본적으로 정치국 내에서의 강 총서기의 장악력, 혹은 세력균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볼 때 정치국 내의 강택민 인맥관계에 대한 파악은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中國共產黨 中央政治局 常務委員

이봉(李鵬)

1. 나이 : 1928년 10월 생
2. 출신지 :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상해 출생)
3. 주요경력
모스크바 power institute 전력학과 유학. 고급공정사.
1941년 46년까지 연안(延安)자연과학원, 연안중학, 장가구(張家口)공업전문학교 학습
1945년 중국공산당 가입
1949년 소련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모스크바 동력대학에 입학.
1955년 귀국 후 당시 중국 최대의 수력발전장인 길림(吉林) 풍만(豐滿)발전장에서 근무
1966년 북경 공전국(供電局) 당위 대리서기. 국혁명위원회 주임 및 북경 전력관리국 당위 부서기 등 역임
1979년 국무원 전력공업부 부부장 승진
1982년 중국공산당 제12기 중앙위원 당선
1983년 국무원 부총리 당선
1984년 국무원 전자진흥영도소조 조장(부조장은 강택민)
1985년 국가교육위원회 주임 겸임(1988년 사임).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에 당선
1987년 정치국 상무위원 당선. 11월 조자양(趙紫陽)이 총리직을 사임함으로써 대리총리가 됨
1988년 정식으로 국무원 총리에 당선.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

회 주임직을 겸임(1990년 사임).

4. 특징 : 주은래, 등영초(鄧穎超)의 후광을 입고 성장. 연안중학 출신들이 정치적 배경 형성. 천안문사건 당시 단독으로 계엄 선포. 강택민 측근으로 평가.

주용기(朱鎔基)

1. 나이 : 1928년 10월 생
2. 출신지 : 호남성(湖南省) 장사(長沙)시
3. 주요경력
청화대학 전기공정과(電氣工程系) 졸업, 고급공정사
1947년 청화대학 입학. 재학 중 중국공산당 지하당 조직 활동
1949년 중국공산당 가입
1952년 고강(高崗)과 이부춘(李富春)의 총애로 국가계획위원회 연동국과 종합국 조장으로 임명
1957년 대명대방(大鳴大放)운동이 일어나자 우파분자로 낙인, 당적박탈로 하방(下放).
1962년 국가계획위원회 국민경제종합국 공정사로 복귀
1970년 75년까지 다시 하방(下放).
1978년 명예회복 당적 회복. 마공(馬共)²⁾의 추천으로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이 됨.
1982년 85년까지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위원 겸 기술개조국장. 청화대학 경제관리학원 원장.
1987년 조자양(趙紫陽)과 송평(宋平)의 추천으로 상해시장 및 당위 부서기가 됨.
1989년 상해시 당위 서기 겸임(전임은 강택민)
1992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당선. 국무원 상무부총리(제1부총리) 겸임
1993년 중국인민은행장 겸임
4. 특징 : 두 차례에 걸쳐下放당한 경험이 있음. 淸華大 경제대학 원장을 역임한 학구적 간부. '중국경제의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박일파(薄一波), 교석(喬石)의 정치적 후원을 받고 성장.

이서현(李瑞環)

1. 나이 : 1934년 9월 생
2. 출신지 : 천진시(天津市)
3. 주요경력
소학 4년 중퇴, 북경 건축공정영어대학(建築工程業餘大學) 6년 6개월 수학
1958년 北京 제3건축공정공사 목공 청년돌격대장 역임. 이 당시 萬里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음
1964년 중국공산주의 청년단(共青團) 제9기 중앙위원 당선(共青團 제1서기 호금도(胡錦濤))
1971년 문화대혁명 당시 박해를 받은 이후 북경건축목재창 당위서기, 북경시 建材局당위 부서기 역임
1977년 모택동기념당 공사현장지휘부 당위 서기
197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북경시 대표, 同 상무위원, 전국총공회위원 당선

2) 馬洪은 1950년대 동북인민정부 부부서장에 재임 중 '고강사건'으로 장기간下放된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1981년 共青團 중앙서기처 서기, 천진시 부시장(시장 호계립(胡啓立))

1982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천진시장 당선. 49세로 최연소 영도가 됨.

1987년 黨중앙정치국위원

1989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1993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8기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정협 주석

4. 특징: 빈농출신으로 목공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까지 오른 자수성가형 간부. 1958년 북경인민대회당 건조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만리와 호요방(胡耀邦)과의 친분 형성. 1986년 말-1987년 초 총리 선임 때 조자양의 부동의으로 이붕이 총리가 됨. 천안문 사건에 대해 양비론(兩非論) 주장. 대표적인 교석계열로 파악되었으나 지난 북대하(北戴河)회의에서 강택민지지를 표명함.

호금도(胡錦濤)

1. 나이 : 1942년 12월생

2. 출신지 : 안휘성(安徽省) 적계현(績溪縣)

3. 주요경력

청화대학 수리공정과(水利工程系) 졸업

1974년 75년까지 감숙성(鑑肅省) 건설위원회 비서

1975년 80년까지 감숙성(鑑肅省) 건설위원회 설계관리처 부처장(당시 감숙성(鑑肅省) 당위 제1서기는 송평(宋平))

1982년 중공 중앙후보위원, 共青團 중앙 서기처 서기, 전국정협상무위원

1985년 귀주성 당위 서기

1988년 서장(西藏)자치구 당위 서기, 서장 군구 당위 제1서기

1992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겸임.

1993년 중앙당교(中央黨校)교장

4. 특징: 상무위원 중 가장 나이가 적음. 중국정계에서 태자당이 아닌 평민당으로 분류. 1988년 서장자치구 당위서기에 전임될 당시 일어났던 '서장독립' 요구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박일과 등 원로들과 등소평, 진운(陳雲)의 신임을 얻음. 송평의 추천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에 발탁.

위건행(尉健行)

1. 나이 : 1931년 1월생

2. 출신지 : 절강성(浙江省) 신창현(新昌縣)

3. 주요경력

대련공학원 기계과 졸업, 고급공정사

1949년 중국공산당 입당

1953년 55년까지 소련 유학 기업관리 전공

1966년 문혁기간 중 하방되어 노동개조

1981년 83년까지 하얼빈시 당위 부서기, 동 서기처 서기

1982년 제12기 중공 후보위원

1983년 84년까지 전국총공회(全國總工會) 부주석, 동 서기처 서기

1984년 당중앙조직부 부부장(부장은 교석)

1985년 당중앙조직부 부장

1987년 93년까지 국무원 감찰부 부장

1992년 제14기 중공 중앙위원, 중앙정치국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감찰부 부장(93년까지)

1993년 중화 全國總工會 주석

1995년 북경시위원회 서기 겸임

4. 특징: 새로 발탁. 교석과 동향(同鄉). 교석의 후원으로 성장. 강택민이 위건행을 기용한 것은 교석을 달랜다는 분석도 있으나 위건행의 청렴함을 인정한 강택민이 반부패운동의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그를 중용했다는 분석도 가능함. 즉 강택민은 9월 12일 15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부패는 당과 국가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못박고 부패에 대한 영구적인 전쟁을 선포한 바 있음.

교석 계열로 평가.

이람청(李嵐清)

1. 나이 : 1932년 5월생

2. 출신지 : 강소성(江蘇省) 진강(鎮江)

3. 주요경력

상해 복단대학 기업관리과 졸업

1952년 중국공산당 입당

1956년 57년까지 소련 모스크바 과건 자동차공장 실습대대장

1961년 69년까지 국가경제위원회 비서(주임 박일과)

1969년 72년까지 문혁으로 국가경제위원회 '五七'간부학교에서 下放

1981년 국가수출입 관리위원회 정부차관 판공실 책임자

1982년 대외경제무역부 대외관리국장

1983년 88년까지 천진시 부시장 겸 市대외무역 당위 서기(시장 이서환)

1987년 중공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당선

1990년 93년까지 대외경제무역부장, 黨組 서기, 국무원 경제무역판공실 부주임(주임 주용기)

1992년 중공 중앙위원,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발탁

1993년 국무원 부총리

4. 특징

새로 발탁. 뚜렷한 정치적 배경이 없음. 중공 제13기 중앙후보위원에서 제14기 정치국위원으로 고속 성장(대외무역부의 성과와 천진시 재임 중 성과 인정). 신문이나 잡지에 자주 논문을 발표함.

출처/『북방동향』 97년 10월호

선교서안내

중국선교 소책자 시리즈

- | | |
|--------------------------------------|--------|
| 1.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조나단 차오 저 | 1,500원 |
| 2.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中文聖經信譯會 저 | 1,500원 |
| 3. 만남/ 中國教會中心 저 | 2,000원 |
| 4. 전도중국어/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역(Tape:1,000원) | 1,500원 |

중국어 학습 교재

- | | |
|--|---------|
|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1,000원) | 2,000원 |
| 2. 經文背誦 (Tape:1,000원) | 1,500원 |
| 3. 神愛世人 (Tape:1,000원) | 2,000원 |
| 4. 我的第一本聖經 (Tape:1,000원) | 2,500원 |
| 5. 信仰讀本
(Tape 2개:2,000원) | 5,000원 |
| 6. 中國語 신약성경(和合本/한어병음 표기)
(Tape 19개:25,000원) | 12,000원 |
| 7. 中·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트 출판사) | 900원 |
| 8. 중국어 신구약 성경(번체자, 주음부호)
중국어 찬양 Tape | 30,000원 |
| 9. ◆ 耶和華是我的牧者(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 4,000원 |
| ◆ 我的中國心(나의 중국 마음) | 4,000원 |
| ◆ 是愛(사랑은) | 3,000원 |
| ◆ 奉主耶穌的名 | 3,000원 |
| 10. 종합선교중국어 | 8,000원 |
| 11. 讚美歌 | 5,000원 |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CCL 소책자 소개]

真理的尋索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진리)

존 스토틀(J.R.W. Stott-) 저/ 시에쯔위(謝志偉) 역/ CCL(복음증주협회)/
간체자(簡體字)판



존 스토틀은 중국 대륙 성도들의 충애를 받는 얼마 안 되는 서구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중국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시작으로,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근거 및 권위있는 언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한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이다.

중국 성도들이나 국내 중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해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CCL 협력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책자와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소책자와 양육·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이 갖고 가는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 차이나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594-8038



중국어 연수 및 유학생모집

현직 어언학원 교수
및 강사진이 직접
출강합니다

北京信息工程學院

장기반/ 학비+기숙사비+식비= \$1,400(6개월)
(개강날짜 9월, 3월)

단기반/학비+기숙사비= 350\$(여름, 겨울→4주)

- 비자문제해결(JW202)
- HSK시험 한달 준비반 개설
- 교내 한국식당운영 가능
- 다양한 커리큘럼(초급·중급·고급)

북경신식공정학원(北京信息工程學院)

☎ 001-8610-6291-3619

야간 001-8610-6231-6593

Fax. 6291-5980(북경)

서울연락처 02) 533-5497(석은혜)

B.P 015-8532-5497

경인장로교회 ☎ 02)694-3291~2, Fax.694-3278

중국선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중국선교훈련 12기 훈련생 모집

선교현장에 임하기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함은 선교사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실하게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입니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투자하는 6개월은 결코 많은 시간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 상

교회,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 선교사.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 선교사.

참가인원

10명 내외.

선 발

본 훈련원의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 능력 배양.
생활중국어와 선교 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중국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 구체화.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97년 12월 15일~98년 1월 17일

원서 접수 순서대로 면접하여 합격예정자를 결정, 개인 통보하고
훈련원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등록한 순서에 따라 합격 인원을
확정함.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1통
서약서(소정양식) - 1통
추천서(소정양식) - 3통
자기 소개서(소정양식) - 1통
위탁서(소정양식)-1통

원서대금 및 접수비 : 원서대금 1,000원, 접수비 10,000원

개강예배

98년 3월 2일(월) 오후 1시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제13기 훈련은 98년 9월에 개강합니다

훈련내용

언어(선교중국어 집중훈련)

본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며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생활중국어는 물론 성경, 전도, 찬양 등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함.

교육내용

1학기(8주) 초급중국어1·2, 선교중국어 기본어휘, 사도신경, 주기도문,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2학기(8주) 중국어성경,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신앙독본, 청력 훈련

연구(중국문화 및 선교 연구세미나)

매주 전문가들의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중국문화와 중국선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임.

세미나 주제

중국선교개관, 중국고대사상, 중국의 정치, 중국문화 개관, 중국역사, 중국의 종교정책, 중국의 교육제도, 유교사상의 이해, 중국교회 현황과 선교전략 연구, 중국기독교사, 중국 선교지리, 최근 정세변화에 따른 선교대책, 근대 중국선교사와 선교방법론, 중국의 미전도종족, 타문화권 선교,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협력방안 등

합숙(중국어 공동체 훈련)

1회에 걸친 합숙훈련을 통해 강도높은 언어실습, 공동체 섬김 및 문화충격에 대한 적응능력 배양.

현지 연수과정 및 답사

언어실습, 문화적응, 선교비전의 확인을 위하여 98년 7월 중에 현지언어연수(4주) 및 답사(10일)를 실시.

훈련기간

1998년 3월 2일 ~ 1998년 8월 30일(6개월)

일 시

매주 월요일~금요일.

문의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 - 7(신우빌딩 402호)

우137-069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TEL: 535-4255, 594-8038

FAX : 599-2786

담당: 나은영 총무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선교훈련원(원장:박성주 장로)은 중국선교를 위한 언어 훈련과 중국문화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8년 1·2월호(통권49호)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위원/ 강성광·김중산·김종하·김피득
왕쓰웨이·지인성·한수아(가나다 순)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차이나이민선
권수영·김은희·안정숙
편집디자인/ 정광숙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7년 12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 ☎ 02) 275-5963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 0344)906-9191 ~4
값/ 4,500원
(1년 정기구독 24,0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CCL 협력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B01호
전화: 032)872-0742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 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주시요

☆ PC 통신 천리안, 하이텔

sinim



편집후기

우리 모두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위축된 마음으로 불안한 미래를 염려하며, 힘겨운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던 다시스 행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요동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국호'는 풍랑 속에서 속수무책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요나처럼 '내 탓이오' 고백하며 저 바다 끝까지 던져질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진실된 회개와 결단의 기도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살길을 열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바 선교의 사명은 결코 위축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사는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뚫고 전진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드리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 막다른 골목의 헌신, 자기를 살리고, 선교를 살리고, 결국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되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교에 동참하시는 독자 모든 분들께, 기도온 삼백 용사에게 내리셨던 승리의 역사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외 정기구독료(1년)

항공우편

1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24,000원, 우편료 12,900원, 합계 36,90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24,000원, 우편료 17,400원, 합계 41,40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덜란드, 파키스탄 책값 24,000원, 우편료 19,200원, 합계 43,20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24,000원, 우편료 31,200원, 합계 55,2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 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137 - 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137 - 069

중국을 주제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화(02-592-0132, 02-533-5497)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주십시오

시중은행 99번 창구/ 지로번호 7602362(정기구독으로 표시)

국민은행/ 008-01-0454-178(예금주: 박성주)

독자카드(1998년 1.2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제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서

1.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십시오.

☐ 신규구독

☐ 재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 1년 24,000원(6권) ☐ 2년 48,000원(12권) ☐ 3년 72,000원 (18권)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이 름	(남, 여)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 (통 반) 출석 교회
주소변경	회원번호	
	변경주소 (우 -)	(통 반)



중국을 주께로 기도함주회

오늘처럼 기도가 요구되는 시대가 있을까요?

그러나 요즘처럼 기도가 잠들어 있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을 열어 짓히는 열쇠입니다.

우리를 얹매는 대적의 진영을 산산히 깨뜨려 버립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한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불가능이란 더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하기를 명하시는 일이 기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중국이 변하길 원하십니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모이십시오.

중국을 위해,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위해 함께 무릎꿇읍시다.

'중국을 주께로 기도함주회'는

기도의 광장을 마련해 놓고 기도의 헌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 **문의** : 중국어문선교회 (Tel : 594-8038, 533-5497)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천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한답니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가 합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①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320-0283, 0290)

②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성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일 일 이 - 영 육 구 원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